노인대학을 통한 노인의 재무장

BUILDING THE EDUCATION OF CITIZEN SENIOR NEWLY

By

SHIN, KWANG SHIC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Jeju, Korea

2014

ABSTRACT

BUILDING THE EDUCATION OF
CITIZEN SENIOR NEWLY

By

SHIN, KWANG SHIC

제주는 예로부터 유배지로 취급 받는 섬이요 오지였으며, 돌이 많은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못한 곳으로 취급 받아 왔다. 또한 근세기에는 수만 명이 희생당한 4.3사건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상처를 받았다. 그러한 상처를 직접 몸소 체험한 노인들이 본 노인대학에만 35%이상이나 될 만큼 노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 본 프로젝트는 고령시대를 맞아 제주선교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으로서, 노인선교, 그 중에서도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한 선교적 접근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인세대가 겪는 고통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폭발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정부가 노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봐도 사실상 고령사회를 위한 선교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을 다루면서, 보다 신앙적인 방향으로 노인들의 영적인 무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겪는 문제들은 본 프로젝트에서 제시했듯이, 소외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교육욕구의 문제, 고령화로 인한 삶의 질적 저하의 문제 등이 가장 심각한 문

제들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Chapter2에서는 신학적 연구의 관점에서 노인의 소외문제를 다루었다. 소외적 요소에 대해서 여성신학적 접근을 통해 ‘부정적인 문화적 이미지’를 거부하고, ‘차별적인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거부하고, 젊은 세대에게도 ‘비인간화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실천신학적 접근을 통해 노인문제를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제반 문제로 인식하고 정신적인 치료와 상담원리를 강조하였고, 예배를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생태신학적 접근을 통해 소외되는 노인의 현실을 조명하였다. 또한 소외의 이유에 대하여 Hans Küng의 교회론과 Conzelmann의 임박한 종말론의 입장에서 풀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Beauvoir 와 Vaillant로부터 ‘의미 있는 타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적인 은퇴와 소통의 공동체를 달성하는 목표에 이르렀다. 특히 한정란이 제시한 세대공동체교육은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을 달성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여겨진다.

둘째, Chapter3에서는 성서적 연구의 관점에서 노인의 노화로 인한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 성경으로는 전도서의 말씀을 주로 다루었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제사장, 이삭, 다윗 등의 노화로 인한 질병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역은 스트레스 해소 사역임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성서적인 질병치유의 관점과 질병과 스트레스의 관계 및 노인의 스트레스를 욥기서를 중심으로 다루었고, 욥, 다말, 예레미야 등을 예로 들면서 질병의 원인으

로서의 스트레스를 규명하였다. 결국 스트레스의 해소는 질병치유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성서적인 치료방법들 즉, 웃음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질병치료, 말씀치료, 사랑치료, 믿음치료 등의 원리들을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Chapter4에서는 고령화와 노년학의 발전으로 인한 노인교육시대의 도래를 설명하면서 한정란의 노인을 위한 교육목표와 류종훈, 김종서 등의 교육목표를 예로 들었다. 노인교육의 현실과 문제를 다루면서 현행 한국사회의 노인교육 관련법과 정책을 살펴보았고, 노인학교,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등의 운영상황을 고찰하였다. 특히 현시대 노인교육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노인대학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목적성의 저하, 교육환경의 변화, 교사진의 전문성 부족과 영성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교사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교사와 교회가 먼저 전문성 교육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학습의 원리들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Chapter5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도입적인 설명을 했으며, 심각한 고령화의 사회문제를 노인문제로 제시했다. Fishman의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거대한 노년층의 도래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시작하여,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상황을 객관적인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다. 또한 고령화의 원인을 규명하

고, 노인문제의 원인에 관련된 사회학적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독거노인의 증가, 노년부양비의 증가, 노인의 경제적 빈곤, 노인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노년학회 연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된 '성공적인 노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실버산업의 활성화와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이 시대의 풍조가 점점 악해져 가면서 노인의 소외와 관계단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역할을 상실해 가는 노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급격한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을 더욱 부추기고,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소외와 단절로부터, 질병과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한 가닥 빛줄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노인대학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으며, 제2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얻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한 여러 실행들을 통해 노인대학이 노인들을 노인문제에서 건져내어 영적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신학적, 성경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노인문제에 관한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대학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제적인 실행자료를 얻어내고 있다.

물론 이 실행자료가 완벽한 연구자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작은 씨앗이 되어 밀알처럼 썩어져 작지만 새로운 싹을 틔워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다. 이러한 무수한 노력들이 합쳐진다면, 노인대학이 노인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희망으로 자리잡는 일도 단지 꿈은 아닐 것이다. 임양택은 노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쓰면서 “이 연구는 노인들이 잃어버린 희망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한국교회 3,300여 개 교회의 노인대학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교사들이 이러한 본질을 깨닫고 노인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노인대학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ACKNOWLEDGMENTS

먼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여러모로 훌륭한 조언과 격려로 지도해 주신 김상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수고해 주신 사랑하는 연구반원들, 곧 송영희, 이해숙, 김인영, 강숙희, 고희경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신학의 귀한 학업의 기회를 총장님과 학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관심으로 신경 써주신 백창건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오히려 저보다 더 속을 태우면서도 사랑의 말로 늘 격려해 주던 사랑하는 아내와 멀리 청주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아빠를 응원하던 사랑하는 딸 지민이와 아빠 때문에 컴퓨터를 제대로 쓸 수 없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들 준호는 저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협력해 주신 노인대학의 황경자 총무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영문도 모르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설문과 활동에 참여해 주신 노인대학의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종인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TABLE OF CONTENTS

I. 서론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선교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은퇴 이후 여가생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교회가 노인들에게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의 교육을 맡아 담당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적 수단은 없을 것이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 못지 않게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수명이 연장되어 길고 건강한 노인시대 즉 제 2 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노인들에게 제 2 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적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으며, 이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바로 노인대학을 통해 노인들을 교육하는 방법인 것이다.

한국사회가 그런 것처럼, 제주지역도 고령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실정이다. 핵가족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1]로 고령부부가 같이 살거나 독거노인으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에 출석하는 노인들의 50%가량이 독거노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이다. 그러므로

[1] 예부터 제주의 주거형태는 안채와 바깥채로 나뉘어 있는데, 안채는 크고 넓지만 바깥채는 작은 방 하나와 딸린 작은 부엌이 하나 있을 뿐이다. 제주의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안채를 자녀가족에게 내주고 부모는 바깥채로 거주지를 옮긴다. 그리고 식사도 따로 차려 먹으면서 자리를 내주고 철저히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고독과 소외 및 심리적인 노화현상과 싸워야 하는 노인들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회적 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대학의 어떤 참가자는 “매주 노인대학 하는 날만 기다려져요. 노인대학은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노인대학이 노인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과 인생의 즐거움은 매우 크다 하겠다. 선교적 측면에서도 노인대학은 지역 노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대략 50 대 50 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 140 명의 노인들 가운데, 절반인 약 70 여명의 기독교인 노인들 중에는 노인대학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12 명에 이르고 있다. 교회는 노인대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좋은 인식을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비기독교인 노인들에게 선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가 노인대학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선교적 유익이 되는지, 노인대학이 노인들의 영적인 재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교회가 돌보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교회는 노인들을 위한 영혼구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1. 제주도

1) 지역적 배경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섬으로서, "제주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 상하이, 도쿄, 타이베이 등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일정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해상의 잠재적 완충지"[2]이고, 대륙(러시아, 중국)과 해양(일본, 동남아)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관광지이다. 섬의 중앙에는 한라산(1,950m)이 우뚝 솟아있고, 섬의 동서의 길이는 73km, 남북의 길이는 31km, 해안선 길이 253km, 총면적 1,849.2㎢로서 한반도 면적의 0.8%정도가 된다.[3]

제주도는 예전부터 자연재해가 많아 삼재도(三災島)라 불리었다. 한라산이 높고 비가 오면 물흐름이 빨라 수재(水災)가 많았고, 화산섬으로 토질이 척박하여 가뭄이 잘 타서 한재(旱災), 또 태풍의 길목이 되어 풍재(風災)를 자주 만나는 재해의 섬이었다. 따라서 제주인은 검소했고, 부지런했으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력이 강한 면이 있다.[4]

제주도는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으나, 1946 년 8 월 1 일 도제로 승격되었으며, 2006 년 7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인구는 2012 년 3 월말 577,812 명(제주시 424,561 명, 서귀포시 153,251 명)이 살고 있다. 제주의 주요 산업은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며, 공업 등 2 차 산업은 아주 빈약하다.

---

[2] 제주영락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제주영락교회 60주년사* (제주: 제주영락교회, 2012), 110.

[3]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소개,"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1003 (accessed May 2, 2013).

[4] 제주영락교회 역사편찬위원회, *60주년사*," 111.

자연경관이 우수한 휴양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제주도는 크게 행정구역상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에 비해 도청이나 공항 등이 있는 제주시가 더욱 발전된 도시화를 이루고 있다. 제주시는 지역적으로 동쪽은 구제주, 서쪽은 신제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구제주는 비교적 제주의 옛 모습이 남아있고 제주의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도심이며, 신제주는 최근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타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 비교적 고층빌딩과 현대식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제주영락교회가 속한 지역은 제주시의 동쪽 끝 지역으로 제주의 구도심 중에서도 외곽지역이며 노인들 역시 제주의 토박이 주민들이 많은 편이다. 이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전통적인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며 문맹률도 높은 편이다. 현대식 아파트가 많은 신도심에 비해 주택들도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으며, 이러한 외형적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편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제주도의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자녀들과 분가하여 외롭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도민들은 반도부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많이 진출하여 8·15 해방직전까지 제주도의 인구는 20 만 명(208,915 명/1940 년) 수준에서 증감을 되풀이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으로 건너간 도민들이 귀환하여 8·15 해방 직후인 1946 년에는 266,149 명에 이르렀으나, 1948 년의 4 ·3 사태[5]로 상당한 인구 손실이 있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의 대거 유입과 육군제일훈련소가 들어섬에 따라 인구가 크게 늘어나 1955 년에는 288,806 명을 기록했다. 그 후 제주도의 인구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1960 년대 말경부터 추진된 본격적인 관광 및 감귤농원의 개발로 1960 년에 281,723 명이었던 인구는 1970 년에 358,085 명, 1980 년에 462,941 명, 1990 년에 514,605 명 등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는 2000 년에 513,260 명, 2010 년에 528,411 명 등 증가세가 급격히 감소했다.[6] 제주도민의 주된 직업은 농업(감귤 및 밭농사) 및 어업 등의 1

---

[5]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4·3사태로 인한 희생자수는 4·3위원회에 신고된 사망 및 실종자가 14,028명이며, 아직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하면 25,000 ~ 30,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6]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대한민국 인구," http://ko.wikipedia.org/wiki (accessed September 25, 2013).

차 산업과 관광업, 숙박업, 상업, 교육 등의 3 차 산업 종사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1990 년대에는 인구 면에서 도시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제주시는 1970 년대부터 추진된 신시가지(신제주)의 개발로 급속히 성장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이 2 개 행정시 7 개읍 5 개면 31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인구율이 높다. 그러나 읍급도시들은 면적과 인구에 비해 중심가의 발달이 빈약한 것이 보통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1 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유적들을 통해서 추정되고 있다.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이 29기가 존재한다. 제주도에는 개국설화인 고, 양, 부 삼성신화가 모든 과거의 문헌들에서 빼놓지 않고 기술되고 있다. 제주의 옛 명칭은 도이(島夷), 동영주(東瀛洲), 섭라(涉羅), 탐모라(耽牟羅), 탁라(乇羅) 등으로 불리어 왔다. 이들 명칭 중 '동영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섬나라' 라는 뜻이다. 고을나'의 15대 후손 3형제 (후, 청, 계)가 당시 한국의 고대왕조의 하나인 '신라'(BC 57~AD 935)에 입조(入朝)하여 '탐라'라는 국호를 갖게 되었고, 또 이때부터 '탐라'는 '신라'를 섬기게 되었다. 탐라국은 씨족자치제에서 권력이 집중된 전제군주 통치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 탄생된 제주

최초의 고대국가이다.[7] 기록에 의하면 이 탐라국은 고구려, 백제 및 신라로 분열된 삼국시대에는 이들 나라들과 독자적으로 혹은 그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외교관계를 맺어 왔다.[8] 그러나 역사대대로 끊임없는 왜구(일본)들의 침탈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고,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은 왜적을 방비하기 위한 성터와 몽고에 대항했던 항몽유적지가 남아 있다.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 동안 중앙정부와 제주도와의 관계는 원만했다. 절해고도, 척박한 토양, 연례행사처럼 내습하는 태풍 등 자연재해, 이런 악조건들은 해마다 굶주린 주민을 구제해야 하는 극한적인 식량난에 봉착하게 했다.[9]

본 연구의 해당지역이 되고 있는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유배지로서 사용되어 올 정도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왔고, 인구의 10%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4.3사건(1948) 같은 역사적 비애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동안 제주도민들은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유배자들의 후손으로 여겨져 왔으며, 마치 육지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별의식으로 인해 지금도 제주도민들의 정신 속에는 소외에 대한 분노와 비참한 역사에 대한 풀리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육지 사람들을 가리켜 '육지 것들'이라

---

[7] 제주영락교회 역사편찬위원회, *60주년사*," 112.

[8]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의 역사,"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1002, (accessed May 2, 2013).

[9] 제주영락교회 역사편찬위원회, *60주년사*," 114.

고 말할 정도로 육지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과 거부감이 내재해 있다.

3) 제주도의 노인인구 현황

고령사회의 위기는 반도부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역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1998 년 39,130 명, 2003 년 47,958 명, 2008 년 63,819 명, 2013 년 77,795 명에 이르고 있다. 1998 년에 비하면 2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020 년에는 97,648 명, 2030 년에는 148,248 명, 2040 년에는 196,663 명으로 예상된다.[10]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가 발표한 제주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7 년에는 만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만 14 세 이하인 유년인구를 추월하게 된다고 한다. 1996 년에 이미 제주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5 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5 년에는 20.1%로 '초(超)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특히 2010 년 제주의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2.8%로서, 전국평균 11.3%에 비해 1.5%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빠른 속도이며 통계청은 이런 진행상태라면 2050 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노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11]

---

[1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accessed September 12, 2013).

[11] Ibid.

만 14 ~ 64 세 인구가 만 65 세 이상 인구를 어느 정도 부양하는지를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 100 명당 노년부양비는 1998 년 10.9%, 2003 년 13.8%, 2008 년 17.3%, 2013 년 20.2%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제주사회가 2003 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7.6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하였다면, 2013 년에는 4.9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인데, 노년부양비가 2020 년에는 25.2%, 2030 년 42.9%, 2040 년 6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40 년에는 1.5 명이 노인 1 명을 부양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12] 이 수치는 경제현장에서 일할 연령층은 줄어드는 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실이며, 그만큼 사회전체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13]은 47.3%로 전국 31.3%보다 16.0%p 앞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연금 등 재산적 소득이 낮거나 자녀들 혹은 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제주의 노인들은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생의 황혼에 다다른 우리 제주사회의 노인들이 얼마나 고단한 환경 속에서 사는 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실례이다.

---

[12] Ibid.

[13] 제주통계사무소, “경제활동인구”, http://kostat.go.kr/office/hnro/rohn_ki/3/4/index.static (accessed August 15, 2013).

장수는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간다운 장수는 결코 생물학적 생존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이 더욱 인간생존에 부합해 질 때 가능해진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축복받아야 할 수명연장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 다가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근세기에 일어난 제주 4.3사건은 아직도 그 사건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상당수의 노인들이 살아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잊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노인들이 많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여전한 상처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각도로 제주 4.3사건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화해와 상생'을 외치며, 과거사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 4.3사건은 여야의 대립구도에서 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오는 갈등문제, 중앙정부와 반도부에 대한 피해의식, 핍박과 가정해체로 인한 정신적 상처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기에 교회가 이러한 제주 4.3세대들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돌보고 정신적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은 제주라는 특수한 지역에 필요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2. 제주영락교회(The Jeju-younglak Presbytery Church)

1) 제주 지역교회의 역사

1884년 알렌,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들어온 이래로, 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1907년 최초의 노회(독노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때 7인의 장로회신학대학교 1회 졸업생들 중에 이기풍을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하였다. 국내이면서도 선교사 칭호를 부여한 점은 제주도가 당시 절해고도이며, 독특한 지역적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4] 이기풍은 1908년 제주도에 상륙하여 신축민란(1901)으로 인한 서양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이겨내며 7년 동안을 선교사업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제주 성내를 비롯하여 삼양, 내도, 금성, 한림, 협재, 두모, 용수, 고산, 모슬포, 중문, 법환, 세화, 조천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였다.[15] 그 후 전라노회에서 파송한 윤식명 목사(모슬포)와 이경필 목사(삼남지방) 등이 입도하여, 그 결과 법환, 중문, 고산, 용수, 두모, 협재 등 6개 교회와 기도소 5개소가 서게 되었고, 황해노회에서 파송한 임정찬 목사(성읍)에 의해 성읍, 세화, 조천 등 세 교회와 기도처 한 곳이 서게 되었다.[16]

제주노회가 조직된 것은 1930년 11월 14일이며, 최초 제주노회 소속 교회는 19개 교회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미약한 상태였다. 노회조직 후 해방까지 15년간 남원, 조수, 무릉(영락), 대정, 화순 등 5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

14 제주영락교회 역사편찬위원회, *60주년사*," 108-109.

15 Ibid., 120.

16 Ibid., 120-121.

시대는 제주선교 초기에 눈물과 수고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결실이 되어 성숙한 교회로서 발전되어 나아갔으나, 일본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여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교세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다.[17]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으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비극과 사상대립으로 인한 좌, 우의 충돌, 제주 4.3사건[18]과 여순반란사건[19], 그리고 6.25전쟁 등으로 얼룩진 고난의 시대가 이어졌다.

특히 6.25전쟁으로 인해 월남한 실향민 가운데 제주도에 들어오는 피난민들이 대략 전체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 수천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끼어 있었다. 이들은 제주도 각처에 흩어져 살며 교회를 도왔고 전도에 힘썼으며,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피난 성도들끼리 모이고, 피난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여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1951년부터 1953년 7월까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3개 교단에서 무려 19개 교회를 설립했다. 제주도에 피난 온 성도들 중 다수가 제주시에 집결되어 제주시 삼도2동에 수용

---

[17] Ibid., 123-124.

[18] '4.3특별법' 에 의하면,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으로 정의되어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에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옥 전소 39,300동, 사망자 40,000여 명, 그리고 수많은 부상자와 실종자들을 양산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 유가족과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 원한과 증오가 사무쳤고, 지역사회 전체에 사회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다.

[19]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이 일으킨 반란사건으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비극이다.

소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 피난민교회가 설립되었다.[20] 4.3 사건으로 인해 쑥대밭이 된 제주도는 당시 도민 중 절반이 넘는 9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생업수단을 잃고 기아선상에 놓여있던 터에 밀려든 15만여 명의 피난민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제주영락교회의 역사

제주영락교회는 1952년 민족의 잊지 못할 6.25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고통과 시련 중에 탄생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21] 1951년 1.4후퇴로 피난민이 제주도로 이송되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 영락교회 교인이 350여 명이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1952년 1월 6일 시내 한복판에 있는 평양옥에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예배를 드림으로 제주영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22] 2월 9일에는 당회가 조직되었고, 교회내의 젊은 일꾼을 중심으로 청년부가 조직되었다. 4월 13일에는 기독청년회가 발족, 출범했고, 주일학교를 개설했다. 그 산하에 영아부, 유아부, 소년부, 중, 고등부를 갖추어 본격적인 교회 사역이 전개되었다.[23]

설립년도인 1952년 5월의 교세는 일반교인 350명을 비롯하여 어린이 180명, 중고등 학생 45명, 청년 60여 명에 이르는 중형교회로 성장하였다.

---

[20] Ibid., 128-132.

[21] Ibid., 4.

[22] Ibid., 140-141.

[23] Ibid., 143.

1954년 '소래기 동산'이라 불리는 언덕에 첫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교회는 1954년 1월 28일 제주노회에 가입했고, 1955년 1월에는 제주노회 28회 정기노회가 제주영락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24] 1958년 12월 7일 근처에 있는 교단분립의 분쟁으로 인해 동부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제주영락교회로 합류하여 예배드리기게 되었는데, 이때 합류한 인원은 최의종 목사 외에 어른 80여 명에 이른다. 1958년 말 교적부의 장년수는 334명에 이르렀다.[25] 한인수는 1959년 제주영락교회에 할당된 "노회의 상납금은 66,000환이었는데 이는 노회 내 최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26]

제2의 교회당 건축은 1971년 12월 완공했으며, 이 무렵 제주영락교회는 소외계층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여, '제주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7] 또한 1972년 제주시교육청에 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0월 10일 6학급 300명 정원의 '제주영락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학교는 기독교교육에 근거하여 학교를 운영하다가, 운영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1983년까지 11년간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하였다. 제주영락교회는 1979년에는 교회 개척을 주도하여 납읍교회와 저청중앙교회 등을 개척하였다.[28]

---

[24] Ibid., 148-155.

[25] Ibid., 163.

[26] 한인수, *제주선교백년사*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9), 189.

[27] 제주영락교회 역사편찬위원회, *60주년사*," 188-197.

[28] Ibid., 187-211.

제주영락교회는 1982년 어른 750여 명, 교회학교 730여 명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제3의 교회당을 건축하여 1987년 4월 19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1987년 농아부와 사랑부를 신설하였고, 1989년에는 제주영락 노인대학이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사회봉사관이 건축되면서, 제주영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개설 및 성장하게 되었고, 2005년 제주영락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났다. 새 성전 건축 후에 성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어른 2500여 명, 어린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교회로 성장하였다.[29]

3) 제주영락교회의 목회적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주영락교회는 제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 담임목회자를 비롯하여 목사 8명, 전도사1명 등의 목회자와 총 제직 1180명(2012년)을 비롯한 제적 약 3500명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영락교회는 제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서, 제주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연합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제주소아암재단, 제주극동방송, CBS방송, CTS방송, 제주기독신문, 호스피스사역, 교도소사역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사회복지관 등의 부설기관과 노인대학 등의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선교사역으로는 8가정의 파송선교사와 14가정의 협력선교사를 지원하며, 매년 해외단기선교 및 의료선교사

---

[29] Ibid., 280-403.

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영락교회의 노인대학은 1989년 첫 개교한 이래, 김정서 담임 목사의 목회적 비전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한 노인교육의 필요성, 교회에 대한 사회적 복지영역의 확대요구, 지역의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개방적 교육을 통한 노인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범하게 되었다. 제주영락교회 65세 이상 노년부는 약 600명 가량이며, 이는 전체 6분의 1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본 노인대학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며 정원은 250명이고, 대학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나뉘어, 매주 200명 정도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대학의 주요 프로그램은 주로 오전에는 예배 및 특강으로, 오후에는 반별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매 학기 1회씩의 소풍이 있으며, 1년에 1회 수학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지역적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산 증인들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목회적 상처의 치유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노인대학은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활성화된 노인복음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노인에 대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노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요양보호사 양성, 요양원 및 양로원 건설 등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대학 같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교육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떤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보다도 자원봉사자 및 교육공간을 확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결국 노인대학은 노인복지에 있어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교회만이 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교회가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선교영역이 생긴 것이다.

3. 노인과 노인의 문제

1) 노인의 정의와 범위

노인(老人)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뜻하며, 어르신[30]이라고도 부르나 그 외에도 늙은이, 고령자, 시니어, 실버 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31]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능력이나 적응성의 퇴화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노년기'라 하며,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한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은 모든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제주영락 경로대학'이라고 부른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회 노인대학 연합회'에서 '노인대학'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부르도록 한다.

[30] 한국에서는 웃어른에 대한 경로사상이 전통적인 미덕이 되어 왔다. 이에 노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 '어르신' 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제주영락노인대학에서도 이 말을 노인을 부르는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31]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accessed September 25, 2013).

성서는 레위기 27:1-8의 서원에 대한 법령에서 인생의 단계에 따른 몸값 계산 규정을 다루는데,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나이와 인생의 단계와 연결지어 노년에 대한 기준을 가늠해 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 남자든 여자든 60세를 넘는 사람의 서원 값(남자 : 15세겔, 여자 : 10세겔)이 20세에서 60세까지에 속한 사람(남자 : 50세겔, 여자 : 30세겔)의 것보다 적다는 것은 60세 이후의 사람은 쓸모가 적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분표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장년에서 노년으로 전환하는 나이는 60세로 볼 수 있다. 신약시대에도 노년의 기준나이를 찾기 어려우나 구약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예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가 아직 오십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7)"라고 따지는 질문에서, 당시 50세 정도가 노년의 기준으로 여겨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Hareven은 "노인기로의 전환을, 다양한 역사적 조건하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결정하기도 매우 힘들다"고 했다.[32] 이전에는 60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65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되고 죽음으로 인하여 노년기가 끝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발달단계로서, 신체적 능력의 쇠퇴 및 질병이환, 사회

---

[32] T. K. Hareven, Ed., *The Family and the Life Cours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16.

적 관계의 축소,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등과 같은 쇠퇴적 발달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33]

제 2 회 국제 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34] Peterson 은 노인을 "55 세 이상의 혹은 그 이하라도 연령과 관련된 요인에 의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로 정의하였는가 하면, UN 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65 세로 규정하고 있다.[35] 1981 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5%가 노인의 기준을 60 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하여, 1992 년 최성재 등의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4 천명 중 30%이상이 노인의 기준을 65 세로 보고 있어, 그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2008 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70~74 세가 5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5~69 세(24.1%), 60~64 세(7.1%), 80~84 세(6.5%)의 순으로 나타났다.[37]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 연령 범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33] 김동배,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2005), 289.

[34] *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

[35] D. A. Peterson, *Facilitatinig Education for Older Learners* (San Francisco, Califonia : Jossey-Bass Publisher, 1983), 8.

[36] *중앙일보*, August 20, 1992.

[37]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http://www.mw.go.kr (accessed October 2, 2013).

최근 한국에서는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를 법령에 따라 상이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2011 고령자통계'에서는 주로 65 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인용한 원 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 세 이상, 준 고령자는 50 세 이상 55 세 미만인 자, '노인복지법'또는 '생활보호법'에서는 65 세 이상인 자, '국민연금법'[38]에서는 60 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 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39]

한국의 노인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제주영락 노인대학은 65 세 이상의 고령자를 노인으로 규정하여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년 재학생 현황을 보면, 70 세 미만의 노인은 거의 지원하지 않아 매년 0~2 명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상 만 70 세의 노인이 막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만 70 세가 교회 직분자들의 은퇴연령이기도 하고, 70 세 미만의 노인은 아직도 본인 스스로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앞으로 노인대학의 입학 규정을 70 세 이상의 노인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2) 노인에 대한 부정적 관점

노인을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 중에 '기계론(Machanism)적 관점'[40]은 인

---

[38] 점차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9]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 (accessed October 2, 2011).

[40]기계론적 관점은 고대 그리스의 Dēmokritos(BC 460 ~ BC 370)나 Epikouros(BC 342? ~ BC 271) 등의 원자론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17 세기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과정에서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확립되었다. 근대 이후에 Thomas Hobbes(1588 ~ 1679)와

간을 각각의 부속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존재로 전제하여, 외부의 힘에 대하여 반응하는 본질에서 수동적인 존재이며, 노화로 양적인 쇠퇴와 지능과 행동이 저하되는 마이너스적 변화라고 보았다. 노인에 대한 통속적인 고정관점은 노인들은 병들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신체 및 정신적으로 비생산적이라는 것이다.

Menandros[41]의 견해에 따르면, "너무 오래 사는 사람은 염증을 느끼고 죽는다. 그의 노년은 고통스러움 돈도 궁하다. 제때에 가버리지 못하면 적들뿐이다. 모두들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민다. 제때에 가버리지 못하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42] Aristoteles 는 『수사학(Rhetorica)』에서 젊음을 더할 수 없이 밝고 즐거운 빛깔로 그려놓는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년은 모든 면에서 그 반대이다. 그는 노년에 대해 노인들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또 그러는 동안 종종 속으며 살았고, 실수도 저질렀으며, 또 인간사란 태반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들이므로 그들은 아무것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뻔히 드러나는데도 모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것 뒤에 숨어 위선적으

Rene Descartes(1596 ~ 1650), Baruch de Spinoza(1632 ~ 1677), La Mettrie(1709 ~ 1751), Isaac Newton(1642 ~ 1727) 등은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자연에서 신성(神性)을 제거하고, 순수히 물질적인 운동의 법칙으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기계론적 자연관은 물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여 근대 자연과학 발달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인간의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적용되어 근대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41] 서구 및 인도의 고전작가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왕이다. 불교의 후원자로 불교의 중요한 문헌인 『Milinda panha』의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는 카프카스(Kavkaz) 출신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전기작가 Plutarchos는 박트리아(Bactria)의 왕이라고 했고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인 Strabo는 '알렉산드로스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한 '박트리아 왕 중 하나'로 기록했다.

[42] Simond de Beauvoir, *노년*, 홍상희 & 박혜영 역 (서울: 책세상, 2002), 148.

로 행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노인들은 터놓고 말을 하지 않으며 망설이며 겁이 많고, 성격이 나쁘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노인들은 사랑이나 미움에 있어서도 미적지근하고, 비루하고, 관대함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흥분하면 격렬하고, 나약하고, 이제 웃을 줄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또한 『정치학(Politica)』에서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 종신 최고권 제도는 문제가 매우 많은 제도이다. 왜냐하면 육체와 마찬가지로 지성에도 노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정치권력에서 멀리 떼어놓게 했다.[43] 그는 노인들을 쇠퇴한 인간으로 보았던 것이다.

많은 노인들을 돌보았던 Levergies 박사는 Jacoba Van Veld 의 『큰방(La Grancle Salle)』이라는 저서의 서문에 "노년을 행복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훌륭하든 혹은 형편없든 소설가들 밖에 없다." 고 썼다.[44]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노년을 슬프게 혹은 반항적으로 맞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노년을 죽음 자체보다 더 큰 혐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노년은 "죽음의 풍자적 모방" 이라는 견해도 있다.[45] Myers 는 "말년에 다다르면 도전거리가 나타난다. 즉, 수입이 줄어들고, 직업은 없기가 십상이며, 신체는 약화되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에너지는 사그라지고, 가족과 친구가 죽거나 멀리 떠나며, 최대의 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가깝게 다가온다"고 하였다.[46]

---

[43] Ibid., 153-154.

[44] Ibid., 679.

[45] Ibid., 756.

[46] David G. Myers,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 신현정 & 김비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133.

제주영락 노인대학이나 교회의 노인들을 방문하여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죽어야죠’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다. 노인 스스로도 노인은 오래 살아서 민폐를 끼치지 말고 빨리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독하고 활동력은 떨어지고 생산활동도 할 수 없고 몸도 아프고 인생의 낙을 느끼지 못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4. 노화와 노인

1) 노화현상

Peterson 은 생리적, 신체적 의미에서 노인기는 “신체적 변화가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제한하고 운동성과 활동, 참여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시기”로 정의했다.[47] Simond de Beauvoir 는 “늙는다는 것보다 더 자명하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없다” 고 하면서,[48] “노화란 변화의 한 유형이다. 불가항력적이며 불리한 변화, 그것을 우리는 노쇠라고 부르는 것” 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현상의 필연성을 표현했다.[49] 여기서는 잘 알려진 노인의 신체적인 노화현상을 제외하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노화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

[47] D. A. Peterson, *Facilitatinig Education*,” 116.

[48] Beauvoir, *노년*,” 12.

[49] Ibid., 20.

첫째, 심리적인 노화현상이다. 이는 외부 환경이나 자신의 발달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 문제해결능력의 발달 혹은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연령과 관련이 적은 노화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 노화에는 인지적 측면의 발달뿐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비인지적 요소인 동기나 정서적 측면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노화는 지능이나 학습능력, 지각 등 인지적인 요소의 변화와 성격, 동기나 욕구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의 변화를 포함한다.[50] 노인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노화는 권태와 고독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이 되면 지적 능력이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능, 기억력, 학습능력,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감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51] 이러한 두뇌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 및 스트레스, 위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인 노화현상이다. 이는 지위와 역할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장권이나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 생활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생리적 노화에 비하여 “중요한 전환적 사건(maker event)[52]으로 구분되는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대기적 연령과의 관련성이 더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53] 사회적 노화는 하나의 단계 후에 다른 단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

[50] 한정란,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2001), 84.

[51] 단, 노인의 교육수준, 세대간의 차이, 사회 경제적 지위, 직업,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2] Maker event란 한 시기의 끝과 다른 시기의 시작을 가리키는 환경을 의미한다. 즉, 어떤 시기에서 또 다른 시기로의 전환을 초래할 만큼 개인의 인생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53] Ibid., 82.

선형적(linear)이지만, 이들 단계에 어떤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노화는 사람이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승진을 하고, 은퇴를 하고, 여러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물러나도록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시기가 있음을 의미해 준다.[54]

셋째, 경제적 노화현상이다. 이는 고용생산 면에서의 후퇴로 인해 임금중심의 사회적응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격감, 취업곤란 및 불능, 저임금 및 직업 불안정,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취업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젊을 때의 왕성했던 경제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되어 간다. Ted C. Fishman은 고령노동자들이 퇴직 후 "6개월 이상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풀타임 일자리를 잃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찾는 사람은 겨우 1/3 정도이고, 새 직장에서 받는 임금은 이전 직장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연구소는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은 고령 노동자들 중 43%는 이전 직장보다 1/4 정도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이상은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한다.[55]

2) 노화연구에 관한 역사적 고찰

노년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노화나 노인에 대한 관심은 존재해 왔다. 1830 년대 이전까지의 노화에 대한 관심은 노인과 노

---

[54] D. A. Peterson, *Facilitatinig Education*," 121.

[55] Ted C. Fishman, *회색쇼크*, 안세민 역 (서울: 반비, 2011), 300.

화를 과학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신화적이거나 종교적 관심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성직자들과 의사들은 노화와 죽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고, 또 그러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노화나 죽음도 유전적인 구조 때문이 아니라, 마귀라든가 귀신 같은 어떤 외부의 힘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인간의 존재나 본성 그리고 노화까지도 미신, 물활론, 마술 등을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56]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이르러 초자연적인 시각으로 노화를 보던 관점에서 조금씩 벗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찰을 통해 노화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Platon 은 어린 사람의 특징이 노년기에도 반복되고, 노년기란 여러 가지 욕망이나 야심의 좌절, 성적인 욕망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고, Aristoteles 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생래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식어 가는 것이 노화라고 생각하였다. Hippocrates 는 Pythagoras 가 내세운 혈액, 담,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4 체액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질병이란 이 4 체액의 균형이 파괴된 결과로 생겨나며 노화도 똑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Aristoteles 는 생명의 조건은 내적인 열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노쇠를 열이 식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Claudius Galenus 에 의해 고대 의학의 전반적인 종합이 이루어진 것은 2 세기경인데, 그는 노년을 질병과 건강의 중간 상태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

[56] 한정란, *교육노년학,*" 46.

이 현상을 4 체액 이론과 내부 열 이론을 결합시켜 설명하였으며, 노년기의 운동, 영양, 음식조절, 배설기능 등을 연구하였다.[57]

그 후 중세기 내내 의학의 발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수세기 동안 의학은 그의 저서를 풀이하는 데 그쳤다. 11 세기 Avlcenna(Galenus 의 제자)는 노인들의 만성 질환과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양의학의 탄생과 발전의 산실이었던 Salerno 학파는 '건강과 장수의 식이요법'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3 세기에 노년을 질병으로 간주했던 Roger Bacon 은 Clement 6 세를 위하여 노년 건강법을 저술했다. 거기서 그는 많은 부분을 연금술에 할애한다. 하지만 처음으로 볼록 렌즈를 써서 시력을 교정할 생각을 해냈다.[58] 14 세기경에는 보건 수준의 향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화과정의 병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59]

15 세기 말까지 노화에 관한 저서들은 모두 위생법 개론들이었다. Montpellier 학파는 건강 식이요법서들을 썼다. 15 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과학의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의사 Zerbi 는 『제롱토코미아』라는 노년의 병리학에 바쳐진 전문적인 첫 연구 논문을 썼다. 르네상스 초기에 눈부시게 진보한 의학 분야는 해부학이다. 현대 해부학의 창시자인 Leonardo da Vinci 는

[57] Ibid., 47.

[58] Beauvoir, *노년*," 29.

[59] 한정란, *교육노년학*," 47.

인체에 대한 실제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인체를 해부하였는데, 그는 노인들의 얼굴과 몸을 많이 그렸다. 16 세기에 Paracelsus 는 인간은 '화학적인 구성'이며 노화란 자가 중독으로 일어난다고 했다.[60]

17 세기에는 인구통계 특히 출생과 사망의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게 되었고, 노년에 관한 저서들도 많았다.[61] 18 세기에도 여전히 Galenus 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 Gerard van Switen 은 노년을 불치의 병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는 노화에 따른 해부학적인 변화 중 몇몇 사항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는 노년에 대해 고대 기계주의자들의 이론을 다시 취하고 있는데, 마치 기계가 닳듯이 신체 기관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파손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은 19 세기까지 지지를 얻었다. 한편 독일의 Stahl 과 Huplant 는 '생기론' 을 주장했다.[62] Rostand 은 노인들의 천식을 연구하여 천식과 두뇌 장애와의 관계를 발견했고, Preuss 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병들에 관한 체계적인 첫 저서를 썼다.[63]

한정란은 근대 노년학의 연구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었는데, 제 1 기 : 근대적 연구의 발달시기(1830~1920), 제 2 기 : 노인 의학의 발달시기

---

[60] Beauvoir, *노년*," 30.

[61] 한정란, 교육노년학," 47.

[62] 생기론은 인간 속에서 뭔가 생명의 원칙, 곧 하나의 실체가 있으며 그것이 약해지면 노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라지면 죽게 된다는 이론이다.

[63] Beauvoir, *노년*," 31.

(1920~1940), 제 3 기 : 노년학의 탄생시기 등이다.[64] 제 1 기 근대적 연구의 발달시기(1830~1920)는 노년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시기로 주로 생물학적 측면에서 노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노년학자인 L. A. Quetelet 은 1835 년 『인간의 본질과 그 능력의 발달』이라는 책에서 연령단계에 따른 인간의 능력 변화를 다루었다.[65] 19 세기 중반에는 프랑스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규모 '구제 병원들'[66]이 창설되면서 노인병학이 장려되었다. 특히 Geist 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출판된 노인병에 관해 언급하는 저술들을 잘 종합한 책을 출판했고, C. Minot 의 『연령, 성장 및 죽음의 문제』(1908), 러시아의 동물학자이며 미생물학자인 E. Metchnikoff[67]의 『생명의 연장』 (1908), R. Pearl 의 『죽음의 생물학』(1922), 1915 년에 출간된 미국의 동물학자 C. M. Child [68] 의 『생물체의 개별성』 등이 출판되었다.

제 2 기 노인 의학의 발달시기(1920~1940)는 노년에 관한 의학적 고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S. Hall 은 『노령기 : 인생의 후반

---

64 한정란, *교육노년학*," 48-49.

65 Ibid., 48.

66 최초의 노인병학 기구의 중심으로 간주되는 라 살페트리에르 구제원은 유럽에서 가장 큰 구제원으로, 8천 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 중 2~3천 명이 노인들이었다. J.M. Charcot는 여기에서 노화에 관한 유명한 강연들을 하곤 했는데, 그것이 1886년 출판되어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67 브리태니커사전, E. Metchnikoff 는 동물의 체내에서 세균을 비롯한 이물체들을 삼키는 아메바 같은 세포를 발견한 공로로 1908년 Paul Ehrlich와 함께 노벨 생리학 · 의학상을 받았다. 식세포작용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면역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말년에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은 젖산균 연구에 전념했다.

68 브리태니커사전, Child는 동물에서 손상 부위의 질서정연한 재생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재생과 발생에 대한 축경사 이론(axial gradient theory)을 발전시켰다.

부』(1922)에서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그 시기 특유의 생리적 변화와 신체적 기능, 감정 및 사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1930년경 W. Miles와 그의 동료들이 주도한 '스텐포드 후기 성숙에 관한 연구 사업(Stanford Later Maturity Research Project)'은 노년에 대한 심리학적 조사연구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1938년 E. V. Cowdry가 저술한 『노령의 문제』는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데 자극제가 되었다.[69]

제3기 노년학(Gerontology)의 탄생시기(1945년 이후)는 노인 의학(Geriatrics)에서 노년학으로 전개되는 시기로, 노인 병학, 노인 의학, 가족 관계학, 심리학, 사회학, 법률학, 경제학, 사회복지, 교육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이 고유의 방법론과 관심을 가지고 노년학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시기이다. 1941년 미국 사회과학 연구회에서는 노년생활의 사회적 적응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학제적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여 노년학 연구의 기초를 세우는 데 공헌하였다. 1945년 미국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 in America)가 창립되어, 1946년 학회지인 『노년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를 창간하였다. 그리고 1950년에는 벨지움의 Liege시에서 국제노년학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70]

5. 연구의 목적과 목표

[69] 한정란, *교육노년학*," 49.

[70] Ibid., 49-50.

1) 연구의 목적

장수시대가 전망되는 이 때에 다양하게 발생되는 노인문제들은 정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노인 당사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개인과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갈 문제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교회가 국가와 사회,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그리고 개인과 교회의 연합된 힘의 결집체로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노인대학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영적 공동체로 발전하여 노인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노인대학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대학은 사회의 변화를 주시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며, 그에 걸 맞는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 본 프로젝트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인 문제들을 모티브로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노인대학 커리큘럼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또한 복음적 요소를 가미하여 세상과 차별된 교회만의 노인대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봉사자들을 위하여

그 동안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노인들을 위한 막연한 봉사활동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인 이론과 원리 및 실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또 지도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니까, 그대로 '따라하기식'으로 해왔던 것이다. 노인대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의 부족은 노인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Paul

Tournier는 노년기를 겨울에 비유하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모아져 한 사람의 인격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고,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에서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발견을 시도하였다.[71] 현재 노인대학에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발견’이라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노인을 알지 못하고 노인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대학 봉사자들이 노인과 노인교육에 대한 이해, 즉 기초부터 이해하는 학습을 든든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봉사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 본 노인대학을 위하여

좋은 교육기관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의 전문성이다. 주먹구구식 교육은 한계가 있으며, 발전성이 없다. 그 동안 본 노인대학은 이렇다 할 전문적인 연구자료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경향이 있다. 발전하는 노인대학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훈련 받고 양육 받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런 노인대학이 되기 위한 연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3) 참가자들을 위하여

Henry Nouwen은 돌봄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돌봄이란 “먼저 늙어가는

---

[71] Paul Tournier, *인생의 계절들*, Ktisis 역 (서울: 쉼북, 2005), 144., 원제는 *The Seasons of Life* 이다.

자기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노인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준비가 된다고 하였다.[72] 노인대학은 이러한 돌봄의 현장을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는 미션스쿨로서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신앙교육의 현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교육은 인생의 말년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시간 때우기 교육이 아니라, 인생의 네 번째 계절을 보다 아름답게 영위해 보려는 노력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본 노인대학은 지역의 노인들을 교육하고 섬기는 현장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겨울이라는 인생의 계절을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참가자들을 위해 최적화된 노인대학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근거자료가 되며,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총회 헌법에는 70 세가 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은퇴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여 교회의 원하는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모든 봉사로부터 은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교회에 와도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대학은 노인들이 곧 배우는 학생이요, 주인공들이다.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계발할 수도 있다. 특히 은퇴

---

[72] Henri J. M. Nouwen, *노인의 영광은 백발*, 최종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107, 109.

로 인해 교회사역에서는 소외되었던 찬양대 같은 사역도 담당할 수 있고, 원한다면 노인대학을 섬기는 봉사자로 섬길 수도 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학습하기에 적절하며, 예배와 성경공부도 노인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여 노인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영적인 재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표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들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본 논문은 네 가지의 실행목표를 설정하였다. 실행목표의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 치유, 전문성(영성), 참여이다.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대학의 네 가지 실행목표는 노인들의 문제와 주된 관심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목표들을 설정하였다. 이는 처음 노인대학을 접하는 지역사회의 노인들도 거리낌없이 노인대학에 접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의 영적인 무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노인과 젊은 세대의 소통이 원활한 공동체

노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노화, 역할의 상실,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겪 된다. 지역사회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인은 노인의 소외문제

를 소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인대학을 통해 노인들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소외문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차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인식에서 오는 차이가 크다. 이에 세대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노인소외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세대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인대학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치유공동체

노화현상으로 인해 노인이 겪는 질병의 문제는 때로 답이 없다고 말한다. 노화현상으로 인해 노쇠하는 육체는 질병의 위험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트레스는 인간을 질병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거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스트레스 문제를 심각한 질병의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해소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이나 게임 같은 세상적 치유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서적 치유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전문성과 영성이 있는 노인교육 공동체

교회의 노인대학이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대학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전문성일 것이다. 보통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대학들은 전문강사들을 동원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교회의 노인대학은 재정문제로 인해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들과의 질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노인대학은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교육시스템이 있더라도 대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강사들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전문성의 차이를 메워줄 수는 있는 영성이라는 요소가 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성교육은 떨어지는 전문성을 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교사들을 위한 노인교육의 전문성과 영성, 두 가지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노인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노인인력의 참여와 활용이 활발한 공동체

교육목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술된다. Mary A. Gunter & Thomas H. Estes & Susan Mintz는 수업목표에 있어 KUD형태를 선호한다. KUD란 '학생들은 알 것이다(Know)', '학생들은 이해할 것이다(Understand)', '학생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be able to do)'와 같은 설계를 말한다.[73] 이러한 이론처럼 노인교육의 목표는 결국에는 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노인대학이 '노인에 대한 교육'과 '노인을 위한 교육'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교육대상자가 노인으로서 노인이 교육을 받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교육은 '노인에 의한 교육'으로 발전해야 하며, 노인 스스로 무엇인가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능동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시험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에 의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들 스스로 운영하고 가꿔가는 노인대학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

[73] Mary A. Gunter, Thomas H. Estes and Susan Mintz, *수업모형*, 권낙원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0), 65.

II. 노인과의 소통을 위한 신학적 연구

1. 노인의 소외

이 시대의 노인들이 당하는 소외현상에 대하여 이종록은 “이 시대가 경제적인 효율성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심히 염려스럽다. 불행스럽게도 그런 현상들이 만연하다. 매스컴은 20대 전후의 젊은이들만을 보여준다. 노인들은 거의 모든 것에서 소외 당한다”고 했다.[74]

노인들에게 소외적 상황을 일으키는 원인은 질환, 사망, 퇴직, 취약성 증가, 사회적 고립, 감각 결핍, 사망에 대한 인식 증가, 공공시설 수용 및 의존성에 대한 위험증가 등으로 규명할 수 있다. 노년은 맺고 있던 인간관계가 하나씩 끊어져 가는 시기이며, 정신적으로도 보수성과 경직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활력도 부족해 진다. 특히 핵가족화 및 저출산의 문제, 이혼율의 증가, 배우자 및 가족 사망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으로 말미암아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는 노년의 관계단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75] 소

---

[74] 이종록,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교회의 노인선교 전략,” *제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서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2012), 10.

[75] 전영수,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 (서울: 맛있는 책, 2011), 11.

외되고 착취당한 사람들은 기력이 사라지면 숙명적으로 폐품과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76]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교회의 성도 층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노인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77] 교회 안에서도 노인에 대한 소외현상은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는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교회는 무시당하고 소외 당하는 노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소외에 관한 여성신학적 접근

여성신학은 여성의 경험을 여성인식의 주요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여성신학적 접근은 여성의 경험에 관련된 문제를 직시하고 교회와 사회의 장에서 여성의 억압과 해방의 구체적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78] 현대에 와서 여성신학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간관을 요구하는 이론이나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구조적인 억압과 소외의 문제들 즉 생태계의 위기문제,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한 문제들로 다양화되고 있다.[79] 이는 여성신학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생태신학이나 노인신학의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는 의

---

[76] Beauvoir, *노년,*" 759.

[77] 강윤구, "노인 인권에 대해서," *교육목회* 통권 제17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99.

[78]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17.

[79]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8.

미이다. 여성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노인에 관한 문제들도 '억압과 소외의 문제'라는 여성신학적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소외에 관한 여성신학적 관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소외에 관한 여성신학적 관점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이미지를 거부"하는 것이다.[80] Simond de Beauvoir는 『노년』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들, 특히 문명화가 늦은 소부족들의 노인에 대한 홀대와 소외문화를 소개하면서, 사회가 보기에 노인이란 "한낱 집행 유예 상태의 죽은 자"에 불과하며[81], "거추장스러운 무용지물"이고[82], 노쇠란 "혐오스러운 것이므로 사람들은 노인을 추방한다"고 하였다.[83] 이러한 노인에 관한 부정적 관념들은 노인의 사회적 소외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들은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끊어지게 만든다. 특히 Beauvoir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소외현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 가족은 노인을 조소 섞인 친절로 대하고, 바보 취급을 하면서 말을 걸고, 심지어 노인의 머리 위로 자기들끼리만 아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픈 말들을 슬그머니 내뱉는다. 설득과 꾀로 노인을 꺾지 못할 때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84]

---

[80] Ibid., 39.

[81] Beauvoir, *노년,*" 305.

[82] Ibid., 307.

[83] Ibid., 61.

[84] Ibid., 307.

둘째, 노인소외에 관한 여성신학적 관점은 노인의 위치에 따른 차별적인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85] 차별적인 사회적 역할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사회적 역할이나 불쾌한 여성만의 역할을 강요받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노인에게 있어 차별적인 사회적 역할이란, 역할상실의 측면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인문제는 잃어버림의 문제이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문제는 "노인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과거 속에 묻어두는 잃어버림의 문제" 라고 했다.[86] 노인은 성장하면서 습득했던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사회생활에서 갖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Cowgill & Holmes가 제시한 현대화 이론에서는 현대화의 정도와 노인의 지위는 반비례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저하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 의료기술의 발전, 경제적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 교육의 확대, 그리고 도시화 등 현대화 현상이 생산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을 퇴직시키고 노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할을 상실시킴으로써 사회, 심리적 고립을 초래하고 결국은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이동 등은 사회적 거리감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가치관과 사회화의 차이는 세대간의 고립을 만들

---

[85]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39.

[86] 박창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회의 노인복지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학위논문, 2006, 25.

어 낸다.[87]

셋째, 노인소외에 관한 여성신학적 관점은 노인에 대한 차별은 노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비인간화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88] 역대하에서는 갈대아 왕의 악함을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대하36:17)"라고 표현한다. 노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흑인신학자와 제3세계 신학자들에 의하여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는 "신은 억압된 자의 편에서 있다"는 것이다.[89] 다시 말하면, 신은 억압하는 자의 편에는 서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사회적 소외현상은 소외를 초래하는 계층에게는 '비인간화'라고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며, 신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제주영락 노인대학 노인들의 남녀 비율은 남자가 20.7%, 여자가 79.3%로서, 여성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사실상 실제 노인대학의 운영에 있어 여성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노인대학이 여성신학적 접근을 빼놓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해야 됨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3년 서울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5만8천702명 중 77.6%인 4만5천596명이 여성이었다고 보고한다.[90] 제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가장 큰 소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여성노인들이라

---

[87] 류종훈 외,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02), 35.

[88]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85.

[89] Ibid. 135.

[9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accessed June 12, 2013).

는 것을 시사해 준다.

2) 소외에 관한 실천신학적 접근

실천신학은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올바른 처방으로 재적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91] 노인의 소외적 상황은 실천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및 제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의 위상이 높았으나, 핵가족사회로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노인의 능력, 지식은 가치가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노인의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실천신학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실천신학의 많은 분야들[92]을 일일이 나열하여 접근할 수는 없지만, 실천신학은 노인의 소외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학분야일 것이다. 미국의 실천신학자 Seward Hiltner는 살아있는 인간자료(living human documents)들을 중요한 실천신학의 연

[91] 임영효,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14.

[92] 실천신학의 연구영역은 일반적으로 예배학(Liturgy), 설교학(Homiletics), 기독교교육(Christian Education), 목회학(Poimenics), 교회정치, 교회행정학(Church Government or Administration), 평신도 신학(Theology of the Laity), 전도학과 선교학(Evangelism and Missions), 목회 상담학(Pastoral Counseling), 교회 성장학(Church Growth), 찬송학(Hymnology), 영성성장학 또는 영성신학 (Spiritual Growth or Theology of Spirituality), 기독교 지도자론(Christian Leadership) 등이 있다.

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 소외 당하는 노인들은 목회에 있어 정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93] James E. Adams는 성서적 상담원리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에게 있어 소외된 노인들은 성서적 상담에 의한 성령의 역사로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94]

이 세상을 정치적인 혼돈과 붕괴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95] 실천신학의 예배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노인의 소외문제 역시 혼돈과 붕괴의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배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성서에서도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시73:16-17)"라고 하면서, 고통의 문제는 성소에 들어갈 때 곧 예배드릴 때 그 해결책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한다.

실천신학에서 노인의 소외와 같은 고난의 문제는 인내를 통한 영적 성숙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J. I. Packer는 고난은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예외 없이 기대되어야 하고, 소중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있다.[96]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15:2)" 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

[93] Ibid. 25.

[94] Ibid. 28-29.

[95] William Temple, *Readings in St. John's Gospel*, First series (London: Macmillian, 1939), 160.

[96] 임영효, *실천신학,*" 78.

맺도록 깨끗하게 전지 혹은 연단하시는 과정을 의미한다.[97] 이는 노인의 소외는 사회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극복하여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노인을 위한 실천신학적 기회인 것이다.

3) 소외에 관한 생태신학적 접근

생태신학자 James A. Nash는 『기독교 생태윤리』에서 서펜실베니아의 모노겔라 계곡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맷돌들"이라고 표현하는 제철소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치 확대된 가족공동체와 같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지역의 사람들은 제철소에서 일을 하며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지도 못하고 "더 좋은 것과 함께 쓰디쓴 것(bitter with the better)"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이는 제철소를 통해 노동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환경오염이라는 고통을 함께 떠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후에 이 제철소가 폐쇄되어 가동을 중단했음에도 생태계 파괴의 잔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98] 이 제철소의 이야기는 현시대의 문제를 주목하는 생태신학의 관점을 잘 표현해 주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현시대의 노인소외문제를 생태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오늘의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일련의 학자들은 위기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는 만큼, 그 치유책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혁된 기독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

[97] Ibid.

[98] James Nash, *기독교 생태윤리*, 이문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13-22.

주장한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계급질서가 지배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성서와 기독교에서 치유책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타종교의 범신론적, 유기체적 세계관과 고대의 다신론적 여신종교에서 해결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9] 마치 생태신학에 있어 기독교는 이 시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동시에, 오염을 일으키는 제철소로 비유되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생태학은 그런 기독교를 반대하고 다른 종교의 원리를 받아들이려는 것인데 반해, 기독교 생태신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을 일으킨 기독교를 쇄신하여 새로운 기독교를 통해 치유를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자연자원의 독점과 독점적 소비, 무절제한 사용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죄악이며, 인간의 독점적 소유는 잘못된 것이다.[100] 인간의 세계에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재화의 과도한 독점으로 인한 빈부의 과도한 차이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다. 국민의 45%가 무주택자인데, 한 사람이 집을 1,083 채나 소유하는 것도 죄악이다.[101] 생태신학적 측면에서 노인은 자연처럼 소외되는 위치에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독점적 소유에 의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역할이 약화되고 상실된 노인은 젊은 세대들의 독점적 소유욕에 의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

[99]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4.

[100] Ibid., 150.

[101] Ibid.

2. 노인과 관계단절

1) 무연사회

2006 년 일본은 '격차사회'라고 했다. 그러나, 2010 년 일본은 격차의 종착을 의미하듯 '무연사회'라고 한다. 무연사회란 인간관계가 희박해짐에 따른 사회현상으로 쉽게 말해 독신층과 은둔형 외톨이, 그 중에서도 혈연, 지연 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무연사회의 절대지분은 독신고령자에 있다. 지역사회와 가족관계의 존재모습이 급속히 변하면서 대도시 독신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은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다.[102]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살지만 아는 사람은 없는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103] 도시화와 개인화로 네트워크의 끈을 잃어버린 인구도 생각보다 많다. 날이 갈수록 가족이나 지역과의 연결고리 및 연대감이 약화되고 그러한 추세는 점점 확산중이다. 이처럼 무연사회의 배경에는 지역사회와의 희박해진 연대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104] 영성신학적 측면에서 연대감(네트워크)이 약화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연대감이 약화되는 것이고, 둘째는 수평적 관계, 즉 사람들과의 연대감이 약화되는 것이다.

---

[102] 전영수, *빈곤보고서*," 21.

[103] Ibid. 39.

[104] Ibid. 43-45.

하나님과의 연대감이 약화되는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Perry G. Downs 는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교회가 믿음의 내용을 전파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105] 실천신학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연대감의 약화는 믿음의 성장과 관련된 각 분야의 실천적 측면이 약화되는 것을 말한다.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끊어진 무연사회들이 나온다. 첫 번째 사회는,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노아시대의 세상이다. 성경은 당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창 6:2)”라고 했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단절된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다. 두 번째 사회는, 창세기 11 장에 나오는 시날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사회이다. 그들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고 하면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다. 세 번째 사회는, 창세기 19 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는 두 개의 도시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다. 신에 대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하였다.

---

[105] Perry G. Downs, *기독교 교육학개론*,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8), 44-45.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창세기의 무연사회들은 "죄가 선행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결과로서 왔다"고 할 수 있다.[106]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주된 요인이며, 그 죄의 깊이와 무게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무연사회가 생기는 것이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최악의 무연사회가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약화되면,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무연사회들도 결국 사람들 서로간의 연대에도 문제가 생겼다. 바벨탑을 쌓던 무연사회는 처음에는 서로 흩어지기를 면하자고 하면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그 견고해 보이던 연대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다(창 11:8).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는 롯을 방문한 손님들을 끌어내어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할 만큼, 인권이 노골적으로 유린되는 죄악의 도시였다.

Hans Küng에게 있어서 무연사회는 전통적인 유대교 공동체로 지칭되는 '옛 이스라엘'로 이해될 수 있다.[107]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파, 사두개인, 젤롯파, 엣세네파 등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이다. 예수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12:39)"라고 비판 받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

---

[106] 박석규, "바울의 신학사상에 관한 고찰," *교육목회* 통권 제17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65.

[107] 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1), 146.

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마12:34)”라고 책망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예수 제자 공동체를 거부했고 시험했으며 학대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으로 모자라 그의 제자들을 죽이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꾼이 되었다. 결국 이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참혹한 심판을 겪게 되었다.

노인소외문제의 일차적인 심각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무연화에 있다. 노년이 되어 모든 사역에서 은퇴하면 교회 안에서도 빠른 속도로 연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교회의 일선 사역에서 물러나 ‘뒷방늙은이’로 전락하게 된다. 수십 년간 해오던 교회학교 교사의 일, 찬양대 봉사, 구역임원, 제직의 직무 등에서 물러나게 되어 사실상 남아 있는 사역이 거의 없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은 결국 그 동안 맺고 있던 연이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은퇴 이후의 노인들에게 교회는 또 다른 무연사회의 출현이 되는 셈이다.

무연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반영하는 말 가운데 '소재불명의 고령인구'가 있다. 이것은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집을 나간 채 행방불명된 경우와 사망한 뒤 장기간 방치되고 은닉된 고령자로 구분된다. 홋카이도 아사히가와시에서는 일본 최초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의 소재확인 전수조사가 펼쳐졌다. 그 결과 537명 중 37명은 장기 행방불명이거나 혹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라지는 등 최종적인 소재불명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연간 3만2천명의 고독사가 보고 된다. 물론 독신이라도 최소한의 가족이나 친척은 엄연히 있다. 다만 관계가 멀어졌을 뿐이다. 주변에선 혈연인 누구누구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담담히 말하는 사례가 흔하다.[108] 한국도 고령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 증가, 결혼회피 현상 등이 증가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무연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인대학을 통해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독거노인들이 노인대학을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약해진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42.6%), '프로그램이 좋아서'(23.3%), '신앙을 위해서'(21.4%),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7.0%), '기타'(5.7%)라고 응답하여 노인들의 최대 관심이 사람들과의 연대 강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세대간 충돌

Hans Küng 은 '옛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전통적인 유대교와 '새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과 충돌을 설명했다.[109] 그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 갈등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루살렘문제이다. 초대교회는 순수한 유대-기독교 공동체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등장하여 점

---

[108] 전영수, *빈곤보고서*," 21-22.

[109] Küng, *교회*," 146.

차 유대 기독교는 변두리로 밀려나갔고, 이방인 기독교가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은 유대 전쟁(66-70 년)을 통해 완결되었고,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었다.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유대교는 자신의 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상실해 버렸다.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반자로 박해 받으면서 요르단 동쪽 지방으로 도망가 시리아의 변방에서 기독교 신앙을 확산시켰다.[110]

둘째, 예수 신앙 문제이다. 예수 제자 공동체는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그의 베푸신 기적들과 복음의 말씀들을 통하여 세워진 공동체로서, 그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사건은 예수를 '메시야 또는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갖게 하였다.[111] 그러나, 전통 유대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만든 장본인이며, 기독교 신앙을 이단으로 여겼다.

셋째, 율법문제이다. 율법문제의 발생은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기독교인들의 선교로 인해 생긴 이방인교회의 출현 때문이다. 바울과 바나바의 극진한 노력덕분에 '사도회의'에서 원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갈 2:1-10, 행 15:21, 25). 이러한 이방인 공동체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모세의 율법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약성서에는 충실했지만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다.[112]

---

110 Ibid., 151.

111 Ibid., 145.

112 Ibid., 148-49.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갈등은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0년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1965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세대'와 그 이후 197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버스트세대(일명X세대)' [113]간 전쟁"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114] 두 세대간 전쟁은 개혁에 실패한 연금에서 비롯되는데, 베이비붐세대는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 후세대들의 연금부담을 늘려서라도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으려 하고, 베이비버스트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부담에 불만을 품고 윗세대에 대항하게 된다.[115]

1990년대 초 이후 고령화, 소자화와 긴 경기침체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세대간 대립양상이 감지되었다. 이른바 신인류로 불리는 젊은 계층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단카이세대를 날려버리자며 결사항전의 투지를 불살랐다. 신인류계층은 윗세대가 잘못해 일본 경제가 고생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관리직 중추를 맡고 있는 단카이세대를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6]

교회 안에서의 신구간의 충돌 역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증가하는 고령세대는 고령자를 위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감소하는 젊은 세대는 그것들을 충족시킬 능력을 잃고 버거워 한다. 고령세대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

---

[113]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세대.

[114] 박동석 & 김대환 & 이연선,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3), 24.

[115] Ibid.

[116] Ibid., 26.

려고 하고 젊은 세대는 빨리 물러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노인대학이 단지 노인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갈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사회는 특수한 소외적 상황이 연출되는 현장이다. 제주에서는 노년이 되면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 의식 때문에, 자녀들과 분가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자녀들과 독립하여 살아가는 노부부가 많다. 제주의 문화적 현상 속에서는 노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소외적 상황을 초래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적 요소는 부모부양의 의무도 약화시켜 홀로 사는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 이유로 제주는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병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직접적인 도움을 줄 손길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로는 홀로 병들어 사망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복지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정부예산이 필요하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복지예산의 증가가 따라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3) 은퇴에 관한 종말론적 관점

성서적인 은퇴는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선 종말론적 관

점에서 은퇴를 이해하는 것이 옳다. 박수암은 로마서의 종말론을 설명하면서, 종말론적 자유의 실현을 강조한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한다(롬1:17). 종말론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할 뿐 아니라 미래적 심판과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해 율법과 죄와 사망의 세력들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종말론적인 소망과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는 더 이상 정죄 받지 않으며, 육신의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이다.[117] 이처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은퇴는 영적인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퇴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임박한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다. Conzelmamm은 임박한 종말론적 경향이 누가복음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모호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누가복음 4:18-19에서 누가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118] 그러나, 누가복음 곳곳에 종말의 임박성을 경고하는 많은 구절들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견해는 여지없이 반박 당한다. 누가는 "장차 올 진노(눅3:7)",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눅3:9)", "손에 키를 들고(눅3:17)"하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눅21:32)", "여기 서 있는 사

[117] 박수암, *신약연구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279.

[118] 최철호, *누가복음의 종말론 연구* (경기 군포: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2.

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눅9:27)"라고 하면서, 임박한 종말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종말론은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의 이중적 구조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이 말씀은 미래나 현재나 부활 생명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아무나 그를 믿는 자는 육신이 비록 죽었다 하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든지 그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현재의 영적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는 언제나 불멸의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시간이 왔음을 말하고 나서 예수는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8-29)"고 말씀한다. 여기에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현재의 생명을 향유하는 자는 미래에 있어서도 육체적 부활로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다. 은퇴 역시 이러한 이중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겪는 은퇴라는 측면에서 실현된 것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곧 다가올 미래라는 점에서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4:7-8)"고 했다. 바울신학에게 있어 은퇴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바울은 은퇴의 시점을 사람의 연령에 관련된 어떤 시기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 주신 청지기 사명을 완수했는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은퇴는 마지막 때 청지기 사명을 다한 성도가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시점인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일곱 마디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요 19:30)"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사역의 완성을 말한다. 은퇴는 사역의 완성의 시점이다.

3. 소통

1) 의미 있는 타자

Simond de Beauvoir는 『노년』이라는 책에서 "노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했으며,[119] "노년이 우리의 이전 삶의 하찮고 우스꽝스러운 모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목표들을 계속하여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120] 노년에는 젊을 때 가졌던 삶의 의미와 목표가 점차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보부아르는 『제2의 성 The Second Sex』에서 여성 개념을 '타자'로서 표현했는데, 이는 헤겔의 '자아(self)

---

119 Beauvoir, *노년*," 679.

120 Ibid., 757.

– 타자(other)'의 변증법적 개념과 사르트르의 '타자' 개념을 수용하여, 타자로서의 여자의 개념을 형성한 것이다.[121]

2002년 출판된 『성공적인 노화 Aging Well』에서 George E. Vaillant는 그랜트(Grant) 연구의 피험자들의 삶에서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된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다.[122] 그랜트 연구의 연구보고서에서 Vaillant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인생은 고립된 위기적 사건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지속적인 관계의 질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교육에 있어 프로그램담당자는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취미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보다 교사와 교육대상자들간에, 교육대상자들 상호간에 '의미 있는 타자'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취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된다. 관계에는 부부, 확장된 가족, 어른이 된 자녀, 손자, 이웃, 그리고 일터, 지역사회,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그룹에서의 우정 등을 포함할 수 있다.[123]

---

[121] Simond de Beauvoir, *제2의 성*, 이희영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09), 52.

[122] "성공적인 노화"는 하버드 대학의 종단적 성인발달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인간발달연구소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이 연구는 1920년대에 태어나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자란 하버드 대학 졸업생(268명)과 사회와 가정 어떤 곳에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1930년대에 출생한 보스턴 이너시티 빈민(456명) 그리고 1910년대에 태어난 천재 여성(90명)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세 연구 모두 각기 다른 연구지만 하버드 대학의 성인발달연구소에서 통합하여 연구를 완결하였고, 그 책임을 저자인 Vaillant가 맡았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집단의 사람들의 발달과 생애를 60년에서부터 길게는 80년 이상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23]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71.

본 논문은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으로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미 있는 타자’는 ‘사랑의 관계’를 말한다. Ron Kincaid 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매력적이 되게 해 준다. 사랑하는 교회는 따스함과 전염성 있는 사랑을 발산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그에 매혹된다. 사랑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왜냐하면 방문자들이 매혹을 당하고, 구성원들이 결코 떠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124] 둘째, ‘의미 있는 타자’는 ‘영성 지도의 관계’를 말한다. Kenneth Leech 는 영성 지도는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정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125]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제자도와 은혜의 삶에 있어서 성장을 하게 된다. 셋째, ‘의미 있는 타자’는 축복의 관계를 말한다. 야곱은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창 49:1)” 고 하였다. 이런 말로 그는 열두 아들의 이름을 각기 호명하여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126]

노인대학에서 의미 있는 타자의 가장 좋은 해법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친구야말로 홀로 살아갈 노후를 만끽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다. 친구확

---

[124] Ron Kincaid, *제자삼는 교회*,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103.

[125] Kenneth Leech, *영성과 목회*, 최승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60.

[126] 정석기, *샘솟는 초원* (서울: 쿰란출판사, 2002), 182.

는 은퇴 이후를 살아갈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친구가 많고 모임참가에 적극적 수록 건강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설사 노환이라도 치유가 빠르거나 혹 진행을 지체시킬 수 있다.[127]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성공적인 은퇴

성공적인 은퇴의 삶은 영적 성숙의 삶이다. Kenneth Leech는 영성의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삶을 개선시키는 분"이라고 했다.[128] 누가복음에는 아셀 지파 안나라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적어도 100세가 넘는 여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눅2:36-37). 전설에 의하면, 그녀는 105세쯤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생활을 했다는 것은 초인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기도는 수월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기도를 중노동이라고도 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팔목이 살이 빠져 앙상히 마른 모습을 보기도 한다. 이처럼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히 마르기 마련이다. 거기에 그녀는 금식으로 그 이상의 기도를 했다고 하니, 그녀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근면성은 대단하다. 이렇게 그녀는 노인의 나이도 무릎 쓰고 기도에 힘써 하나님께 신령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소원했던 아기 예수를 만나는

---

[127] 전영수, *빈곤보고서*," 121.

[128] Leech, *영성과 목회*," 10-11.

영광을 얻었다.[129] 그녀의 나이는 상식적으로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의 삶은 육체적인 노화나 은퇴를 초월하는 신앙적 삶이었다. 기도의 신앙적 삶은 은퇴를 초월하여 그녀를 성숙시키는 힘을 가졌다.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성숙으로 번역되는 단어인 '텔레이오스(*teleios*: 골 2:6, 빌3:15)'는 진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바울은 성숙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무르익은 자들'이라고 주장한다(고전2:6).[130] 바울신학의 측면에서 보면, 은퇴자는 곧 무르익은 자이며, 은퇴자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사랑 안에서 그 몸의 성장과 일치하는 성숙한 인간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엡4:13, 16). 안나처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131]

또한 그는 영성 성숙을 위해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는 씨름하기(wrestling), 숙고하기(brooding), 제초하기(weeding) 등이다.[132] 첫째, '씨름하기'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로부터 얻은 이미지로서, 씨름 대상자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상처를 입는 과정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모습이다. 이는 성서의 진리가 오늘날의 현실들과 토론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말씀과의 싸움

---

[129] 정석기, *샘솟는 초원*," 91.

[130] Leech, *영성과 목회*," 17.

[131] Ibid.

[132] Ibid., 20.

이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의 삶들 안에 있는 주제들과의 싸움이다. 이 같은 씨름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시대의 목소리들을 함께 부여잡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것이다.[133] 둘째, '숙고하기'는 끊임없이 숙고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메레테 (*melete*)에서 나온 것으로 초기 이집트 수도원 생활에 기원을 두고 있다. 파코미우스(*Pachomius*)의 수도사들은 성경을 마음으로 배웠다. 오늘날 성서연구는 지나치게 학문적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묵상의 접근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도의 형태로 말씀을 숙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다.[134] 셋째, '제초하기'는 성서의 의미가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 채색되고 왜곡되어 왔다는 가정을 가지고 접근하여, 말씀의 왜곡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 앞에 노출시켜 정밀하게 조사하는 분별의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뒤덮고 있었던 문화의 짐꾸러미들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해방시키는 데 본질적인 것이며, 기도, 비판적 성찰, 협동적 토론을 포함하는 정화의 과정을 요구한다.[135]

성공적인 은퇴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다. Kenneth Leech 는 "참되고 궁극적인 영혼의 인도자는 성령"이라고 하며,[136] 시편은 시간의 진솔한

---

133 Ibid., 20-21.

134 Ibid., 21-22.

135 Ibid., 22.

136 Ibid., 62.

의미를 밝히며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시31:15)"라고 한다. 즉 영혼의 인도자인 성령께 사람의 시간을 맡기는 것이다. 시간은 주님이 관장하시는 것이며 그 중의 얼마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은퇴란 인생의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 후의 시간은 여가가 아니라 다른 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이다.[137]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영도자였던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 라고 하면서 노년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아는 지혜를 구하였다.

Kenneth Leech는 영성 지도와 목회상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영성 지도는 계속 진행 중이고 성장중인 영적 삶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목회상담은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Robert Lambourne의 말을 인용해 목회상담과 사회복지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목회 모델의 한계에 대하여 "목회상담은 전문적인 문제해결과 정신쇠약의 예방으로부터 도출되어진 실천과 개념의 틀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하면서 "목회신학은 어떤 것에 집착해 있는 협소한 신학이 되어 버렸다"고 서술하였다.[138] 노인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은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상담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성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

[137] 정석기, *샘솟는 초원*," 149.

[138] Leech, *영성과 목회*," 71-72.

세상에서는 활발하게 노인들의 은퇴를 위한 전략기관들을 가동시키고 있다. 2012년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은퇴전략연구소(NRSI)는 국가와 기업, 개인들의 고령화 대비 전략을 취재, 연구하고,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1965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개인들의 은퇴준비전략을 집중 탐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퇴전략연구소는 고령화, 은퇴설계 관련 연구기관들과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은퇴준비전략 관련 취재, 연구물은 한 차원 높은 멀티미디어로 제작하고, 전문기관들과 공동으로 공동기회, 연구작업을 하며,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도 운용한다.[139]

그러나, 노인들의 은퇴를 위한 교회의 준비상황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은퇴하는 노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 곧 노인의 영적인 재무장은 교회의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교회의 노인대학이 세상의 다른 노인대학들과 다른 차별성은 바로 영성의 훈련에 있다. 잘 준비된 노인대학은 은퇴한 노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영성 훈련의 장이 될 것이다.

3) 소통의 공동체

스위스 바젤대학의 실천신학 교수로 Eduard Thurneysen 은 『목회학원론』에서 목회의 전반적인 기능은 인간을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도구를 "대화"라고 언급하고 있다.[140] 소통의 가장 기본 단위는

---

[139] 토마토뉴스, www.newstomato.com (accessed August 17, 2013).

[140] 정성구, *칼빈주의와 실천신학* (서울: 한빛기획, 2005), 310.

바로 ‘대화’이다. 소통의 문제는 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 소통의 모델: 크리스타 공동체

여성신학자 Rita Brock 은 크리스타 공동체(Christa Community)로서의 기독론을 제안한다. 크리스타는 여성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이다. 브락은 전통적인 ‘그리스도’라는 무관계성, 영웅성의 이미지를 변혁하기 위한 메타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크리스타 곧 ‘크리스타 공동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여기에는 예수가 실현하고자 했던 진정한 관계의 공동체인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자들, 이방인들, 가난한 이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크리스타는 소외된 자들과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Brock 은 예수를 크리스타 공동체에서 관계와 상처, 무의미성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이해한다. 크리스타 공동체는 인간 치유와 통전적 회복의 장소이다.[141]

결국 은퇴 후 노인의 소외문제는 대화와 소통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노인의 소외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리타 브락의 ‘크리스타 공동체’는 세대간의 소통을 위해 노인대학이 지향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141]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33.

(2) 성령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성서에서 성도간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그들은 성령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연합과 소유를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14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행 4:32-35)". 그들은 서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였으며, '가난한 사람' 즉 더 넓은 의미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2 장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공감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공감하게 하는 통로가 성령이며, 사람과 공감하게 하는 통로가 성령이라는 의미이다.

(3) 말씀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라는 말씀은 소통의 황금율(Golden Rule)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의 산상설교에서 그 핵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되는 공동체였다. "이에 왕이 여호

[142] 임영효, *실천신학,*" 59.

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왕하23:2-3).”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공동체였다.

에스겔 37:1-10의 예에서 보면 ,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소망의 메시지다”이다. 또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는 사회는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사회로 회복될 것”이다.[143]

(4) 사랑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임영효는 Homer A. Kent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에베소서 3:17-19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이루어 나갈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

[143] 강한옥,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이 필요한 시대,” *총회논단* 175호 (June 2012), 121.

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144] 그는 계속해서 성도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교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서로 세워주는 일(build each other up: 살전5:11), 서로 기도하는 일(pray for one another: 롬15:31, 고후 1:11), 짐을 서로 지는 일(bear one another's burdens: 갈5:21), 서로 복종하는 일(submit to one another: 엡5:21), 서로 대접하는 일(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벧전4:9), 서로 섬기는 일(serve one another: 갈5:13), 서로 위로하는 일(comfort one another: 살전4:18), 서로 용서하는 일(forgive one another: 골3:13), 서로 권하는 일(admonish one another: 롬15:14), 서로 가르치는 일(teach one another: 골3:16), 서로 격려하는 일(encourage one another: 히3:13), 서로 사랑하는 일(love one another: 벧전1:22).”[145]

자연과 인간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요일 4:8, 16)”이라는 기독교의 대명제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의 본질은 관계와 나눔에 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기에 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자는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와 다른 자, 곧 파트너와 함께 있으며 친교를 원한다. 그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146]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

[144] 임영효, *실천신학,*” 62.

[145] Ibid., 67.

[146] 김균진, *기독교 신학의 이해,*” 159.

(5) 찬양으로 소통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특징들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찬양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147] 찬양곡마다 사연이 다를 뿐 아니라 같은 곡을 언제 부르느냐에 따라 깊이가 다르며 같은 곳이라도 누구와 함께 부르냐에 따라 그 뜨거움이 다르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같은 찬양곡이라도 다른 절절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음의 수평적인 나열인 선율(melody)과 음의 수직적인 배치인 화음(harmony)과 음의 시간적인 진행인 리듬(rhythm)의 다양한 조합과 적절한 가사, 정확한 발음, 제시된 템포와 다이내믹, 프레이징, 형식, 그리고 작곡자의 내면 등, 악보에 담긴 이런 음악재료를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진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대학이 사람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82.0%, '보통이다'는 19.3%,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0.7%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노인대학이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 큰 역할을 하며, 노년기 소외된 노인들에게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

[147] 임영효, *실천신학,"* 76.

<노인대학에 대한 사람과의 소통 정도>

종교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140	67	48	24	0	1
비율	100	47.8	34.2	19.3	0	0.7

본 노인대학은 이러한 신학적 근거에 의하여 노인들을 위한 소통의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신앙적인 소통의 방법들을 연구하여 노인대학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소외의 해결

(1) 목회적 노력: 목회상담적 접근

김지철 교수는 “예수의 치유목표는 치유 받은 자가 다시 자기 삶의 일상성에로 되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육체가 치유되고 정신이 온전해 지므로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가 버림 받은 가정으로 돌아가 그 동안 박탈당한 종교적인 특권을 다시 회복하며, 고통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평안의 자리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48] 예수의 치유는 소외되고 억압된 현실로부터 해방되어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사역인 것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의 소외의 현실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

[148] 김지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치유사역,” http://blog.daum.net/bible386/389 (accessed September 5, 2012)., 이 article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김지철의 학술논문이다.

었다. 복음서의 소외된 자들과 만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노인의 삶은 고독과 소외 및 질병의 문제 속에서 수많은 심리적 불안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접근이 필수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Naomi Goldenberg 는 현대 여성신학의 바탕은 심리학이라고 주장했다.[149] 소외문제를 다루는 여성신학과 마찬가지로, 현대 노인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심리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역은 흔히 실천신학의 한 분야인 목회심리 또는 목회상담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회상담의 영역은 많은 신학대학에서도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 상담학으로 분류하여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의 목회현장에서는 심방이 여전히 중요한 목회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학적 접근은 목회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신학인 것이다. 노인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목회상담적 접근 즉 "신학의 전통적인 주제와 심리학적 통찰을 연관"시키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150] Rita Brock 은 "정신분석학[151]에 관심을 가진 목회상담"이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

---

[149]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14.

[150] Ibid., 15.

[151]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심리학의 한 갈래로, 인간의 행동양식을 내적인 욕구의 충돌 및 조화의 표출로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내적 욕구와 외부의 사회적 요구가 조화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욕구는 프로이트는 성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모든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노인신학의 논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목회상담의 방법이다.[152] J. E. Adams 는 성령이 상담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령은 믿는 자의 성화를 포함한 모든 참된 인간성(personality)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라고 하였다.[153]

(2) 사회적, 제도적 노력

노인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면, 그것이 인간의 목소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154] 사회구성원들이 노인을 인간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연대부활이 관건"이다.[155] 고독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성직자, 가정봉사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정서적 지지를 해 줄 정서적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형성이 필요하다.[156]

일본은 노인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핵가족화의 부작용을 막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가족의 재구성 붐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시도하였다.[157] 이는 무연사회를 유연사회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들이 "고

---

[152] Ibid., 36.

[153] 임영효, *실천신학,"* 28-29.

[154] Beauvoir, *노년,"* 9.

[155] 전영수, *빈곤보고서,"* 57.

[156]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380.

[157] 전영수, *빈곤보고서,"* 20.

립생활에 빠지기 전에 주민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무연적인 주거환경을 유연적인 생활공동체로 바꾸려는 노력 곧 공유주거, 집합하우스 등 새로운 주거형태가 그렇다”.[158] 일본에서는 함께 사는 집합공간의 실현으로서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159]와 ‘쉐어하우스(Share House)’[160]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붕괴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회복하려는 작은 몸짓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개별세대가 어울려 사는 ‘컬렉티브하우스’는 함께 사는 “은퇴한 고령세대는 부모가 외출하면 이들이 공용면적에서 애들을 봐줄 수 있고, 여성 단독가구라면 안전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으며, 여럿이 거주하기에 보호받는다는 안심을 얻을 수 있고, 맞벌이부부는 공용거실에서의 식사가 큰 도움이 되며, 실제 컬렉티브 하우스엔 세대를 뛰어넘는 입주민끼리의 활발한 교류가 있다.[161]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먼저 고령사회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사회의 대책을 밴치마킹함으로 한국의 노인문제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세대공동체 교육

---

[158] Ibid., 56.

[159] 개별 전용공간에 화장실, 부엌 등의 공유공간이 함께 배치된 형태다. 업자로서는 각각의 공유공간을 하나로 묶어 건축비를 절감하고, 이를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160] 개인독방 이외에 거실, 부엌, 목욕탕,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비용절감적인 형태.

[161] Ibid., 61.

(1) 세대공동체 교육의 정의

세대공동체란 McClusky(1990)가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으로서,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세대들은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 면에서는 다르다 해도, 전체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며, 오히려 서로간의 세대차이로 인하여 인생 전체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세대공동체 교육은 여러 세대 혹은 여러 연령집단들이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해 나가는 것으로, 이 때 세대공동체 속에서 각 세대는 자신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162]

(2) 세대공동체의 신학적 접근: 예수 제자공동체

기독교적인 세대공동체 교육의 모델은 '예수의 제자공동체'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교육받는 공동체이며 모든 세대가 하나의 신앙아래에서 교육받는 하나된 교회를 말한다. Hans Küng은 예수의 제자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에클레시아'라고 하여 하나님의 옛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고 말한다. 한스 큉은 '하나님의 백성' 개념을 강조하는데, 신약성서는 '라오스(laos)'[163]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

---

[162] 한정란, *교육노년학*," 221-22.

[163]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본디 이 말은 헬라사회에서

동체, 제자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한다고 말한다.[164]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참된 이스라엘뿐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토대는 부활하신 분에 대한 인격적 경험 속에 근거된 신앙,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인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었다.[165] Hans Küng은 "새 이스라엘은 옛 이스라엘과 거의 다르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옛 이스라엘과 이미 구분되어 있었다"고 말한다.[166] 세대공동체는 외적으로 달라진 공동체가 아니다.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는 이미 과거에도 계속되어 온 공동체로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외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세대공동체는 내적으로 세대 간에 영적인 관계가 달라진 공동체를 말한다. 이런 공동체는 "옛 이스라엘 가운데 현실"이 된 새 예루살렘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167] 옛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른, 초대교회 예수 제자 공동체의 독특한 형태들은 기독교적 세대공동체의 특징들로 이

도시국가의 시민들을 지칭하던 행정용어인데, 나중에 통치자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단순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164] Küng, *교회*, 162-63., 특히 큉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혁명적이라고 평가한다.

[165] Ibid., 145.

[166] Ibid., 146.

[167] Ibid.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첫째, 세례이다. 하나님의 지배를 지향하는 회개와 정화의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 세례는 처음부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교식으로 간주되었다. 세례는 이미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을 유대 민족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168]

둘째, 공동의 기도예배이다. 공동체의 예배는 기도 예배였다. 때로는 개인의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기도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이 암송되었고, 성서가 해석되었으며, 예수의 말씀이 상고되고, 예수의 생애가 구약성서의 빛에서 조명되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을 다른 유대인들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부활하신 분을 '우리 주님'으로 부르는 행위는 새로운 경배 대상을 가진 새로운 제의 공동체를 탄생시켰다.[169]

셋째, 공동체의 종말론적 공동 만찬이다. 공동 만찬은 예수와의 공동 식사 및 마지막 만찬과의 연관성 속에서 거행되었다. 즉, 이 만찬은 회상과 기대 속에서 거행된 즐거운 만찬이었으며, 종말론적인 환호 속에서 빵을 떼곤 하였다. 예수의 마지막 만찬과 의도적으로 연관된 공동 만찬 또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믿지 않는 유대 백성 전체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지시해 준다.[170]

---

[168] Ibid.

[169] Ibid.

[170] Ibid., 147.

넷째, 독자적인 공동체 지도체계이다. 12지파의 종말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사도들은 공동체의 동조 하에 공동체 지도를 책임졌다. 베드로는 12사도들 가운데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곧 세베대의 요한과 주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와 함께 결정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교회의 세 기둥으로 불렀다(참조: 갈1:18이하, 2:9). 또한 이미 초기 단계부터 열두 제자 외에 장로들이 존재했다.[171]

다섯째,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코이노니아는 각 지체들을 형제들의 삶의 공동체로 결속시켰다. 이 공동체는 노소에 상관없이 상호적인 봉사와 공동의 고난, 그리고 때로는 공동의 소유를 통해 자신의 참됨을 입증했다.[172]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특징들은 전통적인 유대의 무연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백성, 즉 그리스도를 통한 유연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예수가 하나님의 새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무관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173]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의 혈연 관계와 구분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었다.

---

[171] Ibid.

[172] Ibid., 148.

[173] Ibid., 149.

III. 노인의 성서적 치유에 관한 연구

1. 노인의 질병

1) 노화로 인한 질병

성서에는 많은 노인들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 모두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죽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노년의 삶을 살았다. 모세의 시편에 의하면 "사람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시 90:10)"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세를 비롯한 성서의 주요인물들은 매우 장수한 노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장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겪어야 할 노화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육체의 노쇠함에 대해 허리가 굽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안 들리고 기력이 쇠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한 "늙음의 실상"을 자세히 표현한다.[174] 전도서는 인간의 모든 불행 중에 노년의 불행을 강조하며, 전도서의 저자는 노년이 되어 다가오는 인생의 종말 앞에서 모든 젊을 때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들이 "헛되다(전 1:2-3)"고 말한다. 유대인 주석 학자 Maurice Jastrow는 다음과 같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년에 대

[174] 현길언, *솔로몬의 지혜* (경기 파주: 조이웍스, 2010), 270.

해 해석하고 있다.

> 네 젊은 나날 동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후에는 고약한 날들이 다가오고 한 해 한 해가 더욱 가까워오리니, 그때 너는 말하리라. 사는 게 조금도 즐겁지 않다고, 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가 온 후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리니 - 시력의 감퇴, 지적 능력의 소진 - 그 때는 집 지키는 파수꾼들 - 두 팔 - 이 벌벌 떨고, 힘센 남자들 - 두 다리 - 의 허리가 굽고, 가루 빻는 여자들 - 치아 - 은 숫자가 줄어들어 일을 멈추고,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들 - 두 눈 - 은 시력을 빼앗기고, 거리고 난 두 문짝은 닫혀버리고 - 소화 장애, 배뇨 장애 - 맷돌 소리가 점점 약해지며 - 맥박의 약해짐 - 새의 소리로 일어나며 - 불면증 -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지며 - 성대의 노화 -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 올라갈 때 숨참 - 길에서는 끔찍한 공포를 느끼고, 편도나무가 꽃을 피우고 - 백발 - 메뚜기의 움직임이 육중해지며 -생식력 감퇴 - 또는 은 줄이 풀어지고 - 척추의 만곡 - 황금 화병이 부서지고, 항아리가 샘물 위에서 깨지고, 웅덩이 위에서 바퀴가 부서져 버릴 것이다 - 간과 신장 기능 부족.[175]

시편 90편은 사람의 연수가 한계가 있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대하여 사람의 인생을 풀에 비유하여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시90:6)” 라고 하면서 노년에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표현한다. 시편 71편의 저자는 노화로 인해 연약해진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시71:9)” 라고 간구한다. 노화는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인생에서 자신의 위치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다윗왕도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왕상1:1)” 고 하면서 신체의 저항력을 잃어버린 힘없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175] Beauvoir, *노년,*” 129., 모리스 자스트로는 전도서 12:3-5 을 노년의 쇠퇴와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노화로 인해 시력을 상실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온다. 성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그의 노화현상을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이삭은 자신의 노화를 이용해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복을 가로채는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노화로 인한 시력상실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이다. 성경에는 시력을 잃는 이 사건을 가리켜 하나의 노화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화 현상 속에서 쉽게 찾아오는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제사장 또한 나이가 많아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는 98세가 되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한다(삼상4:15). 그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에 전쟁터로부터 패전의 소식과 아들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일을 듣고,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사망했다. 노년의 약화된 몸은 작은 충격에도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시에는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에게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집안에서조차 넘어져 골절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듯 나이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은 시력뿐 아니라, 모든 육체가 저항력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밖에 없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제주영락교회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살펴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특히 대학 4개반과 대학원(대학졸업 후 평생교육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6개반 가운데, 대학원 1개반(약 20명) 노인

들은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지팡이나 보행보조수단을 사용하며, 그 외에도 전체 80%이상의 노인들이 여러 가지 성인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노인들 중에는 “만성질환 노인(85.9%)과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노인(58.6%)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76]

2) 질병으로 인한 삶의 문제

질병은 한 인간의 종교적이며 사회적 자리까지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세력이며 반종교적이며 반가정적이고, 또한 반사회적인 특징을 지녔다. 질병이 개인적인 종교, 가정,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근본적인 삶의 질적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무엘하의 다윗은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화가 가져온 질병으로 인해 삶이 질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윗에게 발생한 오한의 증상은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는 몸의 장치가 노화로 인해 고장이 생겨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노인들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면역력이 약화되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감기를 비롯한 다른 질병에 걸리기 쉽고, 한번 걸리면 심하게 앓는 현상이 발생한다. 심지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경우, 감기로 시작하였지만 폐렴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서에서 다윗의 사망원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

[176] 류종훈, *이론과 실제,*” 234.

노화로 인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증세로 보건대,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 같은 합병증의 발생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노화로 인해 시력이 약화되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조차 구별할 수 없는 삶의 질이 현격히 낮아진 삶을 살았다. 두 아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 되어 장자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차자에게 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육적인 쇠퇴는 시력뿐만이 아니다. 청력, 미각능력, 후각능력, 근력, 소화능력, 호흡능력, 재생능력, 운동능력, 지적 능력, 면역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쇠퇴가 발생한다. 이러한 쇠퇴는 노인으로 하여금 건강상에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노인에게 있어 질병의 위기는 "세상에 던져진 갈 상자 속의 모세와 같은 것으로, 세상의 탁류에 떠내려가는 상태"에서 그저 울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릴 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177] 나일강을 떠내려가면서 점차 망망대해라는 인생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이 노년의 삶이다. 기원전 2500년경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Ptah-hotep은 "노인의 종말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노인은 매일매일 기력이 쇠진해진다. 시력은 약해지고 귀는 들리지 않게 된다. 힘은 쇠퇴하고 심장은 이제 쉴 틈이 없다. 입은 날로 침묵을 지켜 말을 하지 않는다. 지적인 능력도 감소되어 어제의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한다. 뼈마디가 모두 아프고

---

[177] 강성두, *출애굽기 강해: 구원과 해방* (서울: 쿰란출판사, 1994), 17-18.

예전에는 즐겁게 열중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겨울 수밖에 없으며, 맛을 느끼는 감각도 사라진다. 노년은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최악의 것이다. 코는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노인의 삶을 어둡게 묘사했다.[178]

애굽에 의해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며 바로에 의해 고역을 당했다. 그들의 학대는 더욱 심해져 갔고, 400 년이 넘도록 그 끝은 보이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해 삶이 질적으로 저하된 노인의 삶은 마치 애굽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학대의 삶이며, 죽어야 끝이 나는 고통의 세월이다.

2. 질병과 스트레스

1) 질병치유의 성서적 이해

질병의 문제를 성서적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먼저 야곱과 바울의 예를 들 수 있다.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린 일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픔을 준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픔을 통하여 번성하고 창성하도록 한 것이다.[179] 이는 가시의 아픔을 괴로워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

[178] Beauvoir, *노년,*" 125.

[179] 강성두, *출애굽기 강해,*" 11.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12:9)” 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수에게 병자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이해된다. 이는 한 개인의 삶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결핍을 떨쳐 버리고 회복되어, 사회적인 갱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전인격적인 치유에 이르는 것이다.[180]

구약성서에서 질병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보통 아무런 이유 없이 올 수 있고(욥2:3),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올 수 있고, 죄 때문에 올 수 있고(욥4:7-8, 5:8), 하나님의 교육수단일 수도 있고(욥5:17-18, 36:15, 시119:71, 잠3:11-12), 일시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창22:1-24, 욥1:8, 2:3, 약1:12), 대리적인 속죄의 수단일 수도 있다고 한다(출32:32, 시106:21, 23, 사40:2, 53:4-5, 대하36:21, 요1:29, 벧전3:18). 질병이 오는 이유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은 깊은 영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위에서 제시한 6가지 이유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를 제외하고 모든 이유가 전부 영적인 관계성이 있는 이유들이다. 그러므로 질병치유에 대한 성서적인 접근은 육적인 해결보다는 영적인 해결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과 달리 병의 치료를 위해 주문이나 마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에 따라 질병의 근원과 치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 치료 사건이 대체로 기도를 동반하며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선지자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180] 차정식 외, *신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18.

구약성서의 질병치유는 세 가지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질병치유는 영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와 관련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질병과 치료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21-22절, 27-28절에 길게 나열된 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미침, 눈멂, 정신병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지 않고 그 분을 잊을 경우 받게 되는 징벌에 속한다. 반면에 출애굽기 15:2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신다고 말씀한다.

둘째, 질병치유는 이스라엘 곧 믿음의 공동체의 치유와 관련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찜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렘15:18)”;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찜인고(렘8:21-22)”. 그러나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렘14:20) 하나님께 구원의 치료를 간구한다(렘17: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은 이 밖에도 구약성서에 여러 번 반복하여 언급된다(사20:26, 렘20:17, 33:6, 호6:1). 하나님의 치료에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 즉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이키시는 일이 동반된다(사57:17-19, 렘3:22, 호14:4, 대하7:14).

셋째, 질병치유는 노예생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과 관련된다. 인간이 질병에 억눌려 있는 상태를 성서적으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며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애굽의 바로는 죄악의 권세, 우상의 상징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질병과 같은 존재이다. 이스라엘을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질병이다. 그러므로 질병치유의 문제는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과 자유는 “샬롬과 연관된 표현이며 억압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 그야말로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가치를 누림으로 얻을 수 있는 삶”을 말한다.[181]

질병치유의 영적 관계성에 대해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질병치유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질병치유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 속에서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해소 과정이다. 질병이란 인간을 죽음에로 몰고 가며 억압하는 사탄적인 세력이다. 이 세력은 하나님과의 창조적인 샬롬을 파괴하며, 인간에게서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박탈하는 반신적인 인격으로 등장한다. 질병은 한 인간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어야 할 가정 안에서의 교제를 상실케 하고,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

[181] Ibid., 66.

려야 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언제나 귀신들림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귀신과 병들림의 상관관계를 명백하게 보이는 구절들도 공관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예를 들면,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람(막5:1), 귀신들려 벙어리 된 사람(마9:22), 귀신을 쫓아내니 말을 하게 된 사람(눅11:14), 18년 동안 귀신들려 등이 꼬부라진 여인(눅13:11),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막7:24), 벙어리 귀신들린 아들(막9:17) 등이다. 특히 18년 동안 귀신들려 등이 꼬부라진 여인에 대해 성경은 사탄이 이 여인을 18년 동안 얽매어 놓았다고 말씀하며(눅13:16),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는 한 인간의 자기됨을 상실하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막9:18)" 갔다고 했다. 귀신에 의해 얽매이고 잡혀 살아가는 것은 억압에 의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다.

예수는 질병을 통해 나타난 인격화된 사탄의 세력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림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모든 질병을 귀신축출을 통해서 치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예수에게 있어서 질병 치유란 죄와 죽음이 만연한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탄과의 투쟁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 치유는 사탄과의 투쟁 속에서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해소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내적인 치유는 외적인 질병 치유와 결합되어 있다. 예수에게 있어서 죄용서와 질병치유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막2:1-12). 예수는 중풍병

자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으켜 세움으로 그가 하나님만이 소유한 죄용서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특별히 죄용서라는 내적인 치유와 병치유라는 외적인 치유가 결합돼 있음을 말해 준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자리가 곧 그의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예수의 병치유의 사건에서도 죄용서가 이미 병치유 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용서나 병치유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덧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치유에 있어 내적인 영역 곧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유의 과정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셋째, 질병치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이다. 예수는 구약적인 사상의 맥락을 띈 유대주의적인 인과응보의 교의적 이해를 거절한다(눅13:1-15, 요8:2-5). 인재와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은 희생자들이 그 밖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씀한다. 곧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발생한 징벌이라는 유대주의적인 단선적 인과응보적 사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출20:5, 민14:18, 신5:9, 렘31:29, 겔18:2). 예수는 특히 질병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과응보적 도식으로 축소 내지 집약시키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인과응보의 엄격한 구조를 지닌 생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예수는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한다(요9:3, 11:4).

2) 노인의 스트레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도 노화의 과정에서 겪는 인생의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음을 말해 준다. 면역력이 약화되어 체온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 지속적인 추위를 느끼는 것은 노인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면역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이 겪는 수많은 질환들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인 고통 즉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에 다니는 한 여성노인(75세)은 이미 10년 이상을 척추협착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협착증이 심해 병원으로부터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정을 받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온 몸이 저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지속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집안에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잠깐 허리를 숙였는데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척추골절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척추수술까지 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척추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182]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된다면, 노인이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바로는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고되게 했다. 이로 인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발생했다. 이

[182] 실제로 노인대학 노인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노인의 형편을 기록한 내용이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슬픔 속에서 탄원한다(출 5:22-23). 애굽에 억눌린 인생의 문제와 오히려 더욱 학대가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모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탄원을 늘어놓는다. 이것은 더욱 악화되어 가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노인들이 외치는 탄원에 비유할 수 있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늙은 어부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와의 사투에 승리하였지만, 애써 잡은 고기를 상어 떼에게 빼앗기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를 끌고 돌아온다. 결국 늙은 어부는 그 실패 속에서도 "인간이란 파괴될 수는 있어도 정복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183] 헤밍웨이는 소설을 통해 그를 괴롭히던 강박관념들을 쫓아버리고자 했다. 그러나, 노쇠해 가고 더 이상 젊었을 때의 남성다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끝내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헤밍웨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는 척 했지만,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

성서의 욥도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잃고 심한 종기로 고생하며 재 위에 앉아 기와로 상처를 긁고 있을 때, 스트레스로 제정신이 아닌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 2:9)” 는 저주를 들었다. 또한 욥 자신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욥 3:11)”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

---

[183] Ernest. M. Hemingway, *노인과 바다*, 황종호 역 (서울: 하서, 2008), 198.

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욥 3:21-22)" 라고 하면서 죽기를 소망했다.

욥이 겪은 고통은 노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수입이 없는 데서 오는 경제적 곤란 및 질병에 따른 고통과 외로움 등이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기가 힘들어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점도 문제의 하나이다. 노인의 삶은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로 묘사될 만큼 시들어가는 인생의 말년을 경험하며 겪는 근원적인 스트레스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인에게 있어 네 가지 고통에 의한 스트레스 못지 않게 가족 사망에 의한 스트레스도 매우 크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으며,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들을 위하여 울었다고 했다(창37:34-35). 그 이후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픔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남은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마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애굽행의 상황에 이른다. 이때 야곱은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창44:29)"고 말한다. 야곱은 아들을 잃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고 말할 만큼, 또 다시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죽고 말

것이라고 표현한다.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가족사망의 슬픔을 겪을 확률이 높다. 배우자의 사망이라든지, 심지어 자녀의 사망을 경험한 노인들도 많고, 특히 제주의 노인들은 4.3사건으로 인한 가족사망의 아픔을 겪은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른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크다 하겠다.

3) 스트레스의 발생원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건널 수 없는 간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사람을 자유로운 부분과 부자유한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다만 사람을 분열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즉 완전히 자유를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로마서 1장과 7장은 이 점에서 완전히 합치한다. 즉 나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은 내 결심과는 반대되는 삶을 산다. 나는 비록 내 결심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자신을 경험한다. 마음은 오히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84] 바울은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성서에서 말하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스트레스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것으로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등의 증상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

[184] Hans Conzelmann,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213.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출14:10-11)”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심리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이때 극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성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몇몇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5:7)”,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15:13)”,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6:34)”,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사41:10)”. 이와 같은 증상들은 어떤 환경이나 심리의 영향으로 스스로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는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둘째, 스트레스는 남과의 비교로 인한 욕구 불만, 즉 열등감, 시기, 불

평, 강박관념으로 나타난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해 불평하며 예수께 요청하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눅10:40)"라고 말한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자신만 일해야 하는 불공평에서 오는 욕구 불만이 마르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켰다.

그 외 이런 욕구불만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몇몇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17:9-10)",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전3:22)",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43:18)",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찜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전7:10)".

셋째, 스트레스는 주위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사가 나온다. 예수께서는 독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프게 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살려 주신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나인성 과부를 울게 만들었고, 그 애절한 슬픔은 예수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동정심을 유발했던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이런 인생의 스트레스를 물고기와 새가 그물이나 올무에 걸리는 것에 비유하여,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전9:12)" 고 했다. 또한 죽음은 누구도 단 한번은 거쳐 가는 하는 필연적인 것으로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라고 하면서 성서는 인생의 피해갈 수 없는 스트레스가 죽음이라고 말한다.

198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홍강의 교수팀이 Holmes와 Rahe의 측정표[185]를 토대로 하여 한국인의 스트레스 측정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들은 총 30가지의 사건들 가운데, 자식 사망,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이혼, 형제자매 사망 등이 각각 1~5위를 나타냈다.[186] 특히 역사적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즉"일제의 침탈시대 및 한국 전쟁의 경험" 은 한국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시대적인 스트레스로 이해될 수 있다.[187] 이렇듯 가족의 사망사건이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정신적 악영향도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85] Holmes와 Rahe라는 두 명의 정신과 의사는 5,000명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발병 이전에 있었던 생활사건들을 조사하여, 환자들이 보고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186]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137.

[187] 박정호, 김경희, "1970년대 이전의 노인교육 발전과정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32권 제1호 (충남: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0), 1.

노인대학에 다니는 노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70세 이상 된 노인들이기 때문에, 일제식민지배와 6.25전쟁, 특히 제주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1948년 제주 4.3사건을 경험한 노인들이 많다. 이들은 어려서 부모와 자녀들 또는 배우자와 형제들의 사망을 직접 경험한 경우가 많다.

제주영락 노인대학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3 사건을 직접 경험했거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4.3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시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노인들이 57.8%로 조사되었고, ‘보통이다’로 응답한 노인은 15.7%,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노인은 26.5%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인들이 57.8%에 이르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보통이다’로 응답한 노인들은 15.7%에 이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노인들은 모두 7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 4.3사건이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4.3사건은 작은 섬에 불과한 제주의 주민들에게 치료할 수 없는 막대한 상처를 입힌 참혹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참혹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제주의 노인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역사적인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노인대학 노인들의 제주 4.3사건 경험 정도>

제주 4.3 사건 경험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140	45	36	22	18	19
비율	100	32.1	25.7	15.7	12.9	13.6

세 가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재앙적 사건'[188], '심각한 삶의 변화'[189], 그리고 '일상의 다툼'[190]등을 들고 있다.[191] 제주의 4 · 3 사건은 세 가지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재앙적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개인적인 폭행당하는 경험, 생명위협의 경험, 가족이나 이웃이 살해당하는 충격 등으로 4 · 3 사건을 경험한 노인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스트레스는 노인들의 건강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12 년 82 세의 어떤 여성노인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심장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앓고 있었는데, 60 년 이상이 지난 4.3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중학생의 어린 나이에 가족이 살해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은 군화발로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기까지 구

[188]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사건.

[189] 집을 떠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결혼이나 이혼 등.

[190] 출퇴근 시간의 교통지옥, 화나게 만드는 가족들, 상점에서 긴 줄서기,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스팸 메일,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 사용 등.

[191] Myers, *심리학개론,"* 357-358.

타당했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바로 어제 있었던 사건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히 그 노인을 사로잡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192]

4) 질병의 원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심리적 상태가 신체적 반응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중요한 만남을 신경 쓰게 되면, 속이 메스꺼움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불안해지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된다.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울적해지면, 편두통이 발생한다. 만일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피부 발진이나 천식, 또는 고혈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실험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1999 년 4 월 23 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브리티쉬 에어웨이 항공기는 이륙하고 3 시간이 지난 뒤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실수로 방송하였다. 비행기 탑승원이 즉각적으로 그 실수를 확인하고 공포에 질린 승객들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여러 사람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193]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신체적 이상현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성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성서는 보통 인간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상황을 '근심', '불안', '탄식', '신음', '사모함(욕구불만)' 같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다. 시편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시 6:6)",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

[192] 이것은 논문의 저자가 직접 4.3사건 피해 노인을 방문하여 경험담을 간략히 기록한 것이다.

[193] Ibid., 353.

쇠하며(시 6:7)",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시 13:2-3)",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시 31:9)",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시 32: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시 77:3)" ,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시 102:5)"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편 84 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김의 사명을 다하고 싶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고라 자손의 욕구불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시 84:2)"라고 표현한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한 사건으로, 다말은 수치와 근심에 빠졌다. 성경은 이 일로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삼하 13:20)"고 말씀한다.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이 다말의 정신세계를 붕괴시켰고 정신적 우울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환란에 빠진 욥은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욥 17:7)"고 했으며,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욥 30:27)"고 했다.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잠언 15:13 은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

게 한다"고 했으며, 잠언 17:22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다.

예레미야 말씀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스트레스에 대해 두 팔에 맥이 풀린다고 표현한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렘 6:24)".[194] 성서는 스트레스가 해산의 진통을 겪는 여인처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스트레스는 때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David G. Myers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각한 질병과 사망의 4대 원인(심장병, 암, 뇌졸중, 그리고 만성 폐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캐나다 과학자 Hans Selye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적응적 반응을 '일반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 GAS)'이라고 하여, 세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1단계: 경고반응(Alarm Reaction), 2단계: 저항(Resistance), 3단계: 소진(Exhaustion)으로 구분하였다.[195] 1단계 경고반응은 교감신경계의 갑작스러운 활성화로서 심장박동이 급상승하고 혈액은 골격근으로 몰리며, 미약한 쇼크를 느끼는 것이고, 2단계 저항은 도전거리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체온과 혈압, 그리고 호흡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하는 것이고, 3단계 소진은 신체의 자원

[194] 표준새번역성경은 '두 팔에 맥이 풀린다'로 표현했다.

[195] Ibid.

들이 고갈되는 것으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붕괴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196]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여성들이 노화과정에서 염색체의 끝부분에서 DNA 가 짧아지는 현상을 나타냈다. 텔로머(telomere)라고 부르는 이러한 DNA 조각들이 지나치게 짧아지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죽고 만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연령보다 10 년 이상 늙어 보이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심각한 스트레스가 사람을 늙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심지어는 공포로 가득 차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쥐들(600 일 생존)은 자신만만한 형제 쥐들(700 일 생존)보다 일찍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197]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경험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남전에서 격렬한 전투에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겪은 사람들은 나중에 순환기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98]

심각한 스트레스는 특히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심장병학자인 Friedman 과 Rosenman 은 세무사 40 명의 혈액 콜레스테롤 수준과 응고 수준을

---

[196] Ibid., 356.

[197] Ibid.

[198] Ibid., 354.

측정하는 실험에서, 고객들의 세금 정산 작업을 완료하고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실험자들의 혈액에서 콜레스테롤과 응고 측정치가 위험수준까지 치솟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35 세~59 세에 이르는 3 천명 이상의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9 년에 걸쳐 심장병 질환을 조사한 결과, A 유형(반동적이고, 경쟁적이고, 참을성이 없고,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사람들 가운데 257 명이 심장병을 앓았는데, B 유형(태평한 사람들)의 사람들은 한 명도 심장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실험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Charles Spielberger & Perry London 은 분노는 "심장근육을 몰아치고 두들겨 패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199]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혈압이나 두통과 같은 것들을 스트레스 관련 '심리생리적 질병(psychophysiological illness)'이라고 부른다. 두뇌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규제하는데, 스트레스 발생시 분비되는 호르몬은 질병과 싸우는 림프구(lymphocyte)[200]를 억제하여 면역시스템의 활동을 약화시킨다. 스트레스가 질병을 직접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 시스템의 작동을 제한시킴으로써 침입하는 이물질에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201]

---

[199] Ibid., 357.

[200] 림프구에는 두 가지 유형의 백혈구 세포가 포함되는데, B림프구(B lymphocyte)는 골수에서 생성되며 박테리아 감염에 맞서 싸우는 항체를 방출하고, T림프구(T lymphocyte)는 흉선과 다른 림프절 조직에서 생성되며, 암세포와 바이러스 그리고 이물질들(이식한 장기와 같은 선의의 이물질도 포함)을 공격한다. 이러한 면역시스템은 과잉반응을 할 경우, 신체조직을 공격하여 관절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초래할 수 있고, 과소반응을 하면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암세포를 증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

[201] Ibid., 359-362.

특히 노인대학에 참석하는 노인들은 제주 4.3사건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 노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독거노인의 비율도 50%에 이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과 생활고 및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202] 그렇기에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다른 제주의 일반노인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노인들로 이해할 수 있다.

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성서적 치료의 방법들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성서적 연구는 노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성서적 원리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성서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때, 노인대학 참여 노인들의 영적인 재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복음서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은 외형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치유가 주된 사역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주된 관심사는 내적 치유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김지철 교수는 예수님의 기적사화에 대해서 "지상적 예수의 행위에 의거하여 치유 받은 사람들과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이해를 지니게 되었는가를 설명" 해

---

[202] 2010년 제주의 독거노인 비율은 15%인데 반해, 제주영락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은 50%에 이른다. 이것은 그만큼 노인대학이 상대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준다고 하면서 치유사건 그 자체보다 그 안에 얽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03] 예수의 치유는 당장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치유보다 마음의 위로와 관계의 회복 같은 내적인 치유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내적 치유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스트레스 해소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악한 영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의 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역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행10:38)"라고 말씀한다. 눌린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로서, 예수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다.

1) 웃음치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와 관련된 웃음(laughter)은 32 회, 기쁨 (gladness)은 512 회, 총 544 회 정도 기술되어 있고, '두려워 말라'가 356 회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성서는 웃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204] 성서는 웃음이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웃음으로 사람은 치료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웃음치료의 은혜

---

203 김지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치유사역," http://blog.daum.net/bible386/389 (accessed September 5, 2012).

204 류종훈, *웃음치료혁명:성경적 웃음치료* (서울: 은혜출판사, 2006), 22.

를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에게 있어 웃음치료로 치료해야 할 영역은 미분화된 자아(undifferentiated), 미해결된 과제(unfinished business), 미해결된 분노(unfinished anger)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05]

성서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표현한다. 욥기 8장에서는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욥 8:21)" 라고 하면서 웃음과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나타낸다. 웃음도 하나의 은사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웃음은 사람을 치료하는 은혜의 효과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웃음을 기대해야 한다.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 80:3)" 라고 했으며[206], 민수기 6장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민 6:25)" 라고 했고,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시 119:135)" 라고 했다.[207]

성서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웃는 것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한다. 잠 15장에서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

---

[205] Ibid.

[206] 이 본문은 시편 80편에서 3번(3절, 7절, 19절)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공동번역에서는 "만군의 하느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

[207] 공동번역에서는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번역하여 하나님이 웃는다고 표현한다.

하게 하느니라(잠 15:30)" 고 했으며[208], 욥기 29 장에서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욥 29:24)" 고 했다.[209] 다른 사람을 향해 웃어주는 것은 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치료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eyers 는 "삶의 일상적 사건에서 유머를 찾아내는 데 능숙한 사람들도 득을 본다. 웃음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편안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으며,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기쁨을 초래하는 유머가 스트레스를 분산시키고 면역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 하였다. [210]

삶의 고독과 싸우면서 웃을 일이 없는 노인들에게 웃을 수 있는 노인대학의 현장을 제공하는 일은 노인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이 많은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노인들에게 노인대학은 삶의 활력소를 주는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은 '레크레이션' 이라는 특별활동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보여줌으로 노인들에게 웃음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레크레이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매주 노인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생일축하잔치 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이들(제주영락어린이

---

[208] 표준새번역에서는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고 번역하여 치료의 효과를 표현한다.

[209] 표준새번역에서는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고 번역하여 미소와 웃음의 효과를 표현한다.

[210] Myers, *심리학개론*, 369.

집 및 유치원, 반석어린이집)을 동원하여 노인들을 위한 생일축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어린 세대와의 접촉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고 있다.

2) 작업치료 (놀이치료)

놀이 치료란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놀이를 통해 치료하는 정신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보통 유소아에 대한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놀이'라는 용어자체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성인이나 노인의 입장에서는 '작업치료'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당해 보인다.

성서에서의 작업치료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일에서 시작한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사람만은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는데, 이는 '작업'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모든 작업을 마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신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회복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창2:15)"하신 일은 노동 곧 작업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다.[211] 이 명령은 인간이 범죄, 즉 타락하기 이전에 축복으로 주신

[211] 임영효, *실천신학,"* 389., 임영효는 "인간의 노동과 직업은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한 신적인 소명" 이라고 했다.

것으로 인간의 노동과 직업이 결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인 것을 분명히 천명하여 준다.[212] 이 명령을 Anthony A. Hoekema 교수는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개발시키라는 명령"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13] 창세기에서 작업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요, 땅에서 번성하는 수단인 것이다. 작업치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번성과 성장의 과정이다.

작업치료의 관점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노아는 600세의 노년에 배를 만들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담당했다. 노아가 행한 일은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구원한 소위 작업치료사의 일을 담당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배를 주셔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실 수 없었을까? 배를 만드는 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의 재질과 크기부터 시작해서, 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 배를 만든 기간은 알 수 없으나 8명의 가족들이 방주처럼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배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의 배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노아의 작업치료 개념

---

[212] Ibid.

[213]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14.

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방주를 만드는 작업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가족들과 배에 탄 동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또한 성서의 작업치료는 예배를 통한 회복과 관련된다. 예배를 통한 회복은 “예배의 장(場)으로서의 직업생활”이라고 하여, 직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강조된다.[214] 구약의 예배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작업이 필수적인 요소였다(창8:20, 12:8, 13:4, 13:18). 노아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창8:21)”라고 말씀한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닫히는 저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되어 출산하게 되었다(창20:17-18).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제단을 쌓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인 것이다.

성서의 또 다른 중요한 작업치료의 관점은 성전건축을 통한 회복의 선포이다. 성서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명하여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한 성막건축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 주셨다. 성막의 재질과 모양, 크기는 물론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까지 구체적인 규격과 모양, 재질을 알려 주셨

[214] 임영효, *실천신학,”* 391.

다. 이들의 작업은 성서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광야에서 만든 성막은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기본바탕이 되었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과 놋으로 만든 성전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성전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임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왕상6:12-13)." 성전건축이라는 작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증표였다. 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재건에 최선을 다했던 것은 성전건축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다. 이는 성전건축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직결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과였다. 학개가 말하는 성전 건축은 단순한 예배 처소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의 재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무너져가는 그들의 사회와 종교회복의 의미로서 성전건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215]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이것은 "노인으로서 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참여,

[215] 오택현, "학개와 성전건축," *주간기독교* 통권1461호, (서울: 주간기독교신문, 2007), 112.

그리고 안전에 대한 최대 활용의 기회를 갖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216] 이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중심의 접근에서 권리중심의 접근으로 바꾸어 지역사회와 정치에서 노인의 권리와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많은 노인들은 스포츠, 전일제 직업, 자원봉사, 돌봄, 평생교육을 하며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생활방식이 삶을 발전시키고 사망률을 줄인다. 작업치료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건강증진활동만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년기 사회적, 생산적 활동이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217]

성서에서 말씀하는 작업치료는 하나님의 복에 의한 사람의 번성과 구원에 있다. 이러한 개념은 작업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다만 사회적인 개념의 작업치료는 건강증진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작업치료가 건강증진의 철학에 부합하여 질병을 개선하고 건강이 최상의 상태로 증진되는 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218]

제주영락 노인대학은 성서적인 작업치료의 개념을 적용하여 가장 우선적인 작업치료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주 모든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30분가량 예배를 드리는 일은 믿음이 없는 노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성서가 말씀하는 작업치료는 사

---

216 Anne Mclntyre & Anita Atwal, *노인작업치료*, 김경미 외 역 (서울: 도서출판 영문출판사, 2009), 2.

217 Ibid., 2-4.

218 A. A. Wilcock, *Occupation for health, Volume 2: A Journey from Prescription to Self Health* (London: College of Occupational Therapists), 341.

람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 곧 예배가 우선되는 것이므로, 예배는 노인대학의 작업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요, 핵심사역이다. 노인대학의 사역에 있어 예배를 통한 노인들의 영적인 회복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다.

그 외 노인대학은 여러 가지 작업치료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특별활동들이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 작업치료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 좁은 의미의 작업치료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활동들을 뽑는다면, 천연화장품 만들기, 원예치료, 서예 등을 들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기나 요리, 그리기, 주무르기 등의 기능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및 성취감은 물론 삶에 대한 만족감 등을 느끼게 해 주고, 함께 공동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서 상호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219]

3) 음악치료(Music Therapy)

시편말씀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시147:1)"라고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 행위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서는 찬양으로서의 음악의 선한 역할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음악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음악치료는 1950년대 미국에서 전문영역으로 정착하게 된 현시대적인

---

[219] 류종훈, *이론과 실제,*" 326.

치료방법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1997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음악치료대학원이 개설된 것이 공식적인 시작이다. 특히 교회에서는 찬양이라는 음악적 영역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추세에 있다. Bruscia는 기존 음악치료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음악치료란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사가 음악적 경험과 음악적 관계를 이용하여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된 과정"이라고 했다.[220] 일반적인 음악치료는 음악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사람이 치료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 음악자체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적 음악치료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음악이 치료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음악을 다루는 사람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의 문제를 말한다. 성서는 여러 곳에서 마음 중심으로 하지 않는 노래나 연주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역겹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악령에 들린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여 치료하는 사건이 나온다. 성서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 수금을 연주했는데 그때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삼상16:23)"고 말한다. 다윗의 찬양이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찬양이라는 음악적 요소도 크게 작용했지만, 특히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

[220] Barbara L. Wheeler, *음악치료연구*, 정현주 외 역 (서울: 학지사, 2004), 33.

(삼상16:18)"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음악연주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음악을 해도, 악령을 물리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다윗은 레위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대상15:16). 누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연주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음악 자체를 "아름답게"해야 한다.[221] 시편 33편 말씀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시33:3)"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음악의 장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찬양은 연주자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 영감 있는 찬양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준비되었다 해도, 그가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찬양을 통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연주자와 음악의 영적인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음악으로 치료해야 한다. 일반 음악치료에서 음악치료는 세 가지 접근 곧 의료적, 재활적, 교육적 접근을 말한다.[222] 이 모든 접근이 음악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을 치료하는 접근인데, 마찬가지로 성경적 음악치료도 음악

---

[221] 조각 등에 있어 솜씨나 꾀가 재치 있고 교묘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음악에 있어서는 '아름답게'로 번역하였다.

[222] Ibid., 53.

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다윗이 찬양을 통해 사울왕을 치료하는 사건은 찬양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찬양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악한 영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찬양은 악한 영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40:3)” 라고 하면서,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송의 주인 곧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렘17:14)”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은 사람에게 병고치는 은혜와 구원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성서의 음악치료는 단순히 질병치료의 차원을 넘어선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든 죄수들에게 들을 만큼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찬송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얽힌 문제들도 풀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삶의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치료는 질병이 없는 노인으로부터 의학적 보살핌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현

실감, 순서에 대한 예견 등을 제공하는 노인치료에 도움이 된다.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망상이나 과거 기억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건강했던 젊은 날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둔감해진 정서를 촉촉이 적시는 일이고도 하다.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음악활동을 하는 것은 즐겁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노인대학의 노인들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독과 소외, 경제적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성서적 음악치료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치료를 넘어서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치료와 삶의 환경적인 치료까지 다루는 복합치료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에도 음악적 요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프로그램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제주영락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포함된 음악관련 과정들은 매주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는 노래와 율동시간(15분), 예배시 찬양대(30분 연습), 오후 특별활동으로 합창반(40여 명) 등이 있다.

4) 질병치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5가지가 있는데, 그 중 23가지가 병 고치는 기적이고, 9가지가 자연에 대한 명령이고, 3가지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다.[223] 예수의 치료사역 가운데 육체적 질병치유의 사역들은 가시적 증거를 보여주는 치유사역이다. 예수의 사역 가운데 질병치유의 사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예수는 환자들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말해 준다. 그의 제자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요삼1:2)"고 하면서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예수의 질병치료는 병자의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면서 더 나아가 신앙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낸다. 예수의 질병치료는 치유 받은 자에게 감사와 찬양을 가능하게 했으며(눅17:15-16), 치유의 결과를 지켜 본 사람들은 놀람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마9:33, 막2:12, 5:15, 5:42, 눅9:43, 요11:45), 이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마9:31, 막1:45, 5:20) 하였다. 여기서 놀람이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반응이다. 치유기적은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움과 새로움을 선물하므로 인간적인 불신앙을 극복하게 했던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예수의 표징들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요2:11, 5:53, 10:41, 20:30-31).

예수의 치유기적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보지 않고 고친 것'이다.[224]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은 예수께서 갈릴리

---

[223] 이성희, *예수님의 치유* (서울: 삼일서적, 1992), 18.

[224] Ibid., 21.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서 병든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다(요4:46-53).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의 소원을 듣고 그 즉시 병을 고친다(마8:5-13). 예수는 이방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도 그녀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 고친다(마15:21-28). 이는 예수의 치유가 육체적인 거리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예수의 치유는 세상 의학이 육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예수의 질병치유는 공간을 뛰어넘는 스트레스 해소사역이다. 이는 예수의 근본적인 치유의 영역이 내적인 치유의 영역에 속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내적인 치유에 집중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면, 내적인 치유를 통해 육체적인 질병치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공동체는 치유공동체였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치료를 받았다(눅4:40, 6:17-19, 7:21).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파송되었던 칠십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눅10:17)”라고 보고한다. 예수의 질병치유사역은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전달되었다. 예수의 치유는 예수를 믿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치유의 사역이다.

실제 연구조사에 의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은 상당한 질병치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Jeremy Kark와 그의 동료들(1996)은 정통 유태교 집단 정착촌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비종교적인 집단 정착촌에 살고 있는 3,9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망률을 비교하였다. 연구자들은 16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종교적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강력한

보호적 효과와 연합되었으며, 연령이나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225] 각 연령집단에서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비종교적 집단에 비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노인대학은 예수의 공동체를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해 공개한 치유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노년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그 자체적으로 치유의 효과가 크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공동체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노인들의 질병치유에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스트레스의 감소효과는 노인들의 노년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5) 말씀치료

Eugene Peterson은 "인간이 듣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단단한 두개골을 뚫어서, 내면의 깊은 곳 - 마음과 정신 - 까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셨다. 편편한 두개골을 상상하는 대신, 쓰레기들 - 문명화된 세계의 잡음들, 난무하는 험담, 하찮은 잡담 - 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물을 내지 못하는 우물 같은 것을 떠올려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귀는 세상 것으로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물을 막

[225] Myers, *심리학개론,"* 377.

아버리자 다른 우물을 팠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잡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귀를 다시 파신다"고 했다.[226] 말씀치료의 기본은 대상자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귀를 갖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Martyn Lloyd-Jones는 기독교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내도록 권면하는 메시지"라고 했으며, 암울하고 황량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딤후 1:12)"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고 했다.[227]

예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말씀사역이다. 장로회신약학교수인 김지철교수는 "예수의 행위가 당시의 행동주의자나 마술적인 기적행위자와 구별되는 이유 또한 그의 행위와 함께 나타난 종말론적인 특성을 지닌 그의 '말씀선포'에 있었다"고 했다.[228] 마태복음만 보아도 예수의 설교가 5편(5-7장, 10장, 13장, 18장, 24-25장)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은 예수를 어려서부터 말씀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눅2:47), 사탄도 물리치는 말씀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마4:4, 4:7, 4:10), 말 한 마디에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

---

[226] Eugene Peterson, *Working the Angels: 균형 있는 목회자*, 차성구 역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9), 156.

[227] Martyn Lloyd-Jones, *I Am Not Ashamed: 내가 자랑하는 복음*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09), 113-114.

[228] 김지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치유사역," http://blog.daum.net/bible386/389 (accessed September 5, 2012).

다(마4:23). 예수의 치유는 말씀치유와 질병치유가 함께 병행하는 치유의 형태였다.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말씀한다. 예수의 말씀치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쉼을 얻게 해 주는 것이다. 노인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노인대학은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편안한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병자를 찾아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5:6)”라고 먼저 말을 걸어 주었다.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로 살아오는 그는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스트레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예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요5:7)”라고 하소연한다. 이 시대의 노인들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노인대학은 그들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예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 줄 것이며, 그들의 안고 있는 무거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주 4.3사건 등의 아픈 역사적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제주의 노인들에게는 특별한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에게 건네었던 예수님의 한 마디 말씀이다. 노인대학은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하루의 과정을 시작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한 몸으로 나타난 사건이 나와 있다.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길을 가는 중에 성서를 풀어 들려주시는 예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다. 나중에 그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린다(눅24:13-35). Eugene Peterson은 말씀의 능력을 "치료하고 복을 주며 구원을 베풀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한다.[229] 사도행전의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대화를 인용하여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성서의 영적 회복능력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를 많이 경험하라"고 주장한다.[230] 이것이 빌립의 성경을 통한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노인대학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노인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줄 수 있다. 말씀의 위로를 경험한 노인들은 제2의 인생인 노년을 영적으로 새롭게 계획하며 살게 될 것이다.

6) 사랑치료

Brock은 인간은 마음이라는 사랑과 관계의 신적 실재를 통해 하나님의

---

[229] Eugene Peterson, *균형 있는 목회자*," 176.

[230] Ibid., 191-96.

성육하심을 경험하고 마음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원은총(original grace)이라고 한다.[231] 예수는 “원수를 사랑(마5:44)”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8)”고 말할 만큼, 예수의 사역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역이다. 심지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십 리를 동행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마5:38-42).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4:8)”라고 했고,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고 했다. 사랑은 신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요일4:8)”고 주장한다.

예수의 병치유 기적사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절망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애절한 간청이다. 거기엔 질병 들린 자들의 기대와 부르짖음과 더불어 종종 이웃(친구)의 정성스런 간구도 나타난다(마8:5, 막2:3, 5:21). 예수는 이들에 대해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대하며 치유의 기적을 베푼다(막1:41, 요11:33). 예수는 귀신들린 자, 병자, 고난의 자리에 든 자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히 여김을 보여준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예수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요11:50”하셨다고 하고, 마리아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231] R. Brock, *Journey by Heart: A Christology of Erotic Power* (NY: Crossroad, 1993), 16-17.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요11:33)"고 했다. 이로써 예수의 치유는 치유 받는 환자와의 사랑과 긍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인대학은 예수의 사랑치료를 실천하는 현장으로서 교사와 노인들 간에 사랑의 유대관계를 통해 노인의 질병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교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노인을 섬겨야 한다. 노인대학의 노인들은 각각 반별로 구성되어 있고 반별로 배정된 담임교사들이 있다. 담임교사들은 매주 출석을 체크하고 노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노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한다. 결석했을 경우, 전화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만일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위로한다. 이로 인해 노인들과 교사 간에 부모와 자식 같은 사랑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7) 믿음 치료

치유사화에 나타난 '믿음'은 부활절 이후의 선교적인 케리그마에 의해 나타난 믿음이나, 바울신학에 의한 기독론적으로 각인된 교의적인 의미의 '믿음'이 아닌,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여기에 나타난 믿음은 궁핍함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향해 부르짖는 질병 들린 자의 부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는 예수에게 간절히 나오는 모습으로(마9:27, 막1:40, 5:25-26), 때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막1:40), 그리고 어떤 때는 친구를 들 것에 메고

지붕을 뚫어 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간구, 즉 "당신이 원하시면(막1:40)",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막9:27-28)"라는 간구도 바로 그들이 예수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대와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예수는 "믿음을 보았다(마8:10, 막2:5)", "믿음이 크다(마15:28)", 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막5:34, 10:52)"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형상화했던 것이다. 역경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 중의 하나이다.[232]

특히 혈루병 앓는 여인의 모습은 그것을 보다 분명히 해 준다(막5:25-34). 그녀는 여러 의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으나 재산만 탕진하고 치유의 효력을 얻지 못했다. 그녀는 인간적인 병치유의 노력에 있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녀는 병치유의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보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예수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혈루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이루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믿음이란 예수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려 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의 계시를 신뢰로써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233]

믿음이란 단순히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심리학적 기대이상을 말한다.

---

[232] Robert L. Plummer,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 김광현, 조충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55.

[233] Ibid., 175.

왜냐하면 치유가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마15:21-28). 말하자면 치유당사자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치유당사자를 위한 중재적인 간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장소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일어나기도 한다. 병자가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예수의 치유가 의학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임을 의미한다(백부장의 하인 치유(마8:5-13, 눅7:1-10, 요4:46-54) /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마15:21-28, 막7:24-30) /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요4:46-54). 마치 구약에서 엘리야가 나아만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고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왕하5:9).

믿음은 이렇듯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나 그렇다고 그 믿음이 단순히 회의와 의심이 전혀 없는 신앙을 말하지는 않는다(막4:35-42). 믿음이란 때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막9:22-24)"는 의심하는 믿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에게 기대한다는 고백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5,286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28 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연구를 보면, 연령과 성별, 그리고 인종과 교육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종교모임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36%나 낮았다. 종교-건강 상관관계가 아직은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지만 Harold Pincus 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성과 종교 그리고 건강 간에 중요한 연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였다.[234]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있다. 믿음치유는 노인대학의 노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게 하는 과정이다. 성경의 수많은 예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날 때 질병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234] Myers, *심리학개론,"* 380.

Ⅳ. 노인과 노인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시대는 노인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다수의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장에서는 노인들의 욕구 가운데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학적 연구에 대해 고찰하면서, 노인교육시대의 도래를 맞아 노인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교회와 노인대학의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노인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노인교육시대의 도래

1) 노인교육의 의미

1950년대부터 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노년학이 발전함으로써 노년학의 하위 분야로 노인교육학 혹은 노년교육학(educational gerontology)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였다. 노년교육학은 진단 위주의 노년사회학이나 노인심리학 혹은 치유 위주의 노인복지학과는 달리 진단을 기초로 치유와 동시에 예방을 추구하는 분야다. 그러나 노년교육학은 오랜 기간 동안 독립된 학문분야로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 오다, 최근 들어 고령화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힘입어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과 학문적

연구 가치를 새롭게 평가 받게 되었다.[235]

노인교육은 노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실천을 의미한다. 과거 노인교육은 단순히 노인들의 여가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평생에 배우고 익혀야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노인들의 경제적, 교육적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앞으로의 노인교육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결국 노인 교육은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사회에 대하여 힘을 갖도록 돕는 일이다. 교육은 그들이 이미 습득한 기술을 유지, 발전시키며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자기만족이나 목적의식, 자아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삶과 지역 및 전체 사회 속에서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교육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장식품이나 사치품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기성장을 위한 공급원이며 동시에 노인들의 중요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236]

노인은 학습능력이 낮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교육에 상당한 장애가 있지만 노인들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노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이해하며 신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노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노인

---

[235] 한국고령사회교육원,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http://cafe.daum.net/silver6090 (accessed October 17, 2013).

[236]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142

들 자신의 역할을 일깨워 줄 수 있다.[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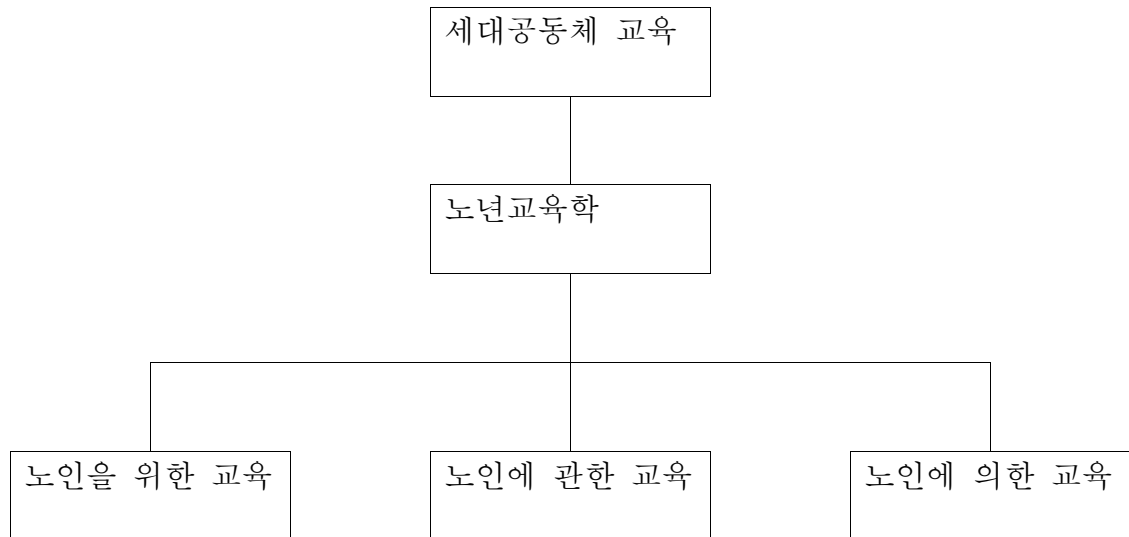
노년기의 학습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S. Willis는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는데, 첫째는 학습수행은 일생을 걸쳐 회복 불가능한 쇠퇴를 겪으며, 이 쇠퇴는 거의 보상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둘째는 학습수행은 기본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이며, 출생동시집단 간의 차이는 개인이 연령증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 건강, 지적 수준의 차이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셋째는 인생 후반기에 수행에서의 미미한 쇠퇴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는 보상적인 전략들을 통하여 회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 번째의 입장은 점차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는 노년기의 학습 수행 유지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의 중요한 역할을 제안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238]

2) 노인교육의 세 가지 범위

한정란은 『노인교육의 이해』에서 노년교육학의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한다. 모형에 제시된 노년교육학의 세 영역, 즉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237] Ibid., 83.

[238] Ibid.

<노년교육학 모형[239]>

(1) 노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older adults)

이것은 지금까지 좁은 의미의 노년교육과 동일시되어 왔으며 "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실천과 연구를 포함"[240]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힘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는 교육이며, 자기만족, 목적의식, 자아정체성 강화" 등을 돕는 교육이다.[241] 즉 노인 스스로가 단순한 보호나 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계속적인 발달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교육은 지금까지의 사회적 편견처럼 불필요한 장식품이나 사치품 정도에

[239]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67.

[240] 한국고령사회교육원,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http://cafe.daum.net/silver6090 (accessed October 17, 2013).

[241] 한정란, *교육노년학*," 43.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기성장을 위한 공급원이자 노인이 가진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2) 노인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loder adults and aging)

"학습자는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집단이든지 언젠가는 노인이 될 사람들, 노인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퇴직을 준비하는 이들을 모두 포함" 하는 '잠재적 노인'이다.[242] 노화과정의 특성, 노년기의 과업 등 노인에 관한 지식과 그들과 상호 작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초・중・고 및 대학,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퇴직 교육 등을 말한다. 즉, 노화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과정과 특성들을 노년기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 직접 노인과 함께 체험하는 활동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다.

(3) 노인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older adults)

노인은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 속에서 귀중한 의미와 지식과 기술을 쌓아왔다. 노인에 의한 교육은 이러한 노인이 지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노인이 살아오면서 쌓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노인의 능력, 경험, 사회에 환원하여 노후의 여가를 유익하게 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노인들은 일생을 통해서

[242] Ibid.

귀중한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교육이라는 장소와 제도들을 통하여 후세에 전하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좁은 의미의 교육장면뿐 아니라 봉사를 통한 교육적 의미 전달까지도 범위에 해당된다. 역사나 전통 그리고 전문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전통예절이나 기술전수, 다양한 장면에서 노인의 자원봉사와 사회참여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243]

3) 노인교육의 목표

교육목표란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달성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244] R. W. Tyler는 “만약 우리가 어느 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교육목표를 추구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고 하였다.[245]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B. S. Bloom의 교육목표 분류체계는 크게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 운동기능적 영역(psychomotor domain)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인지적 교육목표는 복잡성의 원칙(principle of complexity)에 따라, 가장 단순한 행동형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행동형을 순서적으로 배열하여, 각각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정의적 교육목표는 내면화의 수준(level of internalization)에 따

---

[243] Ibid., 44.

[244] 이종승, *현대교육평가* (경기 파주: 교육과학사, 2009), 213.

[245] R. W.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3.

라 내면화가 낮은 1수준으로부터 내면화가 깊은 5수준까지 구분하였다. 내면화란 사회심리학적인 용어로서 개인이 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태도, 가치, 행동양식 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수준별 명칭은 각각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내면화 등으로 나누었다. 셋째, 운동기능적 교육목표는 근육의 발달과 사용 그리고 신체능력에 관한 행동을 포괄하는 영역을 다루며, 대부분의 심리-신체적 운동, 기능, 기술, 지각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구체적은 분류는 E. J. Simpson(1972)과 A. J. Harrow(1972)가 제시한 방안이 가장 대표적이다.[246]

한정란은 노인을 위한 교육의 목표를 크게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관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교육의 목표로서, 노화에의 적응, 사회적응, 자기계발, 대인관계 확대, 능동적 삶의 고취,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시했다. 둘째, 노인에 관한 교육의 목표로서, 노인 이해의 확대, 세대간 이해의 확장, 노화에 대한 준비, 노화에의 적응을 제시했다. 셋째, 노인에 의한 교육의 목표로서, 젊은 세대에 실제적 교육 제공, 젊은 세대에 다양한 경험의 제공, 젊은 세대의 대인관계 확대, 전수와 노인의 사회참여, 노인의 대인관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247]

---

[246] 이종승, *현대교육평가*," 218-234., 심슨은 지각, 태세, 유도반응, 기계화, 복합적 외현반응, 적응, 창작 등으로 분류하였고, 해로우는 반사적 행동, 기본적 중요 행동, 지각능력, 신체적 능력, 숙련된 운동기능, 동작성 의사소통 등으로 분류하였다.

[247] 한정란, *교육노년학*," 178-188.

류종훈은 노인교육의 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자아실현의 제공, 둘째, 사회교육을 통한 사회적 적응력 향상, 셋째, 노인문제의 예방과 치료, 넷째,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도모, 다섯째, 집단활동을 통한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 등이다.[248]

김종서는 노인학교에서의 노인교육의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개인생활의 목표, 둘째, 인간관계의 목표, 셋째, 경제생활의 목표, 넷째, 국민으로서의 생활목표로 분류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249]

첫째, 개인생활의 목표로서,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생활하며,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려는 의지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취미활동에 참가해 여가활동을 즐겁게 보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습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종교적인 신앙을 두텁게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둘째, 인간관계의 목표로서, 젊은 사람들과의 세대차이 이해, 동년배 집단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태도, 이웃으로부터 인생의 선배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태도, 가정 생활에서 가풍을 이어가며 발전시키려는 태도, 민주적 가정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 관계를 향상시키는 대화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생활의 목표로서, 경제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경비를 스

---

[248] 류종훈, *이론과 실제,"* 415.

[249] 김종서 외, *평생교육개론,"* 22-26., 김종서의 노인교육의 목표를 요약하였다.

스로 마련하는 태도, 근로의 가치가 신성하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는 태도, 노인에게 알맞은 경제활동의 직종에 대한 정보,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지역사회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봉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넷째, 국민으로서의 생활목표로서,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통적 미풍양속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려는 태도,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실천에 앞장서는 태도를 갖고, 사회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익히며, 청소년 선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익히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하는 것이다.

2. 노인교육의 현실과 문제

1) 노인교육 관련법과 정책

노인교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 10월에 공포된 새 헌법에 평생교육의 조항이 들어가게 된 일과 1982년 말과 1983년 9월에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250] 정부는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1981년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1982년에는 노인복지

[250] 김남선, *평생교육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4), 244.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들어 노인 복지 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분류하였다. [251] 1982년 5월 8일 제정된 경로헌장[252]과 노인 5대 강령은 노인복지 및 노인교육에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로효친(敬老孝親)과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풍 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敬愛)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253]

---

[251]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133.

[252] 경로헌장은 1982년 5월 8일 경로주간 기념식에서 서울시장에 의해 공포된 것으로, 당초 사회각계 지도급 인사 1백 명으로 구성된 헌장기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노인헌장으로 결정됐었으나 정부 차관회의과정에서 이 헌장 문안의 일부가 수정 또는 삭제되면서 명칭도 경로헌장으로 바뀌어 국무회의를 통과, 선포되었다. 이 헌장은 '국민교육헌장' '어린이헌장'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노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노인의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헌장은 세계 최초의 노인헌장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니며, 이 헌장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253] 경로헌장, 보건사회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가정 1461-5870, 1982. 4)인 「노인헌장안」· 안과 대체안건(가정 1461-6325, 1982. 4.21)인 「경로헌장안」에 관한 것이다. 이 상정안 가운데 「경로헌장안」이 제30회 국무회의(1982. 4.27)에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로헌장」을 제정·선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장 제정의 취지는 노인문제를 "국민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0회 어버이날 및 제1회 경로주간을 맞아 노인에 대한 경애와 봉양의 자세, 가정 및 국가사회의 책무 등을 집약 간명한 경로헌장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경로 효친사상의 앙양으로 가정과 사회를 순화하고 나아가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로 제시되어 있으며, 별지 「경로헌장(안)」에는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등 5개의 실천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별첨에는 「기초위원명단」·「심의위원명단」·「제정위원」이 수록되어 있다.

> 첫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둘째,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심신의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 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254]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의하면,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한다.[255] 노인학교에 대한 운영규정은 각 노인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운영규정을 사용하고 있다.[256]

한국의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노인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국조사에 의하면 노인학교 현황은 지역별 차이가 심한데, 도시지역의 노인학교는 다양한 운영 주체에서 운영자 부담, 학생회비, 정부 보조 등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학교가 1년 중 방학을 제외하고 주 1회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의 노인학교는 전국조직인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 지원금의

---

[254] 경로헌장 중 노인 5대 강령.

[255] 노인복지법 제36조 3항.

[256] 대한노인회 노인학교운영규정은 Appendix4를 참조.

의존도가 높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수의 학생, 전문 강사의 미비, 짧은 수업기간, 적은 수업 횟수 등으로 도시에 비해 노인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편이다.[257] 노인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지역사회의 기관, 시설들이다. 이런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노인교육은 크게 노인학교와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노인학교

노인학교의 운영 주체는 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노인교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하는 노인대학과 노인학교, 대학이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각종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노인학교,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등이 있다.[258] 노인학교의 교육내용은 크게 교양 강의와 여가, 취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교양 강의보다는 취미, 락 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노인들로부터 호을 얻고 있다. 노인학교는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의 습득, 만남, 스포츠, 여행, 교육, 건강관리, 취미 또는 오락, 자원봉사활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노인의 고독 해소와 여가선용이다.[259] 노인학교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노인학교

---

[257]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2011), 241.

[258] 김영봉, *교육학개론* (서울: 서현사, 2008), 321.

[259]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241-242.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둘째, 전문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 셋째, 운영재원의 부족, 넷째, 교육시설, 교재 및 교육방법의 미비,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교과과정)의 미개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1970 년대 노인의 교육 욕구와 고독 해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도시지역에서 많은 노인학교가 설립되었다. 노인교실은 노인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농촌의 노인과 도시지역 가운데 노인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가 1981 년 전국 초등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개설되어 한 달에 2 회 교양, 건강, 상식, 시사 등을 내용으로 개강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의한 자발성 저하, 의존성 문제, 사회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노인의 참가 방식의 문제, 지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개설 당시에는 전국에 7,636 개소가 있었지만, 이용자와 시설이 감소하여 2009 년 12 월 1,280 개에 이르고 있다.[260]

---

[260] Ibid., 243.

<노인교실프로그램의 예>

사업 분류	세부 사업	사업 내용
노인 교육 사업	교양 프로그램	교양강좌 건강강좌 영화감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체조 에어로빅 단전호흡 민속체조 생활체조
	취미교육 프로그램	가요한마당 민요교실 한국무용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특별교육 프로그램	합창교실 한글교실 한문교실 산수교실 문예창작교실 시조 일본어교실 창작종이접기
	특별활동 프로그램	에어로빅 풍물교실 연극교실 합주단교실 탁구교실 배드민턴교실
	소그룹 활동실 운영	서예실 게이트볼실 장기, 바둑실 노인도서실
	월별행사 프로그램	생일축하 신년하례식 종교단체위문행사 설날맞이잔치 정월대보름한마당 일일탐방 백일장 야외학습 체육대회 실버연극제 테마여행 마당놀이한마당 한가위잔치 실버가요제 작품전시회 문화축제
	사회성개발 프로그램	운영간담회 자치회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교통봉사 환경봉사
	특별행사 프로그램	환경캠페인활동 신입회원환영회 무료검진 실버봉사대 노인지도자훈련
	조사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3)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1989년 중부노인종합복지관을 시초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전환되었다. 노인복지관은 2009년 12월에는 전국에 237개소에 이르게 되었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그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노인복지

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게 각종 상담, 건강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61]

노인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관과는 달리 노인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대체로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노인교육과 관련된 항목은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교육, 노인학교 운영이 있으나, 각각의 프로그램이 기능별 사업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262]

사회복지관은 1921년 태화여자관의 설립이 시초이다.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제정 이후 1990년대에 양적 증가가 있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제공,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 제공, 주민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 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63]

2) 노인의 교육적 욕구

---

[261] 노인복지법 제35조.

[262]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243.

[263]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163.

박석돈 교수는 노후세대를 위한 노인교육의 향상을 강조하면서 "노인들도 생활의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264]를 갖고 있다고 했다. 노년기의 학습에 대한 욕구는 여가이든 직업을 위해서든 향상을 위한 욕구임에 틀림없다. 또한 향상을 위한 욕구의 성취는 노년기의 건강과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노년기를 행복한 생활로 이끈다.

류종훈은 노인의 교육욕구를 크게 생활욕구와 학습욕구로 나누었고[265], H. Y. McClusky는 노인의 교육적 욕구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첫째, 환경적 욕구, 둘째, 표현적 욕구, 셋째, 공헌 욕구, 넷째, 영향력 욕구, 다섯째, 초월적 욕구라고 하였고[266], J. A. Thorson & S. A. Waskel은 노인의 교육욕구를 일곱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 둘째,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셋째, 후세대에게 문화를 전수시키고자 하는 욕구, 넷째,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욕구, 다섯째, 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욕구, 여섯째,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일곱째,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다.[267]

김종서(1982)는 노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건강관리 영역 등 4가지로 나누었고, Morstain &

---

[264] 박석돈, "노인의 욕구변화와 노인교육," *노인학연구 제2집*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 부설 노인학연구소 1998), 5.

[265]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474.

[266] 한정란, *교육노년학,*" 174-175.

[267] Ibid., 172-173.

Smart는 노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여섯 가지로 나타내었다. 첫째, 명성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한 외적인 관계(eternal expectations), 둘째, 새로운 이성 혹은 동성의 친구를 만나기 위한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s), 셋째, 직업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성 추구(professional advancement), 넷째, 타인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사회복지(social welfare), 다섯째, 가정 혹은 일의 싫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극(escape/stimulation), 여섯째, 자신의 이익과 내적 만족을 위한 지적 흥미(cognitive interest) 등으로 보았다. [268]

노인들이 교육적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그들은 인생주기에 있어서 노년기에도 계속적인 지식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자신의 삶과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족한 노후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노인의 욕구는 노인교육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은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 받는 어른으로서의 과업과 역할을 다하고 생의 마무리를 보람 있게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노인교육의 필요성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펴낸 『고령화 사회와 노인교육의 실천방안』이라는 연구자료에 의하면, “급격하게 출현한 노인 문제에 대하여 세대 간 갈

---

[268] 류종훈, *이론과 실제*,” 84.

등의 극복, 노화에 대한 준비, 고령화 문제의 확산으로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하였다.[269] 또한 노인교육은 "성공적 노화의 요건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할수록 노인교육은 노인 개인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270] 이 시대가 직면한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환경의 변화

사회변화의 가속화로 그 주기가 평균수명을 능가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을 선두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문화예술 방면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조류와 코드가 유행하고 있다.[271]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인간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인교육의 가치는 중요시 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는 노인들의 사회적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많은 노인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세대간의 차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가

---

[269]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와 노인교육의 실천방안* 통권 제18호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132-135.

[270]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222.

[271] 한국고령사회교육원,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http://cafe.daum.net/silver6090 (accessed October 17, 2013).

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재적응 교육" 이 절실히 요구된다.[272]

(2) 자조적 복지관의 확대

인구고령화로 인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복지개념은 일방적으로 주는 복지가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우고 적절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여, 정년 이후에도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사회변화에 의하여 제도 및 타인에 의존하는 노인생활에서 노인 스스로가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조적 복지로 복지관이 변화됨으로써 노인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노인교육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3) 학습사회의 도래

한정란(1993)과 양열모(1999)는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통적으로 "학습사회의 도래" 에 대해서 말하였고,[273] 오혁진(2007)은 "이른바 평생학습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누구나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274] 미래사회는 물질적 자원의 풍부와 여가의 증대로 인해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

---

[272] 류종훈, *이론과 실제*," 142.

[273] Ibid.

[274]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경기 파주: 집문당, 2007), 26.

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활성화되어 노인들도 교육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노인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곧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일치한다"고 하겠다.[275]

(4) 노인의 수명연장

의학의 발달과 영양과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절대적, 상대적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1995 년에는 평균수명이 73.5 세에서 2020 년에는 78.1 세로 늘어날 전망"으로 이렇게 연장된 노년기를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교육이 필요한 것이다.[276]

(5) 확대된 노령인구

노인의 수명연장은 곧 노령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령화 진입으로 그 수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는 "1995 년에는 5%에서 2020 년에는 14%로 늘어날 전망"으로 한국은 초고령

---

[275] 황려, *노인대학 참여노인의 교과과정 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 화성: 협성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8), 15.

[276] 류종훈, *이론과 실제,*" 144.

화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277] 이러한 고령인구는 더욱 늘어나 장래에는 노령인구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노령인구의 지원과 활용차원에서 노인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6) 노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

과거에는 노년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쇠퇴와 조락의 시기로, 노인을 회복 불가능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인간이 평생에 걸쳐 발달한다고 하는 "전생애 발달(life-span development)관점"의 등장은 노인을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대두하고 있는데 이제 노인을 노화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해 나가야 하는 존재 외에 사회를 위하여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존재로 보게 되었다.[278] 따라서 그들이 계발해야 할 능력에 초점을 둔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279]

(7) 노인 부양의식 약화

젊은 세대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 자녀

---

[277] Ibid.

[278] 한국고령사회교육원,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http://cafe.daum.net/silver6090 (accessed October 17, 2013).

[279] 류종훈, *이론과 실제*," 143.

의 부양의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노인부양에 대하여 38.3%는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7.8%는 '가족과 정부, 사회 공동', 18.4%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점차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과 정부, 사회 공동'의 비중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280] 산업화 및 현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경로사상이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젊은 세대 사이에 노부모 부양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노인은 물론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자녀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281] 그러므로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고령화에 따른 국가 인적자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노인교육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8) 노인의 욕구 변화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욕구는 변화한다. 장래의 노인들은 건강이나 안전, 안락한 삶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서 더 나아가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를 가지게 될 것으로

---

[280]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 (accessed October 2, 2013).

[281] 한국고령사회교육원,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http://cafe.daum.net/silver6090 (accessed October 17, 2013).

예측된다. 노년을 보다 건강하고 보람 있게 보내려는 욕구가 증대되어 노인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282]

(9) 세대 간의 갈등 증가

노인인구가 적은 시대에는 노인교육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조부모 역할 시기는 길어졌지만, 전통적 가족제도 붕괴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세대 간 접촉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한 시대 속에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오래 기간을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각 세대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서로 완전히 분리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283]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격차는 더욱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과 장벽은 더욱 커지고 잇다. 그러므로 세대 간의 접촉 훈련을 통해 세대 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인교육을 포함한 세대공동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

[282] 류종훈, *이론과 실제,*" 168.

[283] 한국고령사회교육원,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http://cafe.daum.net/silver6090 (accessed October 17, 2013).

결국 노인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인문제들에 대하여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터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84]

4) 노인대학의 교육적 문제

(1) 교육 목적성의 저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의 교과과정은 교과목 편성과 학습내용, 그리고 시간배정에 있어서 노인대학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대학 대부분이 교육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해 보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고 교과과정에 대한 계획도 세워 본 일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노인대학 운영자들은 노인대학이란 노인들의 고독감, 무료함 등을 달래주는 취미, 오락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는 정도로서 소기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대학의 교육내용이 노인들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것을 모방하여 선정하였거나 과거로부터 해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5]

(2) 교육환경(노인들의 지적 수준)의 변화

갈수록 한국사회의 노인교육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284]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224.

[285] 황려, *교과과정 욕구,*" 23.

노인들의 학력수준과 지적 수준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만해도 노인세대의 문맹률은 매우 높았는데, 이제는 노인들의 문맹률이 매우 낮아졌다. 더군다나 학력수준은 갈수록 높아져 이제는 대학졸업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대학교수나 학교교사, 의사나 고위 공무원 은퇴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학사학위뿐만 아니라 석사와 박사학위를 가진 각계의 전문가들도 많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1세대들로서 이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고, 상당한 전문적 지식도 갖추고 있는 세대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세대라면 가장 기초적인 교육으로도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전문화된 교육이 아니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3) 교사진의 전문성 부족

대한노인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강사진은 "대학교수, 전문가, 기타 사회저명인사로 구성한다"고 하였다.[286] 그러나 실제적 상황은 대부분의 노인대학이 재정적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황려는 그의 논문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비를 조달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운영을 위한 재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육내용면이나 교육의 질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287] 이러한 재정적 문제점은 전문지식을 지

---

[286] 대한노인회, "노인학교 운영규정," 1989, 35.

[287] 황려, *교과과정 욕구,*" 26.

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향상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회의 노인대학은 정부의 지원금도 극히 적은 수준으로서, 양질의 교사진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예산이 풍부하고 봉사할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큰 교회들은 비교적 노인대학의 운영이 어렵지 않으나 중소형 교회들은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봉사할 교사진을 구축하기도 어렵다. 거기에 전문적인 강사진을 완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본 노인대학에서도 일부는 전문적인 강사들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70% 가량의 강사진은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라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형 교회들은 자원봉사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모든 예산의 지원을 받는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비하면, 전문강사진을 구축할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4) 교사진의 영성 문제

교회의 노인대학이 세상의 노인대학과 분명히 차별되는 것은 기독교교육이 바탕이 된 신앙적 노인교육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강사진의 전문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신앙이 전혀 없는 비기독교인 강사들을 초청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것은 노인대학의 설립목적을 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지역의 노인들을 초대하여 그저 즐기는 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노인들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문성 있는 기독교인 강사들을 초청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강사비를 받는 대부분의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들이 비기독교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노인대학이 노인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게 될 이유가 된다.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 영성에 문제가 생기고, 영성을 갖추려고 하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본 노인대학의 외부강사들(5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1명 밖에 없다. 그들에 의한 교육은 신앙적 요소가 전혀 없는 비기독교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저 노인들의 흥미를 끄는 교육에 머물고 마는 것이다.

3. 노인교육의 전문성

1) 교사의 역할

교사는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서의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88] 교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학급에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학교에서의 역할

---

[288] 김명수 외,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2010), 23.

이고, 셋째는 사회에서의 역할이다.

첫째 학급에서의 역할은 효율적인 수업을 촉진하기 위한 학급상황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학급경영활동을 말한다. 이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 목표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 수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업방법을 선택하고 수업상황에 맞추어 수업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 학생들이 지적 성장과 더불어 통합된 전인적 존재로서 균형 있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생활 지도, 그리고 자신이 준비하고 수행한 내용의 각 단계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피드백이 되는 교육평가와 관련된 역할을 의미한다. 실제로 교육의 성공여부는 각 교사들의 학급경영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열성적이고 연구적인 교사가 경영하는 학급은 그렇지 못한 학급과 분명하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289]

둘째, 학교에서의 역할은 학교경영 참여자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교경영참여자로서 조직의 목표를 갖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획하고 조정하고 구성원을 배치하고 지시하고 협동하고 보고하는 일련의 경영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에서의 구성원 조직도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교장, 교감이 있고 선배, 후배가 있으며 동료교사도 있다. 따라서 교사도 상사에게는 좋은 협력자이자 보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료 간에는 좋은 벗으로서, 후배에게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290]

---

[289] Ibid., 24.

[290] Ibid.

셋째, 사회에서의 역할은 교사도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 교사의 직책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대역할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교사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모범적인 위치에 있을 것을 요구받고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며, 오늘날 강조되는 학습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교사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평생교육의 시대에 속한 교사는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계속 배워야 한다.[291]

'사도강령'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인 대한교육연합회가 1982년 5월 15일에 채택하고 공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2장에서 '스승의 자질'에 대해 표현하였는데, 총 다섯 가지 중에 노인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만을 선택하였다. 첫째, 우리는 확고한 교육관과 긍지를 가지고 교직에 종사한다. 둘째, 우리는 언행이 건전하고 생활이 청렴하여 제자와 사회의 존경을 받도록 한다. 셋째, 우리는 자기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데 주력한다.[292] 이 세 가지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교사의 정신적 측면, 교사의 생활적 측면, 교사의 전문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인 노인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91] Ibid., 25.

[292] Ibid., 29.

2) 교회의 역할

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사회복지를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크게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가치제공자의 역할이다. 사회규범을 사회가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성경적 정의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올바른 가치와 규범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회문제의 예방 및 잘못된 기존의 관행들을 교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문제 주창자로서의 역할이다. 빈민, 장애인, 노인 등 이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국민을 상대로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끌어 갈 수 있도록 사회문제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다. 절대빈곤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적, 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구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케이스 매니저로서의 역할이다. 교회의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내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양자간의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이다. 지역사회의 교회는 지역주민들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93]

---

[293] 최운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화성: 협성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0), 10-11.

특히 노인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사교육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회에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켜 노인교육을 위해 봉사하도록 시도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294] 한 설문조사에서는 70%이상의 교회가 자원봉사 조직이 없으며 91%의 교회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295]

그러므로 교회는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대학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대한 체계적인 교사교육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지적 수준이 향상된 노인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며, 노인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증가하는 노인교육수요를 충당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황려는 그의 논문에서 부산에 소재하는 노인대학에 다니는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강사의 필요성에 대해 9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한다.[296]

3) 학습의 원리 적용

노인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학교교육의 연속선상에서 혹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습자들은 특히

---

[294] Ibid., 23.

[295] Ibid., 36.

[296] 황려, *교과과정 욕구,*" 47.

수업에서 다루는 과제의 성격이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리적이고 비인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노인을 위한 교수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학습의 원리(self-directed learning)

노인교육에서는 그 어느 교육의 영역에서보다도 학습자의 역할이 더 크게 강조된다. 노인교육은 강압적, 타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노인들의 흥미에 입각한 자발성”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297] 노인교육은 형식적인 학교교육과는 달리 교수자에 의해 필요한 지식들이 학습자에게 전달되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에 따라 학습의 내용이 구성되어 간다. 교사 중심적인 설명 위주의 강의보다는 토의식 교수나 문제해결 중심의 과제 수행, 실험과 실습, 견학, 회상 등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이 보다 많이 요구된다.

노인대학의 특별활동은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학습 영역들을 세분화하여 각각 관심에 따라 학습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는 게이트볼을, 춤이나 에어로빅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는 튼튼체조, 요가, 현대무용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는 합창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는 천연화장품만들기, 원예치료 등을 수강하게 될 것이다.

[297] Ibid., 18.

(2) 유의미 학습의 원리(meaningful learning)

노인 학습자들은 학습과제가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친숙한 것일 때 더 잘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발달단계, 직업, 관심사, 학습동기에 비추어 관련성을 갖는 유의미한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숙하고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과제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황려는 이를 "생활화의 원리"라고 했는데, 노인교육은 현실과 연결된 노인의 생활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298] 노인들은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그들의 과거 경험과 각각의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그들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3) 융통성의 원리(flexibility)

융통성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시간 조절의 융통성, 즉 자기보조(self-pacing)의 원리를 의미한다. 노인들은 시간 제한이 엄격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학습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융통성이다. 노인교육에서는 학습의 주제나 교수방법, 집단 편성 등이 형식교육에서와는 달리 보다 융통성 있고 학습자의 요구 중심으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노령화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로를 쉽

[298] Ibid.

게 느끼기 때문”이다.[299]

(4) 학습자 중심의 원리(learner-directed)

성인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역할이 일반적인 학교교육에 비하여 훨씬 더 중요하다. 즉, 노인교육에 있어 교수자와 노인학습자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진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노인들은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다른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목표 설정에서부터 충분한 참여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것의 제공은 학습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5) 상호존중의 원리

노인교육의 공간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온정적이어야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그리고 학습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노인 학습자들에게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에의 참여를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호 작용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교육은 “상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300]

(6) 노인중심의 원리

---

[299] Ibid., 19.

[300] Ibid., 18.

여러 다양한 연령집단이 한 데 모여있는 가운데, 학습에 있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은 바로 노인 학습자들이다. 오랜 기간 자의든 타의든 교육과 유리되어 있었고, 또 조심성의 증가나 여러 신체적 기능과 감각 등의 쇠퇴로 인하여 학습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교실 분위기나 환경, 과제의 준비에 있어 노인 학습자에게 최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려는 한국의 정서에 맞춰 경로사상에 바탕을 둔 "경로의 원리"를 주장하였다.[301]

(7) 직관의 원리

직관이라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이계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아 봄으로써 그 사물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직접 경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8) 개별화의 원리

노인들은 개인차가 매우 심하다. 노인들은 지적인 능력, 학력, 흥미, 성격, 경험적인 배경, 건강상태 등에 있어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노인교육에 있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은 인원수로 구성된 학습집단을

---

[301] Ibid.

만들고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9) 경험의 원리

노인들은 추상적인 내용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한다.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것,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에 유의하면서 수업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이다.

(10) 사회화의 원리

노인교육 중에서 사회봉사와 관련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사회봉사 활동은 노인들에게 사회를 위하여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들도 사회를 위하여 저렇게 일하는데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또 사회화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도와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노인교육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

(1) 한국교회의 노인대학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사무총장인 강채은 목사는 한국교회 노인학교에 대해 노인학교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선교 그리고 여가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는가, 이 정보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필

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노인들이 그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후의 재정 관리, 시간관리 또는 건강관리 이런 것들 것 종합적으로 교육" 한다고 하였다.[302] 전국적으로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2013년 3309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주시에만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노인대학이 고령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교회가 노인대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대학은 한국 노인들의 취향에 잘 맞는다. 한국 고령자들은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와 1950년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이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은 젊은 시절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부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지금의 많은 노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이러한 한이 이어져 자녀들 세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별난 교육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교육에 대한 한은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자신에 대한 교육의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의 노인교육은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실제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학위는 아니지만, college 또는 university 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3년간의 대학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곧바로 평생대학원에 입학하여 형식적이나마 석박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는 노인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

[302] CTS뉴스,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www.cts.tv/news/news_view.asp (accessed October 24, 2013).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의 고령자에 대해 비교 조사한 결과, 한국의 고령자는 다른 나라 고령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문, 잡지, 책읽기(10분) 보다는 스포츠 및 집밖 레저(47분)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03] 이것은 한국의 노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경로당, 복지관 및 노인대학 등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노인대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다수의 노인들에게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관한 경제활동 추이변화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각 년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체로 70%정도가 비취업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70%에 이르는 노인들을 수용하고 교육 및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65 세 이상 고령자 경제활동 추이>

(단위 : %)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65 세 이상	취업자	29.4	30.5	29.6	30.3	30.3	28.7
	비취업자	70.5	69.5	70.4	69.7	69.7	71.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셋째, 노인대학은 노인 전도의 기회이다.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303]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http://www.kostat.go.kr (accessed October 2, 2013).

현실 속에서 점점 늘어나는 노인의 비중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15년은 베이비붐세대가 60세가 되는 해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고령자들이 쏟아져 나와 인생2막의 대열에 합류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노인 전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때이며, 노인대학을 통해 노인들의 교육과 여가활동을 책임짐으로 노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는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2013년 제주영락 노인대학에 나오는 노인들의 종교현황을 설문조사해 본 결과, 개신교 47.8%, 불교 20.7%, 천주교 11.4%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략 절반 정도가 개신교인이며, 나머지 절반은 비개신교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대학 전체 정원이 2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주 대략 100명 정도의 비개신교인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도 드리고 특강 및 특별활동을 통해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영락노인대학 종교 현황>

종교	계	개신교	천주교	불교	없음	기타
수	140	67	16	29	23	5
비율	100	47.8	11.4	20.7	16.5	3.6

노인학교는 교회 노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역노인들도 포함하여 그들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시키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 주고 도와주는 교육봉사이다. 교회의 노인학교는 사회에 있는 노인들과의 접촉점이라는 점에서 선교의 좋은 계기가 될 뿐만 아

니라 교회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접촉점으로서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사회에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교회는 노인대학을 통하여 "폐쇄성이 강한 노인들을 교회로 흡하는 선교적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304]

넷째, 교회가 노인대학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노인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을 느끼고 다수의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을 설립하고 민간단체(대한노인회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 왔으나, 막대한 재정지출(시설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른 생계형 노인복지에 밀려 노인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태이며,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차원에서 노인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들(교육공간 및 교육자료들), 교사양육 및 채용, 학비보조에 상당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노인단체가 주도하는 노인대학의 대부분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체시설 없이 공공건물이나 개인소유의 건물을 주당 몇 시간씩 무료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305] 그러나,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대학은 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교회는 교육에 필요한 대상 노인들을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모

---

[304] 박창연, *노인복지 참여방안,"* 70.

[305] 황려, *교과과정 욕구,"* 27.

집이 가능하고, 성도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교사수급이 용이하며, 교회의 건물공간을 활용하여 상시 필요한 만큼 교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교회의 건물, 운동장, 교육관, 선교관, 식당, 주차장 등은 노인복지사업에 대단한 활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306] 심지어 한국의 교회들은 노인들을 위한 점심식사 대접과 교육자료 구입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교회재정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총회산하 전국노인학교연합회에서는 1년에 2회에 걸쳐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노인학교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교회들은 교회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여 노인교육에 필요한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충당할 수 없는 일부 학과들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들(유료)을 동원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제주영락 노인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예산은 연 480만원으로서 전체 노인대학 운영비 대략 3,700만원에 비하면 정부지원은 12.9%에 불과하다. 나머지 90%가량의 재정은 교회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 3,7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순수한 예산에 불과하다. 만일 실제로 정부가 노인대학을 운영해야 한다면, 건물건축비 및 임대료, 강사인건비, 기타 잡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그 비용까지 산정을 한다면 연간 7천 만원 이상의 비용으로도 부족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노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교인들을 통한 자원봉사자들[307]의 확보도 가능하므로, 예산의 절감효과가 매우

[306] 최운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 19.

[307] 한국의 젊은 세대는 대부분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자들이 많으며 석사 및 박사학위

크다 하겠다. 정부에서는 예산만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일반 민간단체들도 정부의 전적인 재정지원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 바로 노인대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적은 재정지원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교회 같은 종교단체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 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에서 이승렬 목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교회의 노인선교전략"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교회의 노인대학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는 교회성장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전에 일찍이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하였고, 고령화의 현상을 예상하면서 노년층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교회 안에 설치된 노인학교 혹은 노인대학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섬김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것은 노년층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의 유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품위 있는 어르신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노년의 삶을 한층 더 행복하고 보람되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섬김의 사역이었다. 노년층 여가교실 혹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일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 또는 자신의 꿈의 실현, 재능개발, 자신의 끼의 발휘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섬겨왔다.[308]

집에 갇힌 노인들, 홀로 살거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고령가구는 점점 증가세다. 이들의 생활반경은 대개 집안이다. 전영수는 이런 노인들을 "커튼에

소유자도 많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있다.

[308] 이승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교회의 노인선교 전략," *제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2012, 6.

가려진 채 쥐 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으로 표현한다.[309] 노인대학은 이런 노인들을 음지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실제 제주영락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비율이 50.0%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노인대학이 그만큼 독거노인들을 집밖으로 끌어내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노인들의 연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2)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한노연)는 1991년 예장 73회 총회 헌의안인 노인선교 대책수립을 위한 노인복지 선교활성화의 일환으로 뜻있는 교회들이 함께 창립하였고, 1997년 79회 총회에서 총회사회봉사부 산하기관으로 인준되었다.[310] 한노연의 설립목적은 "교회의 본질인 섬김의 한 부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에 도움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자"하는 것이며, 각 교회는 그 특성상 지역마다 있고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에 초교파적인 교회연합단체인 한노연을 통해 "각 지역의 노인들에게 길어진 노후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를 하며 참 복

---

[309] 전영수, *빈곤보고서*," 101.

[310]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http://www.kcas91.co.kr (accessed August 7, 2013).

음의 실천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311] 2013년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60개 교단 3,309개 교회에서 30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약 248,000여 명의 노인대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12]

'한노연'이 하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교회 노인 학교 지도자의 교육 훈련 세미나이다. 매년 2~3회씩 열리며 노인 학교 교사들의 재교육 및 재충전을 돕고 있다. 2013년 7월에는 제52회 노인학교 지도자 교육 훈련 세미나가 전국교회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로 다루는 세미나 주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노인교육, 노인선교, 노인상담,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이다.[313] 둘째, 노인 학교 교재 개발 및 관련 서적의 출판이다. 노인 학교를 시작하려는 교회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 복지 및 노인 문제 전문가들의 글들과 서적, 다양한 세미나 자료집이나 노인 학교 종합 자료집들을 발간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 형성 및 노인 학교 운용에 관한 컨설팅이다. 한노연은 총회 및 노인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교회의 노인 학교 운용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314]

---

[311] Ibid.

[312] 이창희, "노인들의 천국," *제51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2013, 5.

[313]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연합회 소개," http://www.kcas91.co.kr (accessed August 7, 2013).

[314] 김광석, "노인목회현장탐방,"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2011), 131.

5) 외국의 노인교육 사례의 고찰

이미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복지학, 성인교육학, 노년복지학 등으로부터 노인교육을 분화, 발전시켜 노인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게 되었고, 철학적 근거와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노인교육이 실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나라들의 노인교육을 살펴보고, 연구하며, 밴치마킹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일은 한국 노인교육의 큰 유익이 될 것이다.

(1) 미국

미국의 노인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체계가 아니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행정가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1950년대 중반에 노인 교육이 시작되어, 1965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노인 교육은 사회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외적 지원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1971년 노인을 위한 백악관회의에서 McClusky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교육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인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전환점이 되어 1970년대에는 노인 교육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5년에 설립된 엘더호스텔(Elderhostel)[315]은 전국의 대학생이 중심이

---

[315] 노인학습여행(엘더호스텔)은 노인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1975년 사회 사업가이자 교육자인 Knowlton이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롭게 모험적인 기회를 경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 한 달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이다.

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 오락, 현장학습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노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전세계적인 노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316] 1975년 뉴햄프셔 대학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1984년 200개의 대학이 협조[317]하게 되었고, 2006년까지 참여 노인이 235,000명에 이르고, 약 1,600개 이상의 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협조하고 있다.[318]

미국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독감을 해소할 목적과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목적 노인센터[319]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에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퇴직자협회(AARP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는 1958년 Andrus박사가 설립한 기관이며, 설립목적은 노년기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향

---

[316]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164.

[317] M. B. Kinney, "Elderhostel : Can It Work at Your Institution?," *Adult Learning*, 1989, 3(1), 21-24.

[318]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239.

[319] 미국의 다목적 노인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대인서비스, 집단서비스, 지역서비스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물론이고 일반노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생활상담, 생활정보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이다. 둘째, 집단서비스는 노인들이 다목적 노인센터에 함께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 오락 프로그램의 제공, 사회적 활동지원, 점심식사제공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에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해 주는 일 등을 한다. 미국의 노인센터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장소에서 노인들의 활동과 서비스가 한번에 이루어지며, 시설이용이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상시키는 것이다. AARP는 정부 및 기타 공식적 기관들에 앞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실행, 간행물 제작, 자원봉사 활동 등을 수행하거나 노인들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조직이다. 이 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지만 중년 및 노인이 알아야 할 지침들을 설명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교육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지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320]

노인교육네트워크(Senior Citizens Activities Network : SCAN)는 50세 이상의 노인들을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예술, 인문학, 건강, 재정관리, 정보화, 사진, 사교춤, 음악감상 등 한 학기에 1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참여가 가능하고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비 형식으로 $3 이하의 기부금 납입을 요구하기도 한다.[321]

미국은 배움에 뜻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대학 중심의 노인교육을 실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Donovan 프로그램[322]', 둘째,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323]', 셋째, 'Ever Green 프로그램

---

[32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원, "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 http://cafe.daum.net/lepdrc (accessed September 4, 2013).

[321]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238.

[322] 이는 퇴직 전 준비교육으로 대학입학 및 편입을 허가하고 경우에 따라 학위취득의 기회도 제공한다.

[323]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고등학교 과정수료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학력도 인정받는다.

[324]', 넷째, 'Emeritus College 프로그램'[325] 등이 있다.[326] 특별히 미국은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직업기술 전수하기(Sharing Our Skills : SOS)[327], 노인학교 자원봉사(Senior Citizen School Volunteer Program)[328], 노인, 어린이 상부상조(Elders and Children Helping Each Other)[329] 그리고 세대간 이해증진(Intergenerational Learning Retreat) 프로그램[330] 등이 있다.

(2) 일본

일본의 고령자 교육을 이해하는 핵심은 '고령기의 적응, 삶의 보람의 확보, 자립, 사회참여'이며 동시에 이것이 고령자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다. 일본의 노인교육은 민간차원에서 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시행되었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부성뿐 아니라 노동성, 후생성, 사회보험청, 농림수산청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

---

[324] 보스턴 대학교에서 Ever Gree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 호기심이 있는 고령자라면 성별, 학력을 가리지 않고 강좌당 $15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청강할 수 있다.

[325] Emeritus 대학에서 은퇴한 교수들에게 교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26] 한국노인복지회, *노인복지연구 :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서울: 한국노인복지회, 1989), 40-42.

[327] 노인자원봉사자가 교사를 도와 학생들의 직업기술 개발을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328] 노인들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29] 어린이 양육시설에서 노인들이 어린이를 돌봄으로써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330] 노화에 대한 신화나 고정관념을 없애고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름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1990년에 생애교육진흥법이 재정되면서 문부성의 생애 학습국을 중심으로 생애 학습 체제 구축과 사회 참가 활동 강화를 위한 고령자 교육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고령사회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령자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331]

일본의 노인교육은 교육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일본은 노인교육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고 운영방법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미 일부 선도적인 자치체와 공민관 등에서는 1955년 중반부터 노인대학과 고령자 교실 등의 명칭으로 고령자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1965년 소수의 시정촌이라는 노인클럽에서 본격적으로 고령자 교육을 시행하면서 노인대학과 같은 강좌형태로 조직되었다.[332] 1987년에는 개설된 고령자 교실의 수는 945개, 수강자는 98,264명에 이르렀고, 같은 해 시정촌이 개설한 강좌수는 126개, 수강자는 7,109명에 이르렀다.[333] 계속해서 일본의 노인교육은 노인대학[334], 노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

[331]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165.

[332] 이병준, "21C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1999, 88-89.

[333] 한정란, *교육노년학* ," 59.

[334] 노인대학은 1년 2학기제로 운영, 시간은 40~60시간 수강하고 노인대학원은 노인대학을 수료한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노인대학의 심화과정으로 계속적이고 전문적인 학습 3자에게 40~60시간의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연속성을 가지고

단계를 심화해 나갔으며 교육시설 별로 테마를 특성화하여 연속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탁노소라는 노인복지기관을 두어, 심신의 장애 및 뇌 손상으로 오는 장애노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을 가족 대신 돌보아주며, 주로 생활지도, 건강진단, 양호, 일상동작훈련, 급식, 레크레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데이케어센터의 기능이 복지차원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장으로 연결했다는 점 등 교육적 기능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의 보람된 삶을 돕기 위한 종합사업으로 지역 내 노인교육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상호연계에 의해 노인교육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노인교육 촉진회의[335]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일본은 고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통신 교육을 활용하고 있으며, 1998년 1월부터 통신위성을 이용한 '스카이 퍼펙트 TV'의 CS 디지털 방송에 의한 전국 방송을 개시하여 학습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대학의 전문적 기능을 개방함으로써 학습의 기회를 널리 사회인에게 제공하고 있다.[336]

있으며, 노인대학이자 노인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고령자 자원봉사 양성강좌', '고령자 생애학습 지도자 양성강좌'와 같이 사회에 환원하도록 일종의 강사양성까지 하고 있다.

[335] 이는 시정촌의 교육위원회, 시정촌의 고령자 교육 담당자, 노인클럽 대표, 학식 있는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고령자 교육에 대한 조사, 정보 교환, 상호연계 등을 추진한다.

[336] 강용규 외, *노인복지론,*" 240.

(3) 독일

독일의 노인교육은 대학중심의 노인교육과 노인학습자들의 특징을 배려한 노인교육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대학의 수많은 강좌며 전문교수들은 다양한 노인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학비가 면제되는 독일 대학시스템은 노인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학교졸업코스를 통해 정년퇴직 후 다시 학교 공부를 계속하려는 노인들의 학습욕구 또한 충족시키고 있으며 노인들의 특징을 배려하여 등, 하교시 미니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강의실 역시 첨단의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추는 등 학습자의 특성에 배려한 노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노인대학'이라 명명하며 증가하는 노인의 학문적인 학습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독일에서의 노인대학이라 함은 대학중심의 노인대학을 말하며, 대학에 있는 수많은 강좌의 전문 교수들은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 개설된 정규과목 대부분을 청강할 수 있고, 소정의 청강료만 내고 있으며 그나마 60세 이상인 자는 면제혜택을 본다. 독일에서 정식 노년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도르트문트대학과 하이델베르크대학이 있고, 노인들을 위한 학과목이 개설된 대학도 약 50개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노인들에게 재교육 혹은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의 가능성이 부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라면 제공된 기회를 이용하고 은퇴 생활기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활동성의 훈련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이다.[337]

시민대학은 공공기관 혹은 시설로서 시민들의 교육과 만남의 장소이며, 독일 각 주마다 주 단위연맹(시민대학연합회)를 갖추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는 주중강좌, 교양 및 체험을 위한 여행 등이 있다. 교육의 주 내용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정치, 문화, 고향의 역사, 환경과 자연보호 등이며 그 외에 컴퓨터강좌와 직업교육 등이 있다.

[337]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원, "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 http://cafe.daum.net/lepdrc (accessed September 4, 2013).

V.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불과 20년 이내에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골치거리가 될 것이며, 만일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 문제에 맞닥뜨린다면 한국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먼저 노인세대가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노동력 감소의 측면을 조명하고, 이로 인한 고령화와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나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노인인력 활용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사회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013년 10월에 발간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3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인구는 5천만에 조금 못 미치는 4천 93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338] 세계 인구는 71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한국의 평균

[338] 아이팜뉴스," 인구협, 2013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http://www.i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6 (accessed November 5, 2013).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출산율로 인해 한국은 2025년부터 인구증가율이 점점 감소해 2050년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339]

한국은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340] 은퇴준비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박동석은 『고령화 쇼크』에서 한국의 고령화 현상을 "광속의 고령화"라고 묘사하였다.[341] 2013년 한국의 '노령화지수'[342]는 2012년 "77.9%에서 5.4%포인트나 상승"한 사상 최대의 상승폭이며,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 8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 41.3%인 것과 비교할 때 갑절이상으로 상승한 상태다. 2013년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2012년 11.8%에서 0.4%증가한 12.2%로 전망된다.[343]

한국인의 인구 모형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형이

---

[339] 조선일보, "세계 인구 71억명 돌파, 한국 출산율은 거꾸로 세계 3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31/2013103100988.html (accessed Nobember 5, 2013)

[340]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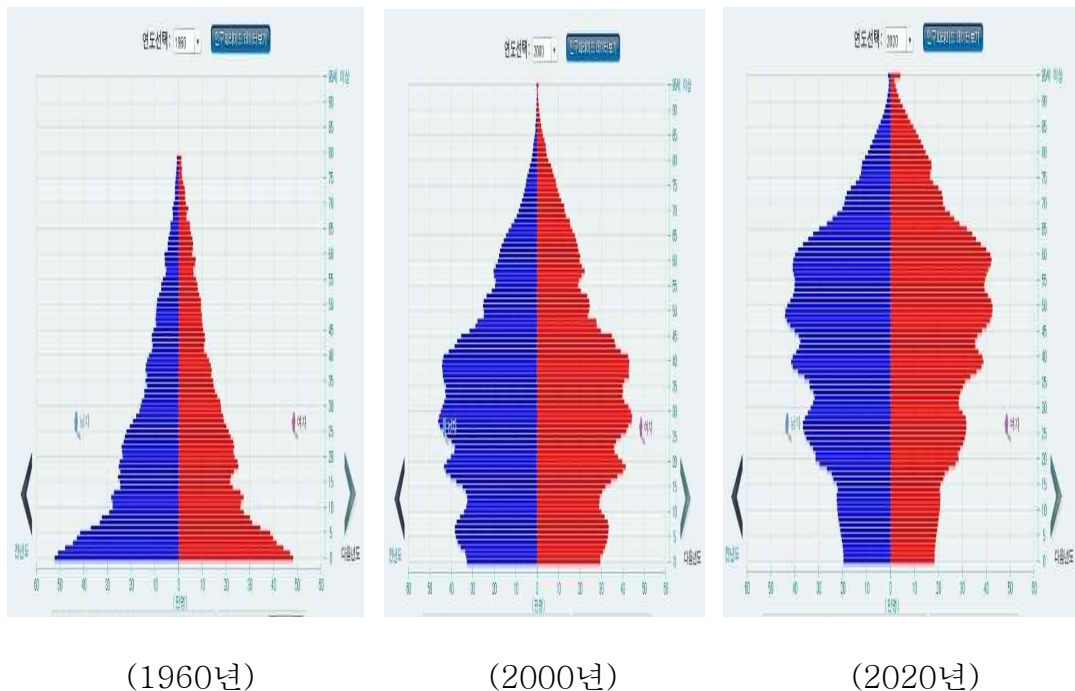
[341] 박동석 & 김대환 & 이연선, *고령화 쇼크*," 16.

[342]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1978년 처음 10%를 넘었고, 1990년 20%, 1998년 30%선을 각각 넘어섰으며 2006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343] 연합뉴스, "경제활동 참가율 50%대로 추락 전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08/0200000000AKR20130308180500008.HTML?input=1179m (accessed October 5, 2013).

었다. 이러한 인구 모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점점 바뀌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종 모양의 인구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2025년경의 한국의 인구 모형은 밑바탕이 좁아진 장방형의 항아리 모형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344]

<한국의 인구구조변화>

(1960년) (2000년) (2020년)

자료 : 통계청, 인구구조변화 그래프

2) 노동력의 감소

[344]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23., 한국 고령화 현황보기는 http://sgis.kostat.go.kr/publicsmodel 을 참조하라.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8월 발간한 보고서 “Asian Decent Work Decade : Sustainable Growth and Jobs to 2015”에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2015년경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며,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이어가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345] 이렇듯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2015년부터 심각한 노동력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1958~1974년에 태어난 1,8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2015년부터 은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인구조절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출산율(2.1명)의 절반에 그친 것은 미래의 노동력 공급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국과 중국이 향후 10년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013년 10월 22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10년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충격을 겪은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 한국, 홍콩, 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346]

---

[345] 국제노동기구, “Asian Decent Work Decade : Sustainable Growth and Jobs to 2015,” http://www.ilo.org/Search3/search.do?searchWhat=asian+decent+work+decade&locale=en_US (accessed October 7, 2013).

[346] CNBC뉴스, http://www.cnbc.com (accessed November 7, 2013).

한국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일본에서 겪었던 사회적 현상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보인다. “흔히 일본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라는 비유를 많이 한다.[347]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의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 이런 현상이 한국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한국사회는 미래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경우, 2000 년 생산가능인구는 3,370 만 명으로 전 인구의 71.7%에 달해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2016 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50 년경에는 전 인구의 55.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348]

이처럼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률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2012 년 고령자고용률은 63.1%로 전년대비 1.0%상승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349], 고용률, 취업률은 2003 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 년 이후, 고용률은 2007 년 이후 계속 6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음의 각 나라별 비교표를 보면, 한국의 고령자고용상황이 선진국들에

---

[347] 전영수, *빈곤보고서*," 11.

[34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accessed August 19, 2013).

[349]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하고 있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노동시장으로 들어와 구직할 의사가 업는 사람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 고령화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며, OECD 평균을 따져도 그보다 다소 상회하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의 국제비교>

(2010 년 기준,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	스웨덴	OECE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62.7	64.9	59.6	62.5	68.7	62.7	42.5	74.6	57.5
고용률	60.9	60.3	56.7	57.7	65.2	60.6	39.7	70.6	54.0
실업률	2.9	7.1	4.9	7.7	5.0	3.3	6.7	5.3	6.1

자료 ： OECD “2011 Employment Outlook”

그러나, 한국의 고령자의 고용상황은 2003년 이후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및 취업지도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350]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베이비붐세대가 60세에 달하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력난이 시작될 전망이다.

[350] 김승택 외, *고용과 성장* (서울: 전영사, 2009), 3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수혜자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351] 2013년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며, 베이붐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1990년대 이후 줄곧 60%대로 유지됐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부터 50%대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총 경제활동 인구는 2천540만3천명이었는데 반해, 2013년에는 2천481만9천명으로 추정되어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35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노령화지수 추이>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노령화지수
1985	56.6	1559.2	14.2
1989	59.6	1802.3	18.2
1990	60.0	1853.9	20.0
1995	61.9	2084.5	25.2
2000	61.0	2206.9	34.3
2005	61.8	2368.9	47.3
2010	60.7	2466.1	68.4
2011	60.9	2500.4	72.8
2012	61.1	2540.3	77.9
2013	59.3	2481.9	83.3

[351] 연합뉴스, “올해 경제활동참가율, 80년대로 후퇴,” www.yonhapnews.co.kr (accessed November 7, 2013).

[352] 연합뉴스, “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는 경제활동 참가율”, www.yonhapnews.co.kr (accessed November 7, 2013).

자료: 통계청 각년도.

2. 고령화와 노인문제

1) 고령화 현황

세계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Frank Schirrmacher는 “대규모 징집령이 내려졌다”고 하고[353], Ted C. Fishman은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거대한 노년층의 도래가 시작하고 있다”고 말한다.[354] Fishman은 계속해서 “고령화하는 세계가 지구에 수천 억년이라는 인간의 삶을 짐 지울 것이라고”하면서, “생명연장의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동안, 우리는 그 추가된 세월들을 생기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노인들이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활발한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계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노인들의 보호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또 누가 실제로 그 일들을 할 것인가? 수천억 년의 늘어난 세월은 제2의 행성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355] 정옥분은 이것을 “노인붐(Senior Boom)현상”이라고 표현한다.[356]

일본의 경우,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는 2천5백만 명 감소할 것이며,

---

[353] Frank Schirrmacher,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05), 17.

[354] Fishman, *회색쇼크*," 12.

[355] Ibid., 28.

[356]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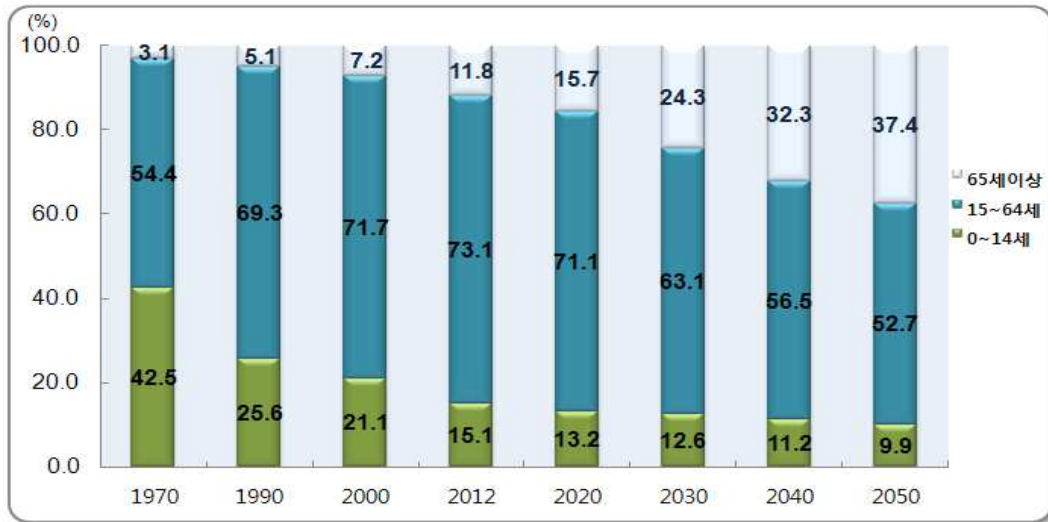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지금은 늘고 있지만 2050년에는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인인구 비율은 젊은이나 중년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10명중 3명이 65세 이상일 것이며, 75세 이상 인구는 6명중 1명, 80세 이상 인구는 10명중 1명이 될 것이다. 이 비율은 지금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5%로 늘어나 지금보다 3배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때는 절반 정도가 40세 이상일 것이다.[357] 2050년이 되면 중국 한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전세계 노인 인구만큼 늘어날 것이다.[358]

한국의 인구추이를 보면, 어린이 세대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자는 급속도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10년 11.0%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357] Fishman, *회색쇼크*," 25-26.

[358] Schirrmacher, *고령사회 2018* ," 20.

<연령계층별 인구>

(단위 : %)

	1970	1990	2000	2012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2.5	25.6	21.1	15.1	13.2	12.6	11.2	9.9
15~64	54.4	69.3	71.7	73.1	71.1	63.1	56.5	52.7
65 세이상	3.1	5.1	7.2	11.8	15.7	24.3	32.3	37.4
65~74 세	2.3	3.5	4.9	7.1	9.0	14.6	15.8	15.3
75~84 세	(0.8)	(1.6)	2.0	3.8	5.1	7.2	12.4	14.4
85 세이상	-	-	0.4	0.9	1.6	2.5	4.1	7.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지구촌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UN에서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한 것은 그만큼 지구촌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는 선, 후진국을 막론하

고 경제발전의 시대였고, 그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금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되었다.[359]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령화 속도가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현황 비교>

(단위 : 년도, 년수)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것은 서구 사회가 완만한 진행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정착시키면서 대비해 온 것

[359]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31.

에 비해 노인문제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문제의 해결시간이 단축되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360]

박형근은 최근 발표한 연구자료에서 오는 2025년 제주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21,490명으로 전체인구 569,433명의 21.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인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30년 26.0%, 2035년 30.6%, 2040년 35.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는 1996년 노인인구 비율이 7.0%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2010년 노인인구 비율은 12.6%이다.[361]

제주영락교회의 상황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은퇴제직 및 70세 이상의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는 한 해에만 은퇴집사의 수가 약 20여 명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매년 평균 5명 정도의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노년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 세대는 해마다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대학은 2013년에는 245명의 노인들이 입학신청을 하였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노인대학에 대한 교회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요구도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현재 200명 중반 수준의 노인대학 정원을 300 이상

---

[360] Ibid.

[361] 연합뉴스, “제주 2040년 노인인구비율 35% 달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5/0200000000AKR20121005160900056.HTML?did=1179m (accessed September 5, 2013).

으로 올려야 하는 요청도 받게 될 것이다.

2) 고령화의 원인

Ted C. Fishman은 "세계적인 고령화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에 따른 결과"라고 말한다.[362]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된 탓이다. Frank Schirrmacher는 인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함께 머물기 시작했고, 시간은 정지한 듯 보인다. 우리 중 다수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동시에 이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한다.[363]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1905년 24세였는데, 1936년 37세이던 것이 1950년에 51.1세였고, 1970년 63.2세, 1985년에 69.0세, 1990년에 71.6세, 1995년 73.5세(남자 69.6세, 여자 77.4세), 2000년에는 74.9세(남자 71세, 여자 78.6세)이며 2020년에는 78.1세(남자 74.1, 여자 81.7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6)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시설 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04년 말에는 37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9%에 달하였으며, 2010년에는 53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에 달했다.[364] 이러한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

[362] Fishman, *회색쇼크,*" 30.

[363] Schirrmacher, *고령사회 2018,*" 19.

[364] 중앙일보, December 17, 2010.

등의 요인과 맞물려 앞으로도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65]

3) 노인문제의 원인에 관한 이론들

(1) 기능주의 이론[366]

기능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상호 의존된 체계로서 이해하며 역할의 분화를 사회발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안정과 통합, 가치합의를 주장하고 개인이 성공적으로 사회화됨으로써 사회의 요구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여 자신의 지위에 적합한 역할 수행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기능주의자들의 주요 관점은 노후의 역할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적응을 강조함으로써 노인문제를 사회 부적응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노년기의 취미활동에 심취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의 변화된 역할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이 원만한 노후를 영위하는 적응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은 노인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사회변동에 적응하도록 사회화하는데 실패하거나, 사회체계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노인집단의 새로운 욕구에 사회가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노인

---

365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447.

366 기능주의 이론은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A. Comte와 사회유기체설을 주장한 H. Spencer에 의하여 기초가 형성된 뒤에 Drukheim, 이태리의 사회학자 V. Pareto, 인류학자 B. Malinowski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되었고, Talcott Parsons에 이르러 포괄적인 사회학이론으로 정립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기능이론에 토대를 둔 기술기능이론, 인간자본론, 근대화론 등이 하위이론을 등장하였다.

문제가 발생한다. 즉 노인들이 사회에 대해 역기능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다.

(2) 갈등주의 이론

마르크스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모든 사회현상은 대립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모순은 새로운 사회체계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크게 변증법적 갈등주의와 기능적 갈등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갈등주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문제의 원인은 비합법적인 사회통제와 착취,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또는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이다. 갈등주의의 시각은 주로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의 조직과 구조 자체가 노인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산업화에 따라 희소자원에 대한 노인들의 통제력이 사라지게 될 때, 곧 재산의 통제, 가족에 대한 지배, 사회의 주요 지위에 대한 지배력이 사라짐에 따라, 지배 집단에 의해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노인문제는 사회문제가 된다.

(3) 상호작용주의 이론

관심의 초점을 개인간의 상호작용과정과 상호작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두는 이론적 시각이다. 그들에게 있어 사회문제는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어떤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낙인을 찍는 것, 어떤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의미도 사회화된 것, 또는 상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노인을 낙인 찍는 사회제도나 사회의 일반적 인식, 이차적으로는 사회적인 낙인에 영향을 받아 무능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노인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다. 특정시기의 어떤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사회 문제화된다.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해 전통사회에서는 지혜, 권력, 권위, 존경의 대상으로 이해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의존적이며 쓸모 없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징의 변화과정으로 노인문제가 발생한다.

(4) 교환주의 이론

대인관계의 행동, 사회적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과 보상을 반복적으로주고 받는 관계로 본다.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는 자원을 주고 받는 과정, 즉 자원의 교환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환이 단절되거나 불균형적 교환관계가 지속되면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원인은 교환자원의 부족, 고갈, 가치 저하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노인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저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재산, 소유, 통제권의 약화, 지식의 낙후, 종교적 전통에의 연결 약화, 핵가족화, 생산성 약화,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성의 약화, 상호의존성의 약화 등 교환자원의 약화를 경험한다. 이렇게 노인의 교환자원의 부족이나 고갈은 노인이 집단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교환관계를 형성하는데 열세적 지위를 갖게 하여 사회문제로 부각된

다.

(5) 현대화 이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축적되는 생활의 경험과 지식, 기술, 지혜가 삶의 기본적 원리로 작용하는 농업사회에서 노인들의 지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사회구조적 변화에 의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하락한다. 현대 사회는 교육의 보편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대중교육의 확대, 도시화와 같은 현대화 요인들이 인과적 과정을 거쳐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가 약화된다. 산업화는 자본주의 자체 발전원리에 의해서 경제조직, 사회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노인들이 갖고 있는 전근대적 가치관과 삶의 원리는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4)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고령화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이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빙산과도 같다. 준비 없이 맞으면 타이타닉호처럼 모든 게 파괴된다. 한 번 맞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평생토록 계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통은 나뿐이 아니라 후세들에게도 이어진다. 고령화는 핵무기, 테러, 지구온난

화 등과 함께 불안한 미래의 시계 속을 같이 돌고 있다.[367]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게는 "대응시간 조차 없는 무차별의 노후지옥"이다.[368]

전영수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출구 없는 노후난민"이라고 표현했으며, "인생 2막의 공포"라고 말한다.[369] Kofi A. Annan UN 사무총장은 2002년 4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제2차 세계 고령화 회의 연설에서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370] 그는 고령화의 충격 앞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선진국 사회보장제도도 위태롭게 됐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 파동이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경제,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371]

(1) 독거노인의 증가

1958년 시카고 대학에서 '노년학' 과목을 개설하여 20년간 성인발달과 노화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하였던 베르니체 뉴가르텐(Bernice Neugarten)은 "노인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

[367]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7.

[368] 전영수, *빈곤보고서,*" 12.

[369] Ibid., 240.

[370]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13.

[371] Ibid., 13-14.

있다" 라는 사설을 『뉴욕탐임즈』에 기고했다.[372]

현시대는 갈수록 노인 단독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가족 크기가 축소되고 있다. 1995년 가구당 평균 가족원의 수는 3.2명인데 2020년까지는 3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리고 또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이 크게 늘어나 1995년 전체노인의 약 40% 수준에서 60%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의존적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373] 일본은 고령자의 가족 동거 비율이 80년대 70%에서 2000년대 40%대로 떨어졌다. 타인과의 관계희박과 만혼 . 비혼화에 의한 고독증대 및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374]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인구 비율은 1990년 8.9%에서 2000년 16.1%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5년에는 18.0%로 증가했다. 최근 발표된 독거노인의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54만 여명, 2006년에는 83만 여명, 2010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119만 명으로 전체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35년에는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2000년 총 가구 구성비의 3.7%였던 것이 2010년 6.0%를 차

---

[372]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48.

[373]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38.

[374] 전영수, *빈곤보고서*," 38.

지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수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2010년 고령가구 가운데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34.2%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 88.1%의 독거노인들은 월평균 1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간간히 연명하고 있다는 것이다.[375]

<고령가구 추이>

(단위 : 가구, %)

	총가구	고령가구[376]	(구성비)	독거노인가구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44	3.7
2005	15,971	2,432	15.2	777	4.9
2010	17,359	3,087	17.8	1,056	6.1
2012	17,951	3,388	18.9	1,187	6.6
2020	19,878	4,772	24.0	1,745	8.8
2030	21,717	7,690	35.4	2,820	13.0

[375] 한국일보, "65세이상 독거 비율 10년새 2배 늘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51006185622126 (accessed August 12, 2013).

[376] 가구주의 연령이 65 세 이상인 가구

2035	22,261	9,025	40.5	3,430	15.4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제주지역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15%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도내 독거노인은 9천915 명으로 제주시가 6천827 명, 서귀포시 3천88명으로 발표했다.[377] 독거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와 단절된 채, 질병이나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직성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폐쇄적 삶을 살아가게 한다.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한 노인은 50.0%, 자녀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은 50.0%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2009년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비율(15%)과 제주영락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의 비율(50%)과 비교할 때,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 중에 독거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거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노인대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율도 현저히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노인대학은 독거노인들에게 있어 외로움을 달래고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증거이다.

(2) 노년부양비의 부담 증가

전 <인디펜던트>지 경제부장 Paul Wallice는 그의 저서 『증가하는 노령

---

377 KBS뉴스, http://jeju.kbs.co.kr/news (accessed September 12, 2013).

인구, 다시 그리는 경제지도(Agequake)』에서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는 2020년께 서방경제가 고령화 충격으로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며 ‘그 강도는 리히터 지진계로 9도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각국의 재정부담이 급격이 늘어나 세계경기가 사상 최악의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378]

2012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2명이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년 노령화지수는 77.9로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78명으로 2017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4.1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1990	2000	2012	2017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379]	7.4	10.1	16.1	19.2	38.6	57.2	71.0
노령화지수[380]	20.0	34.3	77.9	104.1	193.0	288.6	376.1
노인 1 명당	13.5	9.9	6.2	5.2	2.6	1.7	1.4

[378]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15.

[379]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38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생산가능인구 (명)[381]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1.

인구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불룩한 인구구조에서는 연금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 격돌도 예상된다. 노인들은 연금을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일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못 낸다며 버틸 것이기 때문이다. Walt Rostow는 그래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골치덩이가 될 수 있다” 고 갈파했다.[382]

<건강보험 의료비 현황(65세 이상)>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2007 년 건강보험통계지표」,「2008~2011 년 진료비통계지표」

---

[381]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382] Ibid., 8.

(3) 노인의 경제적 빈곤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후보장정책이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은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다수의 노인세대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격감이나 사회보장 미비, 자녀교육 과정에서의 과다지출, 질병 등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2009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39.0%이며,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61.0%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대부분이 ‘준비능력이 없거나’, ‘자녀에게 의탁’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383] 이것은 국가 경제성장으로 인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이 넘는 노인들이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84] 138만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7.4%로 전년 26.8%에 비해 0.6% 증가했다. 한편 2011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6.7%이며, 여자의 수급률(8.2%)이 남자(4.5%)보다 3.7% 높았다.

---

[383]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accessed August 12, 2013).

[38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011년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1인가구 532,344원, 2인가구 906,830원, 3인가구 1,173,121원, 4인가구 1,439,413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

(단위 : 명, %)

	총수급자(일반수급자)	65세이상 수급자	구성비	수급률	남자	수급률	여자	수급률
2008	1,444,010	382,050	26.5	7.6	100,772	4.9	281,278	9.4
2009	1,482,719	387,847	26.2	7.4	104,014	4.9	283,833	9.1
2010	1,458,198	391,214	26.8	7.2	106,723	4.8	284,491	8.8
2011	1,379,865	378,411	27.4	6.7	104,901	4.5	273,510	8.2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2011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총 180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31.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에는 16.1%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11년 연금 성격별로 65세 이상 연금수급자 비율을 보면 노령연금이 8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은 유족연금(11.3%)를 차지했다. 점차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들의 노후생활개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여전히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는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노인들도 있고, 여러 경제적 자산을 통을 수입을 얻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혜택을 받기도 한다. 고령자의 대다수가 사업이나 직장 등에 취업하지 않은 비취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미리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둔 연금이나 재산, 또는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

(단위 : 명, %)

	합 계	노령연금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385]
2005	703,508 (100.0)	635,190 (90.3)	3,911 (0.6)	64,407 (9.2)	16.1
2009	1,432,387 (100.0)	1,273,403 (88.9)	8,518 (0.6)	150,466 (10.5)	27.6
국 민 연 금	1,268,935 (88.6)	1,129,942	7,834	131,159	24.4
공무원연금	143,882 (10.0)	125,544	670	17,668	2.8
사 학 연 금	19,570 (1.4)	17,917	14	1,639	0.4
2010	1,606,025 (100.0)	1,420,822 (88.5)	9,608 (0.6)	175,595 (10.9)	30.0
국 민 연 금	1,428,414 (88.9)	1,265,781	8,847	153,786	26.7
공무원연금	155,778 (9.7)	135,117	742	19,919	2.9
사 학 연 금	21,833 (1.4)	19,924	19	1,890	0.4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통계연보」각년도.

제주영락 노인대학의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노인은 30.0%로 조사되었고, ‘보통이다’로 응답한 노인은 52.9%,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노인은 17.1%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10명 중 3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소득창출을 할 수 없는 노인세대들, 특히 주로 자녀들의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나타

[385] 연금수급률 : (각 연금 수급자 / 65세이상 추계인구) × 100

나는 어려움이다.

<노인대학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정도>

경제적 빈곤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수	140	18	24	74	9	15
비율	100	12.9	17.1	52.9	6.4	10.7

(4) 노인 범죄의 증가

일본은 고령화로 '망주노인' 혹은 '폭주노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는 노소갈등을 유발하는 민폐부터 사회후생을 저해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부적응 노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타카이 나오유키는 『단카이 몬스터』라는 책을 써서, 이들을 미쳐서 날뛰는 괴물로 표현했다. '착각에 빠져 사는 정년자', '시키기만 하는 관리직', '쓸 수 없는 베테랑', '쇼와(昭和 · 1925~1989)적인 인간', 그리고 '어린이 같은 아저씨'
일본 젊은이들이 보기에 단카이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뿐 아니라 집요하게 불만만 쏟아내는 인간군상이다. 퇴직을 했는데도 회사에 출근해선 이전 부하에게 이리저리 명령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고 한다.[386]

후지와라 토모미는 『폭주노인』이라는 책에서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폭주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폭주노인들의 행태들 즉, 가출소녀를

[386] 전영수, *빈곤보고서,*" 101.

유인해서 자택에 감금하고 성추행을 계속해 온 불량노인들, 이불 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웃집 주부를 총으로 살해한 노인, 동네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할아버지, 장시간 책을 읽는다고 주의 주는 편의점 점원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노인, 담배자판기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 앞사람이 꾸물거린다고 주먹다툼을 벌이다가 살인에까지 이른 초로의 남성, 거북 등에 구멍을 뚫어 개와 연결시킨 채 질질 끌고 거리를 산책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관을 물어뜯은 노인 등 때로는 잔인하고 불량스럽고 엽기적인 폭주노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387]

일본에서 실제로 발생하여 뉴스로 보도된 이 끔찍한 사건들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노인들이 저지른 범죄다. 흔히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지혜롭고 인자로워지는 반면 신체적으로는 나약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 이웃이나 사회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봐드리도록 경로사상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 주변엔 그런 상식과 달리 불가해한 언동으로 갈등을 빚고, 격노 끝에 잔혹한 폭행이나 살인도 서슴지 않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5 세 이상의 노인범죄 검거자가 1989 년 9,642 명이었던 것이 2005 년 46,980 명으로 증가했다. 16 년 사이에 총 고령자 수는 두 배 증가했는데 범죄자는 무려 다섯 배나 늘어난 것이다. 60 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2000 년 약 4 만 명이던 범죄자가 2005 년 7 만 5 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

[387] 후지와라 토모미, *폭주노인*, 이성현 역 (서울: 좋은책만들기, 2008)., 이것은 이 책에서 폭주노인들의 실제 범죄상황을 열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인범죄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노인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나 전문가 등도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도 없고 전문기관도 전무한 상태이다. 청소년범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 많은 대책과 시설들이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범죄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보다는 원한·분노나 경제적 빈곤 등 심리적·경제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 년 한국범죄심리학회에 발표된 '노인범죄의 동향과 심리' 연구에 따르면 노인 범죄자의 범행원인으로 원한과 분노(43.1%)가 가장 많았고, 부에 대한 욕심(20.3%), 공범자들의 유혹(9.4%)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388]

전체 노인 중 54.2%에 달하는 연금이나 저축이 없는 은퇴 노인의 경우 30 년 가까이 고정 수입 없이 경제적 고립과 노후 불안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 속에 전체 범죄 중에서 노인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 년 2.7%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0 년 5.7%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재산범죄와 함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폭력과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다. 전체 범죄 중에서 노인 강력범죄는 지난 2000 년 4.6%에서 2010 년 9.6%로 5.0%나 늘었다. 노인 범죄 원인 중 40.3%를 차지한 원한과 분노의 조절 장애가 강력범죄의 원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

---

[388] 경기일보, "고령화 시대 노인범죄, 급증하는 사건… 예방, 재발방지 무대책,"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129 (accessed September 11, 2013).

제 2011년 2월 22일께 평택의 한 가정에서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아내를 당구 큐대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다.[389]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에서도 노인들이 일으킨 잔인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보성의 한 70대 어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성추행하고 살해했으며, 한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태운 화재도 한 노인의 비뚤어진 이기심으로 인한 방화였다. 또 5년 전 수백 명을 사상케 한 대구지하철 방화 역시 정신이 온전치 못한 50대 남자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죄였다. 2011년 3월 SBS에서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노인범죄의 급증을 집중해부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390]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격분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끊임없이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기적인 노인들, 이런 노인들을 후지와라 토모미는 일명 '신(新) 노인'이라고 일컫는다.[391]

3. 성공적인 노화

1)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

[389] Ibid.

[390] Ibid.

[391] 후지와라 토모미, *폭주노인,*" 12.

노화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노년기를 단순히 4D의 시기 즉, 의존(depend-ency)과 질병(disease), 무능력(disability) 및 우울(depression)의 시기로 생각하고 노화의 부정적 측면만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노화라는 의미 속에는 발달이나 성숙과 같은 긍정적 의미도 내포할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 높은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갖춘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노년기를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가능한 시기로 인식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잘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잘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곧 성공적 노화를 의미한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1986년 미국 노년학회 연례회의(Fisher, 1995)였으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적 노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392]

성공적인 노화란 최상이고 독립적인 것이기보다는 조절하고 상호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한 퇴화를 늦추려고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증진시키려는 접근이다. 성공적인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사회적 건강으로 다차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의 또 다른 측면은 '잘 죽는 것' 또는 '좋은 죽음'이다. 환자중심의 서비스는

---

[392] 장휘숙,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 -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자료집*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7), 15.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에도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다.[393]

노화이론 가운데,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창된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이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교환가치의 확보 및 유지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노인 스스로 교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사회가 노인들에게 교환자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394]

2)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

실버산업은 노인의 인생을 위한 산업적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발달한다는 것은 노인들의 인생이 그만큼 윤택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은 새로운 소비주체로 인식되었고 기업들은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소비파워에 근거하여 노인 눈높이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숙은 실버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노인복지의 증진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395]

---

[393] Mclntyre 외, *노인작업치료,*” 4-5.

[394] 류종훈, *이론과 실제,*” 21.

[395] 이미숙, *노인산업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 화성: 협성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8), 7.

일본의 경우, 일본의 평균수명은 83세(2009년)이며 앞으로 90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억 2,700만 인구 중 65세 이상이 2,900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향후 2050년이면 노인부양율이 1대 1로 떨어져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다. 게다가 일본노인은 돈도 많아서 일본 가계 금융자산 1,453조엔 중 약 900조 엔을 65세 이상이 보유했다. 2010년 3월, 고령자 개별세대 평균자산은 5,679만 엔이다. 또한 상당수가 각종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고, 표준적인 노인가구 월평균 연금수입은 20만 7,574엔에 달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넘쳐난다. 은퇴 후 8만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의학기술 덕분에 나날이 평균수명이 늘고 있다. 일본노인이 소비시장을 쥐락펴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1990년대 이후 고령인구는 소비시장의 주력타깃으로 부상했고, 2015년 50세 이상 소비지출이 127조 엔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업계는 고령수요에 발맞춘 재화, 서비스를 내놓는데 사활을 걸었다.[396]

한국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세대로서, 돈이 많은 세대이다. 전영수는 "젊은 고객을 잡기보단 까다로워도 돈이 되는 고령고객을 보다 확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397] 키워드 '고령화'는 어쨌든 중요한 사업기회다. 실버산업이 각광을 받는 포인트는 결국 고령인구의 관심사와 정확히 중첩될 수밖에 없다.[398] 전영수

---

[396] 전영수, *빈곤보고서,"* 127.

[397] Ibid., 131.

[398] Ibid., 136.

는 고령인구의 3대 관심사를 건강, 삶의 보람, 생활불안 해소라고 보았다. 일본재계는 유력 소비계층으로 '신시니어부유층'을 선정해 이들의 소비심리를 읽는 키워드로 3F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3F란 Fun(여행, 골프, 자동차, 홈시어터, 레저, 식도락, 패션), Family(재건축, 인테리어, 전원주택, 별장, 애완동물), Future(웰빙, 자산운용, 컴퓨터 및 어학 등의 평생학습)다. 이는 향후 성장성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각광받는다. 세계최고의 노인국가답게 일본시장에선 다양한 경험, 노하우로 무장한 고령화 재화가 가장 빠르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 시장이야말로 향후의 성공가능성을 점치는 각축장이자 실험장이다.[399]

은퇴전략연구소(NRSI)는 실버산업이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잠재력 높은 신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실버산업에 대한 심층 취재와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400]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국적불명의 '실버 산업'이라는 용어 대신 '고령친화산업'[401] 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정한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이라는 측면에만 머물러 있다.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399] Ibid., 137.

[400] 토마토뉴스, www.newstomato.com/ 10.22.2012.

[401] 고령친화산업이란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 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것은 빈곤한 다수의 노인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402]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소득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한다.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하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취사, 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403]를 확대하며 기존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고령자 일자리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일자리 공급현황>

구분	종류	선발주요기준
공익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 폐현수막재활용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놀이터.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등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교육형	숲생태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통번역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기타 안내사업(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등	관련 외부교육 이수 여부 및 전문성

[402]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40.

[403] 노-노케어란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로서 건강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돌봄 서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건강한 노인들은 이로 인해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복지형	노노케어(독거노인 돌봄지원,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등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시장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 가정도우미, 주유원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등.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자료: 보건복지부(www.mw.go.kr)

2012년 2월 용인시는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 공공분야와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등 민간분야로 나누어, 학교숲가꾸기사업, 실버케어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19개 사업단에서 500여명의 노인인력을 모집하였다. 실제 행사에 참여했던 노인들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404]

2012년 3월 연천군은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노노케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연천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직무 및 소양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활동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405] 또한 군 관계자는 "노노

[404] 분당신문, "용인,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개최," http://www.bundan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 (accessed September 12, 2013).

[405] 의양신문, "연천군 미산면, SNS 홍보대사 위촉 및 일자리창출 노노케어 양성교

케어 양성교육을 통해 노인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향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적극 도와줌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406]

실버시장은 다양한 미시시장의 집합체다. 핵심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요약되는데, 이는 신체, 기능적인 가령한계를 커버하는 콘셉트로서, 악력저하, 근력저하, 시력저하, 지각능력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버품목의 개발이다. 또 하나의 중대개념은 AD(Accessible Design)로서, 이는 단순한 장애제거설계 및 공용디자인에서 한발 진보된 개념으로, 장애, 연령에 무관하게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공용디자인을 의미하는 사고방식이다. 가령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넓고 큰 출입구라든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요리가 가능한 낮은 조리대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AD 보급비율은 최고수준으로 시장규모는 3 조 3 천억 달러(2007 년)에 육박한다.[407]

'배리어프리'와 'AD'개념은 노인대학 운영에도 적용되면 좋을 것이다. 장애인 및 노인편의 화장실,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테이블 및 의자, 미끄럼방지 시설, 야외휴식시설, 충격완화바닥재료, 뾰족한 모서리 제거시설, 교회대형버스 장애인 및 노인 승하차 편의시설 등 교회 및 노인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찾아서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육,"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21554 (accessed September 12, 2013).

[406] Ibid.

[407] 전영수, *빈곤보고서*," 138.

3) 고령인력의 활용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활동에서 퇴출되어 아무 직업도 없이 수십 년 동안을 소비활동만 하는 셈이다.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건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노인의 노동력이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되더라도 기피업종인 단순노무가 주를 이루어 과중한 근무시간에 젊은이의 절반도 안 되는 박한 임금 등이 취업노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제반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취업문제부터 난관에 봉착하여 있음에 노인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높아진 교육수준과 늘어난 노인수의 힘으로 큰 갈등과 혼란을 수반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적으로 미흡하고 질적으로 열악한 현재의 노인취업실태가 개선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취업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기술기능 등을 교육시키며, 각종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의 노인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나이 많은 노동자들은 퇴직으로의 멀고도 험한 길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젊어서 일한 시간보다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조기퇴직은 개인에게나 가족에게나 큰 슬픔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일을 해야 한다. 노인들을 떠받드는 데 드는

부담을 골고루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의 탄력을 떠받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408]

노년이 될수록 중년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수행하여야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노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409] Ted C. Fishman 은 그의 책 『회색쇼크』에서 미국의 새러소타라는 도시를 소개하면서, "노인들 사이에 자원봉사가 유행하는 것은 새러소타를 '활력 넘치는 노인사회'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었다. 새러소타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노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곳이라면, 노인들은 은퇴 후의 삶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410] '활력 넘치는 노인사회'라는 것은 노인들이 자유롭게 일자리에 고용되어 노인들이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퇴직한 아버지 세대의 공허함과 빈곤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고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무너진 사회공동체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411] 정부가 주도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

---

[408]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21.

[409] 고동우, *여가학의 이해* (서울: 세림출판, 2007), 272.

[410] Fishman, *회색쇼크*," 75.

[411] 연합뉴스, "노년층자살 '빨간불'.. 4년간 1만8천여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4/0200000000AKR20130904203500004.HTML?input=1179m (accessed September 12, 2013).

령자가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정부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령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 전에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12]

UN 은 1999 년을 '구제고령자의 해'로 삼았다. 이때 고령자의 5 원칙을 내놨는데 자립, 참가, 건강, 자기실현, 존엄 등이다. 본인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며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참가해 만족감을 느낄 때 사회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봐서다. 사실상 이 5 대 원칙은 '일하는 노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413] 전영수는 "가장 중요한 건 근로소득의 확보이다. 본연의 직업완성도를 높여 평생현역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금압박 없는 건전한 인생 2 막이 펼쳐진다"고 했다.[414] 육체적 건강은 정신건강과 직결되며 일거리는 정신건강을

412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138.

413 전영수, *빈곤보고서*," 391.

414 Ibid., 12.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일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은 노인에게 의료보험과 같은 소극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415]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얽매여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직업보다는 소일거리로 즐기며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가령 젊은이들의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젊은이들의 멘토나 선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노인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는가에 달려있다. 젊은이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얻는다면, 노인들은 이를 통해 경험과 기술을 전수해 준다.[416] 노인들이 평생 동안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노인들 스스로 노후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417]

예컨대,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논어나 효경, 노자 같은 경전이나 일제

---

[415]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497.

[416] Fishman, *회색쇼크*," 70.

[417] 류종훈 외, *이론과 실제*," 319.

강점기부터 근대사에 이르는 역사, 조각보 만들기나 전통 장 담그기, 떡 만들기 혹은 한지공예 같은 전통 기술, 그리고 오랜 경험이나 직업경력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노인 교수자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에게는 보람과 자존감을 줄 수 있고,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는 깊이 있는 학습과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기 차기, 연날리기, 새총놀이, 자치기, 실뜨기 같은 전통 놀이도구 만들기와 놀이법을 노인들이 지도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도 노인과 어울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할 수 있다. 또 교회 부설 보육시설에 자원봉사자나 보조교사로 노인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려서부터 노인과의 교류를 익히게 할 수 있다.[418]

어떤 학자들은 노년기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지적 기능은 성인기 동안 안정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반응속도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감소하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지식이나 지혜와 같은 측면에서는 증가한다고 주장한다.[419] 단지 연령만으로 노인의 은퇴시기를 결정하고 그들의 직업기회를 박탈하는 현 시대의 관습은 개혁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력 저하의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인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노후에 하고 싶은 활동은 근로(37%), 여가나 취미활동(33.1%), 종교(29.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

[418] 한정란, *교육노년학,*” 224.

[419]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139.

이 생각하는 노인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67.7%), 일자리 지원(12.1%), '건강증진 서비스'(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20]

노년기는 풍부한 인생 경륜과 지혜의 최절정기다. 비록 청춘의 에너지와 명민함, 기동성 등에서 뒤질지 모르나 노년기는 확실히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노년기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 사명에 있어 현격한 격차를 보일 수 있다. 교회는 노년기가 지닌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 이, 제 삼의 아브라함, 모세, 갈렙, 사도 요한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421] 교회는 노인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찍 설 자리를 잃은 건강한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통해 자원봉사와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해서 참여하게 해야 한다.[422]

다음은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예를 소개한 것이다. 2011년 11월 등불감리교회는 나이 지긋하신 노인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노인인력을 활용한 '외할머니 카페'를 운영하였다. 이 카페는 행정안전부까지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일부 예산도 지원받았다. 특히 교회가 자리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미래를 그려나가는 비

---

[420] 보건복지부, "2008 노인실태보고서," http://www.mw.go.kr (accessed September 12, 2013).

[421] 김명옥, "교회학교 노년부 신설 및 공과교재 설명," *제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교재* (서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2012), 41.

[422] 강윤구, "노인 인권에 대해서," *교육목회*," 100.

영리 사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외할머니 카페'는 71~77세까지의 노인들 6명이 하루 4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저녁 10시까지 한 사람이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시급 5000원이 지급되므로 노인 한 사람당 하루 2만원을 버는 셈으로, 노인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423]

박창연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가운데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교회나 지역교회 연합으로 노인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 노인들의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해 준다면, 이는 노동력 부족에 이바지할 수 있고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통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424]

---

[423] 기독공보, "아름다운 세상", 10. 5. 2013.

[424] 박창연, *노인복지 참여방안,*" 79.

VI. 제주영락 교회의 노인대학 실행

본 프로젝트는 교회의 노인대학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노인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반에 관하여 기술하고, 다음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세 가지 단계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노인대학에 대한 노인들과 교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준비단계이고, 둘째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실천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단계이고, 셋째는 노인대학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적용 단계이다.

1. 연구반(Site Team)

1) 연구반 명단

번호	성명	나이	직업	전공	직분
1	송 영 희	60 세	가사	사회복지 석사	집사
2	이 해 숙	54 세	가사	사회복지 학사	권사
3	김 인 영	51 세	가사	경영학 학사	집사
4	고 희 경	41 세	가사	농학 학사	집사
5	강 숙 희	54 세	가사	경영학 학사	집사

2) 연구반의 활동

연구반은 대부분 매주 노인대학 사역이 끝난 후 오후 2시쯤에 모였다. 노인대학의 하루 일정을 평가하고 나서, 논문 목표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설문조사가 있는 날에는 설문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했다.

(1) 제1차 모임

① 일시: 2013년 1월 8일

② 장소: 일품식당

③ 참석 인원: 6명

④ 내용: 연구의 개요 설명, 1차 설문조사를 위한 준비

(2) 제2차 모임

① 일시: 2013년 1월 13일

② 장소: 교회 교역자실

③ 참석 인원: 6명

④ 내용: 1차 설문조사 활동

(3) 제3차 모임

① 일시: 2013년 3월 5일

② 장소: 교회 노인대학 교사실

③ 참석 인원: 6명

④ 내용: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 전략 연구

(4) 제4차 모임

① 일시: 2013년 4월 9일

② 장소: 교회 노인대학 교사실

③ 참석 인원: 6명

④ 내용: 토론회 “노인의 소외해결”

(5) 제5차 모임

① 일시: 2013년 5월 28일

② 장소: 교회 노인대학 교사실

③ 참석 인원: 6명

④ 내용: 토론회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치유”

(6) 제6차 모임

① 일시: 2013년 9월 24일

② 장소: 교회 노인대학 교사실

③ 참석 인원: 6명

④ 내용: 토론회 “노인교육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7) 제 7 차 모임

① 일시: 2013 년 11 월 19 일

② 장소: 교회 노인대학 교사실

③ 참석 인원: 6 명

④ 내용: 토론회 “노인대학과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하여”

(8) 제 8 차 모임

① 일시: 2013 년 12 월 4 일

② 장소: 교회 노인대학 교사실

③ 참석 인원: 6 명

④ 내용: 논문 목표성취에 관한 평가 및 목회 유능성 평가

(9) 제 9 차 모임

① 일시: 2013 년 12 월 18 일

② 장소: 일품 식당

③ 참석 인원: 6 명

④ 내용: 논문 진행 평가

2. 노인대학의 실행

1) 의식 변화를 위한 준비

본 논문은 의식의 변화를 위해 2개월의 준비과정을 소개한다.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네 가지 방법들, 즉 설문조사, 홍보, 설교, 초청세미나 등을 가졌다.

(1) 설문조사

첫 번째 유형의 설문조사는 일반성도에 대한 설문조사(1차, 7차 설문조사: Appendix A)로서, 2013년 1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실시했으며, 동일한 설문지로 일반성도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의 요점은 노인대학에 대한 일반 성도들의 의식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며,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인대학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1차와 7차 설문조사 모두에서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노인대학이 열리는 요일이나 입학연령을 모르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 오히려 입학연령의 경우, 70세(11%)로 잘못 답한 성도들도 있었다. 노인대학에 대한 관심도는 1차와 8차에서 8.0% 포인트 정도 상승했으나, 여전히 관심도는 높지 않고, 대부분 ‘보통이다’로 응답했고, 일부는 ‘낮다’로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대학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의 노인들에게 노인대학 참여를 권유할 의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승(6.0% 포인트)이 있었다.

(단위: %)

설문	운영여부 알고있다	운영요일 알고있다	입학연령 알고있다	관심도 높다	도움이 된다	참여권유 의사있다
1차설문	96.0%	38.0%	39.0%	24.0%	92.0%	78.0%
7차설문	98.0%	16.0%	24.0%	32.0%	95.0%	84.0%

두 번째 유형의 설문조사는 노인대학 참가자들에 대한 실태조사(2차 설문조사: Appendix B)로서, 2013년 3월 둘째 주에 실시되었으며, 노인대학 참가자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의 요점은 노인대학에 나오는 참가자들의 삶의 환경 및 신앙에 관련된 실태조사였다. 매주 출석 평균 노인대학 참가자들이 180~200명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약 50~60여 명이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부', '글을 모른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인대학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은 2차, 4차~7차까지 총 5회의 설문조사가 있었다.

먼저,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실태조사(2차) 결과, 본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종교상황은 개신교(47.8%)가 제일 많았고, 다음 불교(20.7%), 천주교(11.4%) 순이었다. 또한 노인대학에 참가한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참가자는 12명(8.6%)로 조사되었다. 7차 설문조사(128명)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2명의 개종자가 더 추가되어 14(10.9%)명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질병치료 및 스트레스 해소와 사람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85%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30.0%가량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은 노인들이 57.8%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36.4%만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독거노인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유형의 설문조사는 단원 별 설문조사(3차: Appendix C-1, 4차: Appendix C-2, 5차: Appendix C-3, 6차 설문조사: Appendix C-4)로서, 2013년 4월 셋째 주, 6월 마지막 주, 9월 넷째 주, 11월 둘째 주에 실시되었으며, 노인대학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의 요점은 단원 별 프로그램 진행 후에 목표달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으로서 마지막 4단원 설문조사에는 단원 별 설문조사와 함께 한 해 동안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는 설문을 추가하였다. 네 번의 설문조사 자료는 각각 121명, 132명, 133명, 128명 등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전수조사라고는 할 수 없고, 60~70% 정도의 설문조사였다. 단원설문조사는 단원의 목표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이다.

단원설문지 1(Appendix C-1, 조사대상: 121 명)에서는 소외현상을 겪고 있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이 33.8%(41 명)로서, 그 중 은퇴가 소외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78.0%(32 명)였고, 노인대학이 소외의 감정을 치유하는데 85.1%(35 명)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소외와 소통에 관한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좋았다고 응답한 것은 63.6%(77 명)가 응답한 ‘소통 프로그램: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일잔치’였다.

단원설문지 2(Appendix C-2, 조사대상: 132 명)에서는 건강에 관한 질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46.9%(62 명)에 이르렀다. 또한 질병에 관한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에 '많이 받는다'이상으로 응답한 참가자는 83.9%(52 명)에 이르렀다. 노인대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90.9%(120 명)에 이르렀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관련한 프로그램 가운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55.3%)으로 조사되었다.

단원설문지 3(Appendix C-3, 조사대상: 133 명)에서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전문성과 영성에 관한 질문으로, 전문성이 있다('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와 영성이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는 각각 80.5%(107 명)와 71.4%(95 명)로 조사되었다.

단원설문지4(Appendix C-4, 조사대상: 128명)에서는 봉사활동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4.0%(82명), 노노케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0.1%(77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해서도 58.5%(75명)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네 번째 유형의 설문조사는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인식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2차: Appendix B, 4차: Appendix C-2, 6차 설문조사: Appendix C-4)로서, 3월 둘째 주, 6월 마지막 주, 11월 둘째 주에 실시되었으며, 노인대학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고, 내용의 요점은 목표달성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는 설문으로서, 2차(실태조사 설문), 4차/6차(단원설문) 설문조사의 후반부에 다섯 가지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수치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조사된 설문지 가운데 120개의 설문지를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다음 표는 '매우 높다'와 '높다'로 응답한 수치를 합하여 기록하였다.

(단위: 명)

	1차 조사(3월)	2차 조사(6월)	3차 조사(11월)
소외와 고독의 정도	42(35.0%)	37(30.8%)	30(25.0%)
스트레스 정도	45(37.5%)	36(30.0%)	32(26.7%)
노인교육의 전문성 정도	87(72.5%)	97(80.8%)	112(93.3%)
노인의 인력활용 정도	11(9.2%)	12(10.0%)	85(70.8%)
신앙적 도움 정도	32(26.7%)	46(38.3%)	57(47.5%)

소외에 관한 설문조사(Appendix B)에서는 3월에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정도가 큰 참가자들이 42명이었는데, 11월에는 30명으로 조사되었다. 총 12명이 감소하여 28.6%의 감소를 보였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Appendix C-2)에서는 3월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큰 참가자들이 45명이었는데, 11월에는 32명으로 조사되었다. 총 13명이 감소하여 28.9%의 감소를 보였다. 노인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3월에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느끼는 정도가 큰 참가자들이 87명이었는데, 11월에 112명으로 조사되었다. 총 25명이 증가하여 전체 설문참가자 중의 20.8%가 새로 노인대학의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노인의 인력활용에 관한 설문조사(Appendix C-4)에서는 3월에 노인인력활용 정도가 높다고 평가한 참가자들이

11명에 불과했고, 6월 중간조사에서도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1월 조사에서는 85명으로 급증했다. 노인대학의 신앙적 도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3월에 노인대학이 많은 신앙적 도움에 된다고 평가한 참가자들이 32명이었는데, 11월에는 57명으로 조사되었다. 총 25명 증가하여 전체 설문참가자 중의 20.8%가 새로 신앙적 도움을 얻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2) 홍보

첫째, 주보광고를 통한 홍보로서, 노인대학 등록일 (2013년 1월 20~22일) 3주 이전부터 주보를 통해 광고했다. 둘째, 전단을 통한 홍보로서, 노인대학의 일정 및 대략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한 전단을 등록 한달 전 주일예배 시 전 교인에게 배포하고, 영락복지관에 비치하여 복지관을 찾아오는 지역의 노인들에게 알렸다. 셋째, 노년부 광고를 통한 홍보로서, 주일 오후 노년부 예배 시 광고시간에 노인대학 총무를 통해 홍보하였다.

(3) 설교

예배 중 2회의 설교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노인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였다.

날짜	본문	제목	목표와의 관계
1월 20일	시92:14~15	결실하는 노년	노인에 관한 긍정적 인식
2월 17일	시90:12	노인의 지혜	노인대학의 교육으로 얻는 지혜

(4) 초청세미나

2013년 2월 셋째 주 주일 찬양예배 시에 한국노인학교연합회 사무총장인 강채은 목사를 초청하여 “교회의 고령화 시대 대책과 노인대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및 강의를 들었다. 주일 찬양예배 설교와 겸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여 세미나 시간은 1시간가량 소요되었으며, 교인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략 20~40대는 40여 명, 50대는 60여 명, 60대는 70여 명, 70대 이상은 80여 명 정도 되었다. 평소에도 예배 참석인원 중 노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세미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고령화는 심각하다. 사회도 고령화를 준비하는데 교회가 고령화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는 한시라도 빨리 노인목회를 해야 한다. 그 노인목회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노인대학이다. 노인대학은 지역의 노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노인전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목회를 하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 노인목회를 해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앞으로 점점 전망이 밝아지는 목회가 바로 노인목회이다. 나(강채은목사)도 개척을 해서 담임목사가 되었고 실제로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불과 3년 사이에 자립교회로 성장하였다. 나의 자리가 아무래도 노인연합회 사무총장이다 보니,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나 국회의원, 또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담당자를 만나거나 장관이나 차관을 만나는 일도 있다. 그들에게 한국교회 3300여 개 노인대학이 매년 약

49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매우 놀란다. 그러면서 만일 한국교회의 노인대학이 전부 노인교육을 포기한다면 고령화 시대 정부가 그 노인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으름장을 놓을 때가 있다. 노인대학은 고령화 시대 한국교회의 목회적 대안이다. 이미 갖춰진 교육공간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교회는 노인대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다."

(5)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지도자 세미나

2013년 1월 21일(월)~22일(화)까지 경상북도 '더케이경주호텔'에서 신광식, 황경자, 고희경, 송영희, 홍명진 등 노인대학 교사 5명이 참석하여 "장수시대와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들었다.

<세미나 일정표>

1월 21일(월)

~14:00`	접수 및 방 배정
14:00~15:00	개회예배 설교: 손달익 목사(총회장/서문교회) 인도: 이창희 목사(연합회 회장/함양교회) 축사: 보건복지부 격려사: 총회 사회봉사부, 우영수 목사(연합회 이사장)
15:00~15:50	주제강의 장수시대와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김기원 교수/서울장신대 사회복지대학원장)
15:50~16:40	특강1 2013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17:00~18:30	선택강의1 100세 장수레크레이션(권영복 원장/한국웃음리더십연구소)

	즐겁게 배우는 율동(소연숙선생/총회 전국강사) 회상동작치료(김영란 원장/회상동작치료연구소) 노인학교개설과 운영(강채은 목사/연합회 사무국장)
18:30~19:30	저녁식사
19:30~21:00	선택강의2 고누전통놀이(이원하 연구원/우리전통놀이연구회) 라인에어로빅댄스(선옥순 교수/포항공과대학교) 가곡+성가지도법(신현욱 교수/계명대학교) 노인복지와 노인선교(이재일 교수/명지대학교)
21:00~22:00	사경회 설교: 김동엽 목사(부총회장/목민교회) 총회

1월 22일(화)

06:00~06:30	아침 경건회: 배용주 목사(전 여수노회장/여수광림교회)
06:30~08:20	아침식사 및 온천욕
08:20~09:20	특강2: 노인학교 사례발표 ①. 광양금호교회(이창호 목사) ②. 안동교회(김승학 목사)
09:30~11:00	선택강의3 ①. 신명나는 실버워십(최한나 원장/왕의 춤꾼 워십아카데미) ②. 웃음운동 라이프건강체조(김순애 원장/라이프건강댄스) ③. 잘먹고 잘사는 웰빙코치(남병웅 소장(웰빙생활건강연구소) ④. 노인우울증과 자살예방(유덕수 박사(경기노인종합상담센터)
11:10~12:00	폐회예배 설교: 이창희 목사(연합회 회장/함양교회)
	특별공연 울산염포 실버들의 특별무대
12:00~12:30	선물 추첨
12:30~	점심식사 그리고 집으로

자료: 제51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2013)

2) 실천적 프로그램의 적용단계

본 프로젝트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8개월(여름방학은 제외) 동안 네 가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적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먼저 1월 중에 연구반원을 모집하고, 논문 연구를 위한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대학을 개강하기 이전 1, 2월은 목표를 노인대학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미리 계획된 '의식변화를 위한 준비단계'를 실행했다.

제1절. 목표1: 노인과 젊은 세대의 소통이 원활한 공동체

본 과정에서는 노인과 젊은 세대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제자훈련 및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소통의 필요성을 교육하며 실제적인 소통의 현장을 체험했다.

(1)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전략

2013년 3월 첫째 주 노인대학 개강 첫날에는 교사회를 열고 논문을 위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다. 2013년 3월 둘째 주 기독교인 노인 10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통해 노인들이 느끼는 세대 간의 소통상황을 조사하였다. 3월 넷째 주까지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였다. 2013년 3월 셋째 주까지 연구반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연구반의 최종 결정을 받았다. 2013년 3월 첫 주부터 노인의 소외, 고독, 은퇴문제, 세대 간의 소통, 세대공동체 등에 대한 분석과 성서적 이해를 주제로 총 4주간 설교를

하고, 2주간 노인제자훈련을 실시하였다. 2013년 4월 첫째 주에는 “소외의 해결과 세대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들었다. 2013년 4월 둘째 주에는 연구반원과 “노인의 소외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다.

(2) 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

① 설교 및 제자훈련

노인의 소외현상과 소외해결을 위한 노인들의 노력과 노인대학의 역할 등을 주제로 총 4회의 설교를 하였다.

■ 설교

날짜	본문	제목	목표와의 관계
3월 5일	출5:22-23	이스라엘의 고통	노인의 소외와 학대
3월 12일	신32:49	느보산에 오르라	노인의 은퇴
3월 26일	시 71:9	나를 떠나지 마소서	노인의 소외의 극복
4월 9일	행2:44	다 함께 있어	신앙적 세대공동체

■ 제자훈련

날짜	본문	내용
3월 19일	마16:16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4월 2일	요3:16	기독론: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② 실천적 활동

실천적 활동으로 인터뷰, 특강, 토론, 그리고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 인터뷰

2013년 3월 둘째 주에는 노인대학 참가자들 가운데 기독교인 10명(부부 거주 3명, 자녀와 거주 2명, 독거노인 5명[425])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느끼는 세대 간의 소통상황"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개인당 대략 20분 이내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10명 가운데 4명(자녀와 거주 1명, 독거노인 3명)에게서 소외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a. 질문: 젊은 세대와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교회의 젊은 세대와는 대화가 많은 편입니까? 젊은 세대와 소통이 잘 되시는 편입니까? 노인대학 교사들과의 소통은 잘 되십니까? 그나마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퇴 이후에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더욱 단절된 것 같습니까? 자녀와 자주 연락하십니까?

b. 답변: 노인들은 대부분(8명)은 젊은 세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2명만이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적지는 않다고 대답했지만, 대부분 대화상대는 노인들이라고 했다. 그나마 대화가 있는 젊은 세대는 절반(5명)이 가족들 곧 자녀들과 손주들이라고 답했다. 2명만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 비교적 가족과의 대화가 있는 편이었지만, 자녀세대와 떨어져 지내는 노

[425] 노인대학 참석 노인가운데 독거노인이 50%를 차지하므로 독거노인을 5명으로 정한다

인들은 종종 전화연락을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8명) 중 3명은 자녀들과 자주 전화연락, 3명은 종종 전화연락을 주고 받고, 나머지 2명은 자녀들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은 교회에서도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많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나마 교회 노년부의 교사들과 노인대학의 교사들과의 대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대학 교사들과의 소통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고, "교사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고 답변한 노인들도 있었다. 특히 대부분 은퇴 이후에 교회사역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의 대화도 더욱 단절된 것 같다고 대답했다.

■ 특강

2013년 4월 첫째 주 노인대학 예배 후 오전 10시 20분~11시까지 특강시간을 활용하여 약 40분 가량 노인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광식 목사에 의해 "소외의 해결과 세대공동체" 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특강의 대략적인 내용은 노인에게 일어나는 노화현상은 불가피한 자연적인 현상이며,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노인들에게 많은 소외적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은퇴는 노인의 소외적 상황을 더욱 부추기며, 소외적 상황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 풀어야 하며, 젊은 세대와의 대화와 교제가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토론

4월 둘째 주에는 노인대학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연구반(본인 포함 총 6명)이 모여 “노인의 소외해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회의 서기는 고희경 반원이 맡고. 토론회의 진행은 본인이 맡고, 주제에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 소통 프로그램: 어린이와 함께!! 생일잔치

분기별 총 4회(3/26, 6/18, 9/24, 11/12)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노인대학 생일잔치를 열었는데, 영락어린이집, 영락유치원, 또는 반석어린이집 아이들을 생일잔치에 초대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노인들의 생일잔치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 전반기 2회는 영락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참석하였으며, 후반기 2회는 반석어린이집 아이들이 참석하였다. 교사들의 지도로 몇 주간 연령별로 나뉘어 생일축하공연을 연습했으며, 생일축하잔치 자리에서 회당 3가지 정도의 공연을 했다. 공연완성도를 위해 연습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의상을 대여하여 공연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으로서, 분기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는 120명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87.5%), ‘만족’(10.0%), ‘보통’(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목표2: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치유공동체

본 과정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 및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았다.

(1)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전략

2013년 4월 셋째 주에는 연구반원을 모아 질병과 스트레스의 관계 및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치유방안 등에 대한 이론 및 시행전략을 소개하였다. 2013년 4월 셋째 주부터 총 4주간 질병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성경적 이해, 스트레스의 성경적 치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 등을 주제로 하여 설교를 실시하고, 2주간 노인제자훈련을 실시하였다. 2013년 4월 넷째 주와 5월 둘째 주, 두 번에 걸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3년 5월 셋째 주에는 보건소 직원을 초청하여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2013년 5월 넷째 주에는 연구반을 모아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치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2) 목적달성을 위한 실천

실천적 활동은 설교 및 제자훈련,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특강, 토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① 설교 및 제자훈련

노인의 질병과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성경적 이해, 스트레스의 성경적 치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 등을 주제로 총 4회의 설교와 2회의 노인제

자훈련을 하였다.

■ 설교

날짜	본문	제목	목표와의 관계
4월 16일	왕상 1:1	다윗의 노년	노년의 질병과 문제
4월 30일	창27:33	심히 크게 떨며	노년의 질병과 스트레스
5월 14일	고후12:9	온전하여지는 은혜	질병의 극복
5월 28일	막9:22-23	믿음의 치유	믿음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 제자훈련

날짜	본문	내용
4월 23일	요15:13	구원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5월 21일	마7:7-11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실천적 활동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4월 넷째 주, 5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 (총 3회)에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라는 주제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강사는 신광식(1차), 김정연(2차), 고희경(3차)으로서, 예배 후 특강시간을 활용하여 50분 가량 진행하였다. 4월 넷째 주에는 웃음치료를 중심으로 웃음에 대한 이론 및 웃음에 대한 실제적 적용을 다루고, 5월 둘째 주와 10월 둘째 주에는 레크레이션 중심으로 활동적인 움직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4월 넷째 주에는 “강의 및 웃음게임”으로 구성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해소문제, 웃음치료” 등의 내용으로 강의하였고, “억지로 웃기, 상대방의 웃는 모습 봐주기, 건강박수, 웃음박수(하헤히호후 웃음박수), 손등때리기 게임” 등의 실천행동을 후반부에 포함하였다. 5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에는 2차와 3차의 레크레이션[426]이 진행되었다.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박수, 치매예방박수, 훌랄라랄라 가위바위보 게임, 저승사자 퇴치법, 미꾸라지게임, Love 노래율동, 스트레스 잡으러 율동, 노래제목 끝말 이어가기, 가라사대 게임, 지글짝 보글짝, 칙폭게임, 동요율동 등이 있었다.

---

426 레크레이션 유의사항

① 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게임의 진행은 조금 못해도 된다. 단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분들 앞에서 재롱을 피운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한다.

② 진행의 포인트를 노인들의 건강에 중점을 둔다. 그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걱정을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부각시켜 게임을 진행한다. 실제로 노인들에게 게임은 많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③ 노인들에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준다. 게임의 시작에 앞서서 그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시작한다. 예를 들어 “자~~ 어르신들 오늘 저랑 재미있게 젊은 사람들처럼 놀아봅시다. 알겠죠? 오늘 저만 따라 하시면 마칠 때쯤 10년은 젊어지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④ 노인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는다. 그분들의 특성, 연령, 지식수준, 생활정도, 문화권 등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유교사상이 아주 강한 한 마을이 있었다. 이런 곳에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한다. “에구! 젊은이 노인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가?” 대상 노인들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진 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다.

⑤ 게임의 진행에 앞서서 환경을 정리한다.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시작 전 모두 제거한다. 노인들은 많이 산만하다. 조그마한 환경적 요소에도 분위기가 흐트러진다.

⑥ 노래를 많이 불러라. 노인들은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노래만 불러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 노래는 민요를 중심으로 트롯트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특징을 잘 알고 진행을 한다. 할아버지는 보다 정적이고, 활동량이 적고, 건강에 관한 강의 위주를 좋아한다. 할머니는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는 120명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75.8%), ‘만족’(10.8%), ‘보통’(8.2%), ‘불만족’(4.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특강

2013년 5월 셋째 주에는 “노인건강관리” 보건소관련 강사를 초청하여 노인대학 예배 후 특강시간을 활용하여 약 40분 가량 노인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의 내용은 건강관리를 잘하려면 식사조절을 잘 해야 하고,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아야 하고, 스트레스관리를 잘해야 하며, 친구를 많이 사귀고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토론

5월 넷째 주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치유”라는 제목으로 노인대학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연구반(본인 포함 총 6명)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서기는 고희경 반원이 맡고, 토론회의 진행은 본인이 맡고, 주제에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제3절. 목표3: 전문성과 영성이 있는 노인교육 공동체

본 과정에서는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노인교육 공동체를 성취하기 위하여, 설교 및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목표에 접근해 보려

는 시도였다.

(1)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전략

2013년 6월 첫째 주에는 연구반원을 모아 노인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전략을 소개하였다. 2013년 6월 첫째 주부터 총 4주간 노인교육의 이론, 한국의 노인교육정책, 노인교육의 실제, 노인교육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을 주제로 하여 설교를 실시하고, 2주간 노인제자훈련을 했다. 2013년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총 2회의 특강을 실시했다. 2013년 7월과 8월 방학기간 동안 교사들 전체가 책1권을 읽고 9월 2학기 개강 첫 주에 독서토론회를 가졌다. 2013년 9월 넷째 주에는 연구반을 모아 "노인교육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2) 목적달성을 위한 실천

실천적 활동은 설교 및 제자훈련, 특강, 독서토론회, 토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① 설교 및 제자훈련

노인교육의 이론, 한국의 노인교육정책, 노인교육의 실제, 노인교육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을 주제로 총 4회의 설교와 2회의 노인제자훈련을 했다.

■ 설교

날짜	본문	제목	목표와의 관계
6월 4일	마11:28	다 내게로 오라	노인대학에 참여함
6월 18일	시92:12-13	종려나무와 백향목	성전 안에서 받는 양육
6월 25일	딤후3:17-17	의로 교육하는 말씀	영적인 노인교육
9월 3일	레19:32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교육의 실제와 사례

■ 제자훈련

날짜	본문	내용
6월 11일	창4:7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인가?
9월 10일	행1:8	성령론: 성령충만은 무엇인가?

② 실천적 활동

■ 특강

a. 주제: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b. 강사: 신광식

c. 특강 내용

날짜	주제	내용
6월 4일	노인과 노화현상	노인의 정의와 범위, 노인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 노화현상, 노화연구에 관한 역사적 고찰
6월 11일	노인교육의 이론	노인교육의 의미, 범위, 필요성, 역사

9월 3일	노인교육의 실제1	노인교육 관련법과 정책, 한국의 노인교육, 외국의 노인교육
9월 10일	노인교육의 실제2	교회노인대학의 의의,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제주영락 노인대학

■ 독서토론회

7~8월 기간 중에 미리 독서기간을 선포하고,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427],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428], 『노인교육의 이해』[429] 중 한 권을 선택하여 9월 첫째 주에 노인대학 오후 교사모임 때 읽은 책에 대한 느낀 점이나 소감을 발표하였다.

■ 토론

9월 넷째 주에는 "노인교육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노인대학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연구반(본인 포함 총 6명)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서기는 고희경 반원이 맡고, 토론회의 진행은 본인이 맡고, 주제에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제4절. 목표4: 노인인력의 참여와 활용이 활발한 공동체

본 과정에서는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교 및

---

[427] Schirrmacher, *고령사회 2018.*"

[428] 류종훈, *이론과 실제.*"

[429]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1)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전략

2013년 9월 넷째 주에는 연구반원을 모아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시행전략을 소개했다. 2013년 9월 넷째 주부터 총 4주간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력과 경쟁력, 고령화 문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성공적인 노화, 노인인력 활용 등에 관한 설교를 하고, 2주간 노인제자훈련을 했다. 2013년 2학기 시작부터 노인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셋째 주부터 한달 간 노인대학 노인들을 섬기는 '노노케어'[430]를 실시하였다. 2013년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한시적으로 노인들로 구성된 노인대학 봉사팀을 운영한다. 봉사팀은 노인대학 홍보도우미, 노인대학 예배도우미, 노인대학 간식도우미, 노인대학 건강도우미 등의 사역을 하게 했다. 2013년 11월 셋째 주에는 연구반을 모아 "노인대학과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2) 목적달성을 위한 실천

실천적 활동은 설교 및 제자훈련, 특강, 독서토론회, 토론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① 설교 및 제자훈련

---

[430] 건강한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봉사활동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력 문제, 고령화와 노인문제, 성공적인 노화, 고령인력 활용 등을 주제로 총 4회의 설교를 하고, 2회의 노인제자훈련을 하였다.

■ 설교

날짜	본문	제목	목표와 관계
9월 24일	전1:2-3	헛되고 헛되도다	막을 수 없는 고령화
10월 29일	출2:23	고된 노동	노동력 부족
11월 12일	창43:27	안녕하시냐	성공적인 노화
11월 19일	행2:14-21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의 비전과 사역

■ 제자훈련

날짜	본문	내용
10월 8일	요15:26-27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11월 19일	마16:16-18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② 실천적 활동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으로서, “노노케어 프로그램”과 “노인대학 봉사팀”은 120명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65%), ‘만족’(20%), ‘보통’(13.3%), ‘불만족’(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노노케어

노인대학 안에도 특별하게 몸이 많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았다. 노인대학의 노노케어란 이들에 대한 건강한 자원봉사노인들의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여, 이들이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께 움직이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를 같이 해주고, 특별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는 봉사활동이다.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다섯째 주(한달 간)까지 이 기간을 노노케어 기간으로 선포하고, 노인들과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9월 첫째 주 개강일부터 노노케어 시작일 넷째 주까지 노노케어 대상자를 선정했고, 9월 첫째 주 2학기 개강일에 노노케어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2주로 하고, 봉사자가 지원하면, 노노케어 대상자와 연결하여 넷째 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했다. 한 달의 기간을 두는 것은 시험과정이기 때문이었다. 노노케어의 세 가지 수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a. 자원봉사자는 봉사대상자의 반과 특별활동에 참여한다.

b. 자원봉사자는 노노케어 기간 동안 봉사자와 함께 움직인다.

c. 자원봉사자의 중요역할은 대화상대자가 되며, 예배동역자가 되며, 급식도우미가 되며, 특별활동안내자가 된다.

후반기 진행된 노노케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원봉사자 9명이 지원하여 7명은 1명의 자원봉사자가, 2명은 2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하였다. 총 참가자는 케어자와 케어대상자를 합하여 16명이었다.

■ 노인대학 봉사팀

9월 첫째 주 2학기 개강일에 봉사팀에 관한 광고를 하고, 3주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넷째 주에 봉사도우미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봉사사역을 시작하였다. 교사들이 한 팀씩 담당하여 조언을 하거나 잘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게 하였다. 단,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봉사기간은 9월 넷째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매주 봉사시간은 오전 10시 예배 전 30분과 점심식사 후 30분이었다.

각 봉사팀은 예배도우미, 간식도우미, 건강도우미로 구분하였는데, 예배도우미는 매주 예배시작 전 예배실 출입문 안내를 담당하였고, 간식도우미는 매주 제공되는 간식을 테이블에 세팅하고 노인들에게 커피나 차 등을 제공하는 사역이었고, 건강도우미는 노인들 중에 은퇴 전 의료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며, 노인들의 혈압 및 혈당검사를 통한 건강체크사역을 담당하였다.

노노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 16명과 노인대학 봉사팀에 참여한 참가자 15명을 합하여 총 31명이 참여하였다. 그 중 케어대상자를 빼면 노인인력활용에 참여한 참가자는 24명이었다.

■ 토론

11월 셋째 주에는 ‘노인대학과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노인대학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연구반(본인 포함 총 6명)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서기는 고희경 반원이 맡고, 토론회의 진행은 본인이 맡고, 주제에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1) 1차 토론회(4월 둘째 주): 노인의 소외해결

연구반원들은 '노인의 소외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교회는 경로잔치 같은 행사들을 자주 개최하여 교회 안의 노인들뿐 아니라, 교회 밖의 노인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젊은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매년 1회의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1회 더 추가되어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노인대학에서는 노인들이 소풍이나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을 매우 좋아하므로, 교회적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여러 번의 야외활동 프로그램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노인과 교사들과의 소통성에 관심을 둔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소풍이나 체육대회는 함께 여행하고 게임이나 노래 및 춤도 출 수 있어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주영락교회는 교인수도 너무 많아 서로 간에 관심이 약하다면서, 특히 은퇴한 노인들은 사역에서 밀려나 더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교회 전체가 세대공동체의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를 보는 부정적 관점도 작용을 하지만, 실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일에 모이는 노인대학에서 노인을 위한 많은 소통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할 때, 분기별 노

인생일잔치 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실천해 보자고 하였다.

(2) 2차 토론회(5월 넷째주):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치유

진행자는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치유에 관한 몇몇 사례들을 소개함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스트레스는 적을 때는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효과도 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처럼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적 질병도 유발할 수 있다. 위장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의 노인들은 4.3사건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상황을 경험한 노인들이 많다. 그런 참혹한 역사적 스트레스는 노인들로 하여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치명적인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과도한 정신적 충격은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4.3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노인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노인대학은 예배와 설교를 통한 영적인 치료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설교는 치유 중심적 설교가 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격려하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3) 3차 토론회(9월 넷째 주): 노인교육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네 번에 걸친 특강이 노인교육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노인대학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노인과 노인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한 봉사였다. 노인을 위한 봉사자들은 노인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의 특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노인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교육의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얼마나 노인교육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론과 실제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어 보인다. 때로 학자들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론을 배우는 것은 지루한 면도 있다.

그러나, 목사님의 특강 중에 “노인에게는 무엇인가 꼭 지식을 전달해야 교육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소외와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노인교육의 실제”라고 강의한 것이 좋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노인교육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참된 노인교육의 실제가 되는 것이다.

(4) 4차 토론회(11월 셋째 주): 노인대학과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하여

노인대학은 노인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노인교육에 있어 ‘노인에 의한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노인들 스스로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찾도록 하는 것은 능동적인 노인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 동안 노인대학은 노인의 인적 활용에 관한 개념 자체를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교사들이 노인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노인 스스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섬김과 돌봄을 받는 것보다 노인들에게 더욱 유익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노인대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인적 활용'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다.

2학기 노인의 인적 활용을 위한 사역 가운데, 노노케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역이었다. 연구반원들도 노노케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요즘 사회에서 뜨고 있는 개념이고, 복지관련종사자들에게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역이라고 했다.

3.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적용단계

한국교회는 담임목사의 목회적 비전에 따라 교회의 시스템이나 구조 및 교인들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담임목사의 목회적 비전과 교인들의 비전이 일치될 때 그 교회는 노인들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과 재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최근 눈에 띄는 구조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의 핵심사역

노인대학이 담임목사의 핵심사역의 일부가 되었다. 미래 노인목회를 위한 중심에 노인대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노인대학 참가자의 규모를 10년 이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0명으로 확대하여 국내 최고수준에 이르기 위한 구상을 계획하고 있다.

2) 당회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변화

제주영락 노인대학은 1998년 노인대학이 설립된 이래로 교회부설 기관인 영락복지관 아래에 편입되어 운영되었다. 운영에 있어서는 교회에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었으나, 대신 교회가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은 당회 직속사역으로 편성되어 당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사역이 되었다. 담임목사의 목회적 비전에 따라 당회의 특별핵심사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

3) 노인대학 교사들의 세대교체

1998년에 시작된 노인대학은 초창기 시작한 교사진의 다수가 오랫동안 사역을 지속해 왔다. 그렇게 시작한 교사들은 교회에서도 권사직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균연령도 55~60세 정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최근 노인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하여 교사들의 평균연령을 45~50세 수준으로 낮추었다.

4) 교회예산 증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교회의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노인대학의 일년 예산을 3천만원 수준에서 3천 7백만원으로 증액하여, 노인들의 점심식사의 질을 개선하고, 여러 활동비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5) 노인교육 교사를 위한 양성 시스템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양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노인학교 교사양성을 위해서는 전혀 투자가 없었다. 교회차원의 노인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노인대학 안에서의 교사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6) 젊은 세대와의 소통 프로그램

노인목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노인목회가 가능하려면,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노인교육의 훈련생이 되어야 한다. 노인교육을 이끌어 가는 핵심은 노인 자신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대공동체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Ⅶ. 평가

1.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

1) 일반 성도에 대한 설문조사(100명, Appendix A)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 1월과 11월 두 번의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은 10개월 동안 일반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 성도들의 노인대학에 관한 관심도에 있어, 1차와 7차 설문조사가 8.0% 포인트 정도로 소폭의 인식의 변화가 보였다. 노인대학에 대한 홍보와 초청세미나, 교회적 관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대학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큰 폭으로 나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노인대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다소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2) 노인대학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128~140명)

2차 설문조사(Appendix B)는 노인들의 실태조사로서, 전반적인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의 종교상황(개신교 47.8%), 개종자(8.6%), 만족도 및 노인대학의 긍정적 영향(85%이상), 경제적 상황(어려움 30.0%), 독거노인상황(50.0%), 제주4.3사건경험(36.4%)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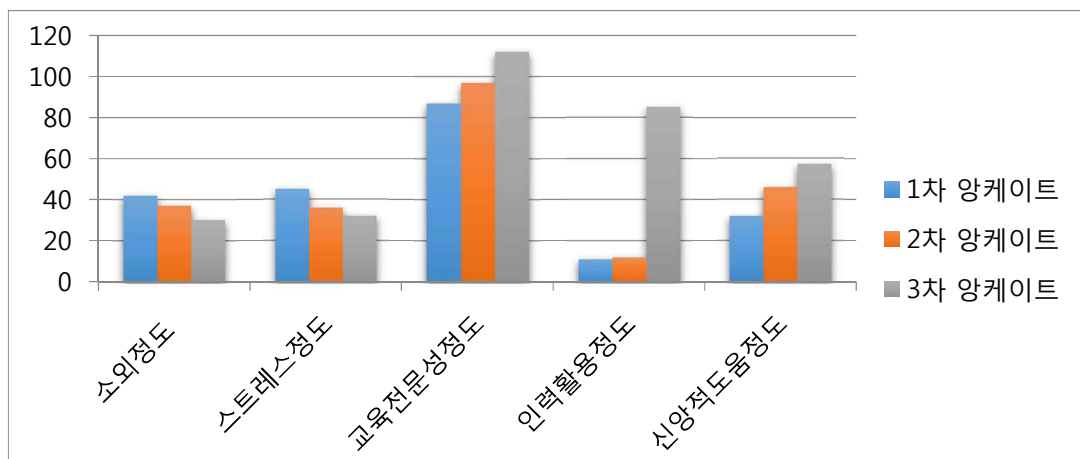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으며, 많은 독거노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소외상황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인대학을 찾는 노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설문조사는 단원설문조사로서, 단원설문지1(조사대상: 121명, Appendix C-1)의 조사결과, 소외현상을 겪고 있는 33.8%의 참가자들 가운데, 78.0%가 노인대학의 소외 해소효과를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소외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노인대학에서 실행하는 실제적인 세대 간의 소통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 단원설문지2(조사대상: 132명, Appendix C-2)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질병이 노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90.9%가 노인대학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원설문지3(조사대상: 133명, Appendix C-3)에서는 참가자들의 70%이상이 노인대학의 전문성과 영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관점에서 노인대학이 대체적인 전문성과 영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단원설문지4(조사대상: 128명, Appendix C-4)에서는 '봉사활동팀'과 '노노케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64.0%(82명)와 60.1%(77명)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반의 예상(대략 80%이상)보다는 높지 않은 수치로서, 봉사활동 및 노노케어가 예상보다는 각 노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활동한 노인들의 수가 너무 적

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보다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한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긍정적인 평가가 60%이상에 이르는 것은 대체로 성공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매 단원설문지 마지막 질문은 각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묻는 설문이다. 이 설문에 대해서 각 단원 별 긍정적인 응답자(‘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52.0%(63명), 45.4%(60명), 54.9%(72명), 53.1%(68명)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이다’로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각 프로그램들이 인식의 변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인식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목표달성에 관련된 참가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는 설문으로서, 총 3회(2차: Appendix B, 4차: Appendix C-2, 6차 설문조사: Appendix C-4)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그 수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소외와 스트레스 정도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보여 대체적으로 소기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며, 교육전문성 정도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보여 역시 대체적으로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력활용 정도에 있어서는 3번째 설문시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후반기에 노인봉사팀의 운영과 노노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앙적인 도움을 묻는 설문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이는 노인대학 노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기독교 노인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프로그램 평가

1) 초청세미나

강채은 목사를 초청하여 "교회의 고령화 시대 대책과 노인대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다. 세미나의 내용은 고령화의 문제, 노인목회의 필요성, 사례 발표, 한국교회의 노인대학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반의 평가 결과, 세미나는 침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성도들이 앞으로 교회의 노인목회에 대한 관심과 노인목회의 비전에 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노인대학이 '한국교회의 목회적 대안'이라는 말은 노인대학 사역에 관한 자부심을 줄 수 있었다.

2) 한국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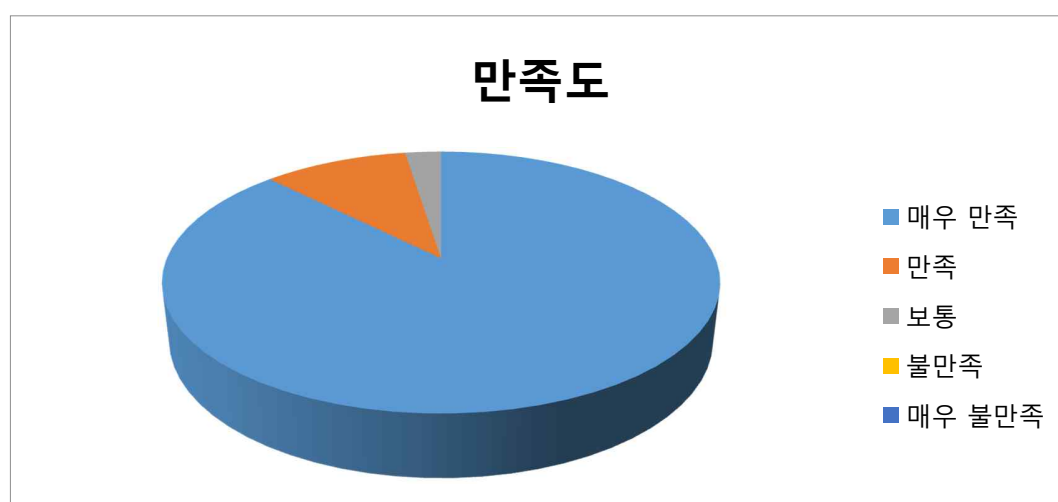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지도자 세미나에 노인대학 교사 5명이 1박2일간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다. 한국교회가 노인목회를 위한 연합조직이 있어서 매년 2회의 전문적인 지도자 교육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의 노인대학이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다는 증거가 된다.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강사들을 초빙하여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복이다. 한국교회 노인대학의 성공적인 견인을 위해서 지도자 세미나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노인대학은 매년 적어도 1회 이상을 반드시 참석하기로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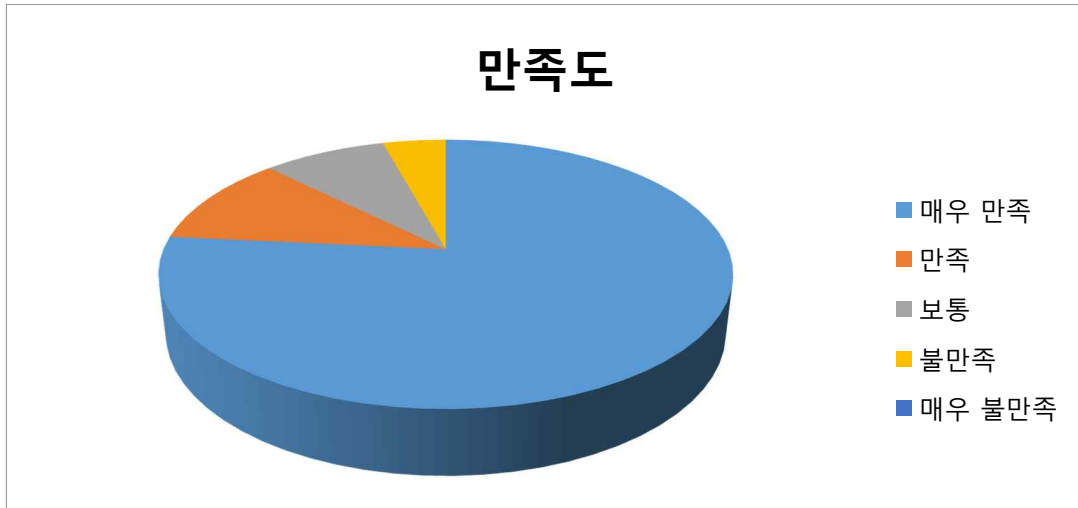
3)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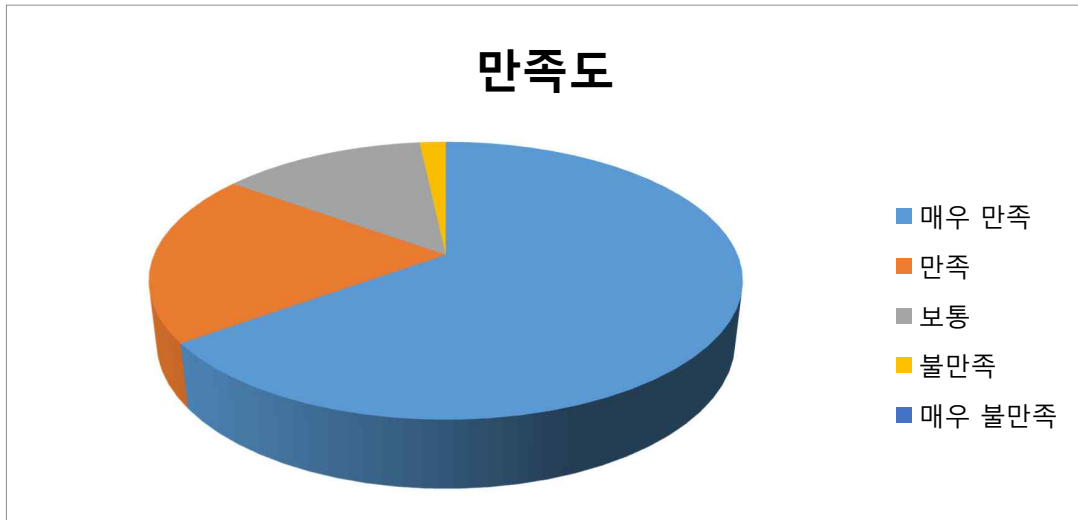
기독교인 노인 10명을 선택하여, 4~5가지의 질문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노인 상담의 의미가 있으며, 노인들의 문제를 직접 언어를 통해 현실성 있게 전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노인의 소외적 상황은 비교적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독거노인들과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노인들에게서 일부 관찰되었다.

4) 소통 프로그램: 어린이와 함께 하는 생일잔치

분기별로 열리는 노인대학 생일잔치 때, 전반기는 영락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후반기는 반석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미리 준비한 축하공연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은 분기별 생일잔치가 기다려질 만

큼 아이들의 공연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어떤 노인들은 아이들과 악수하거나 쓰다듬으며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은 준비해 온 생일축하 공연을 통해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설문조사에서도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노인들이 어린이들과의 접촉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평가된다.

5)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총 3회에 걸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라는 주제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론 및 실천행동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레크레이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노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노인들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6)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 노노케어 프로그램 / 노인대학 봉사팀

노노케어는 대략 한달 정도의 시험적 성격으로 실시되었으며, 케어자(9명)와 케어대상자(7명)이 모집되었다. 봉사팀은 3주간 모집하여 예배도우미 8명, 간식도우미 5명, 건강도우미 2명 등이 모집되어, 총 15명이 봉사를 담당하였다. 노인대학 전체 참가자들에 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다. 대략 노노케어와 노인대학 봉사팀을 지원한 지원자는 두 가지 사역자를 모두 합쳐서, 30여명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70명 이상은 참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노노케어와 봉사팀은 어느 정도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확대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평가된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노인대학 참가자들의 수를 평균 출석 200명으로 기준할 때, 이는 12%정도의 참가율에 불과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전체 노인대학 참가자들이 혜택을 입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작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교회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평가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당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요구된다. 노인대학의 위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 교사의 양육시스템, 인식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노인대학을 위한 교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노인대학의 사역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제주영락교회는 최근 노인대학을 위한 일련의 구조적 변화를 꾀했다.

첫째, 노인대학을 당회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변화시켜 고령화 시대 노인목회의 현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현재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담임목사는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부회장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노인대학 교사들을 평균연령 10년 이하로 세대교체를 완료하였다. 현재 대부분 자원봉사하는 교사들의 연령은 40~50대 수준이다. 셋째, 교회예산을 확대하였다. 노인들의 점심식비를 개인당 500원 인상하고, 전체 노인대학 예산을 2천9백 만원에서 3천7백 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 변화는

교회가 노인목회를 감당함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시대와 함께, 교회도 함께 변화되는 과정인 것이다.

Ⅷ. 목회 유능성 능력평가

본인은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목회의 전문가를 위한 유능한 목회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분야별 전문가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시행전략을 통해 노력하고 실천하였다. 또한 적용을 통한 평가를 내렸다.

1. 사회복지전문가

1) 목표

노인교육은 복지관련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연구와 서적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인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노인복지의 인력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련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에 관련된 헌법 및 정부의 정책과 전문가들의 연구들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이는 노인복지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고, 복지관련 전문가들과의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소양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전문가가 되면,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노인복지의 적절한 방법과 전략을 알게 된다. 또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구성과 정부정책과 맞물린 최적의

효과적인 노인대학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2) 평가

(1) 연구자 자신의 목회능력 평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복지관련 헌법과 많은 복지관련 책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특히 노인복지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관련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얻은 기회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척 생소한 느낌도 있었으나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복지에 관한 지식도 증대되고, 관심도 커져 갔다. 만일 앞으로 복지관련 목회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며, 다른 복지분야를 공부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복지관련 용어나 정책들이 친숙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2) 목회자 유능성 시행전략

첫째,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 분야별 복지관련 책들을 매년 1권 이상씩 읽는다.

둘째,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법 조항을 매년 3회 이상 읽는다.

셋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설교를 분기별 1회씩 한다.

넷째, 분야별로 복지관련 종사자들과 친분을 쌓고 자주 대화한다.

예) 노인복지분야: 강채은 목사, 복지관 분야: 이상언 복지관장, 어린이집 분야: 김정연 원장, 문미자 원장, 박혜자 원장

다섯째, 인터넷 수강신청이 가능한 공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에 도전해 본다.

(3) 연구반원의 연구자 목회 능력 평가

송영희, 고희경 연구반원의 평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의 복지관련 관심도와 전문성이 처음 만날 때보다 확실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복지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듣고 놀랄 때가 있다. 앞으로 교회에 노인복지 및 노인목회를 잘 적용하여 고령시대의 앞서가는 목회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노인복지관련 전문가가 되어 앞으로 노인목회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길 바란다.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의 복지들도 복합적으로 공부한다면 서로 절충하고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심리전문가

1) 목표

노인심리전문가가 되면, 노인에 대한 내면적인 이해가 증대되고, 노인들과의 적절한 인간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노인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심리에 대해서 일부의 책들을 읽었지만, 본격적인 심리학의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

른 노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심리를 알지 못하고 노인교육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노인심리 연구는 책을 통한 연구와 임상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노인심리와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고, 노인상담 및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인 노인심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때로 노인가정심방이나 병원심방을 통해 노인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노인심리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 평가

(1) 연구자 자신의 목회능력 평가

노인대학을 3년간 지도해 오면서 여러 부류의 노인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저절로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3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특히 논문을 준비하면서 책을 통해 이론을 함께 공부한 것은 더욱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2) 목회자 유능성 시행 전략

①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매년 2권 이상 읽는다.

② 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설교를 분기에 1회 정도 한다.

③ 노인심방 및 인터뷰의 기회를 자주 갖는다.

④ 노인대학 특강 시에 “노인심리”를 주제로 전문성 있는 특강강사를 초청한다.

⑤ 노인대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노인심리”를 주제로 한 1박2일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3) 연구반원의 연구자 목회 능력 평가

연구자는 노인대학 노인들의 신뢰를 많이 얻고 있으며, 평소에도 노인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노인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이다. 인격적으로 노인심리이해를 통한 노인상담에도 자질을 갖추고 있다. 설교를 통해서도 노인들의 심리적인 영역을 잘 이해하는 통찰력을 보여 준다.

3. 노인설교전문가

1) 목표

노인대학 교목은 먼저 설교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매 노인대학이 열릴 때마다 예배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교목은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에게 말씀선포를 통해 중요한 신앙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모범이 되는 타교회의 노인대학설교들을 청취하고, 노인설교자료들을 모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노인들에게 적절한 설교본문을 선택하고, 노인들의 이해와 눈높이에 맞는 설교방법 즉, 시청각자료 사용한 설교 및 이야기식 설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질 줄 아는 노인설교에 특화된 설교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노인대학 설교는 노인들의 신앙적

재무장과 결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노인설교전문가가 되는 것은 노인대학의 노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2) 평가

(1) 연구자 자신의 목회능력 평가

3년간 노인대학을 지도하면서, 노인설교를 훈련 받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일단 노인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경험만큼 중요한 훈련방법은 없을 것이다. 노인들이 이해하기에 적당한 설교수준과 언어사용, 심리이해가 노인설교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매주 노인설교는 보통 성경 한 구절 정도를 본문으로 설정하고,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되도록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쉽게 전달하고 있다. 약 10년 정도를 어린이부서를 맡아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노인설교도 어린이부서 설교의 수준을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2) 목회자 유능성 시행 전략

① 노인설교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설교내용뿐 아니라, 예화자료 및 시청각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관한다.

② 설교학에 관련된 책을 매년 2권 이상 읽는다.

③ 노인들이나 교사들로부터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잘 듣는다.

④ 지난 주 설교를 녹음하여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가려내어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 수정한다.

(3) 연구반원의 연구자 목회 능력 평가

연구자는 노인대학 설교를 일반 장년예배 설교보다 쉽게 한다. 좀처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노인들의 이해수준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설교를 듣고 난 노인들이 설교가 좋았다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교사들이 듣기에도 설교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교의 복음적 이미지도 매우 성경적이다. 설교의 세련미를 더한다면 매우 훌륭한 노인설교자가 될 것이다.

4. 노인교육전문가

1) 목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목표는 교육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노인대학은 실제로 일반학교 운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기관이다. 입학식, 졸업식, 강의, 특별활동, 소풍, 수학여행 등 일반학교처럼 계획된 커리큘럼대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일반학교가 교직과목 이수를 통해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처럼, 노인교육에 필요한 교직교육을 개설하여 교직에 관련된 책들을 선정하고 스타디 그룹방식으로 공부하게 한다. 이는 개인적인 소양을 키울 뿐 아니라, 노인대학 교사들의 교육에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교사들 간의 토론을 통한 교육적 훈련은 교육전문가의 역량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다. 이는 연구자 본인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발전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정기

적으로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분기별 1회 가량 교사들을 위한 ‘교직 특강’을 듣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반학교가 교사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처럼, 노인학교 교사들 역시 교육전문가의 소양을 갖춰야 한다. 노인교육은 초등교육과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 교사들의 노인 교직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노인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교육전문가의 양성이 기대된다. 노인교육 전문가는 먼저 교육학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안목을 갖추고 나서 노인교육에 관한 특수분야로 더욱 구체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2) 평가

(1) 연구자 자신의 목회능력 평가

본 연구자는 10년 이상을 성경공부 소그룹을 인도해 왔다. 양육과정 및 제자과정을 비롯하여 성서개론, 구약성서과 신약성서, 창조론과 진화론, 교회역사, 소그룹 인도법, 찬양의 이론과 실제 등 여러 성경공부를 이끌어 왔다. 노인교육에 관련된 이번 논문은 본 연구자에게는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노인대학 특강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2) 목회자 유능성 시행 전략

① 교육학 및 노인교육에 관한 책들을 매년 3권 이상 읽는다.

② 노인대학 교사들을 교육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매년

10주 과정으로 된 노인대학 교사 양육과정을 개설한다. 각각 이론교육 5주와 실제교육 5주 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분기별 1회 정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직 특강’을 듣는다.

④ 분기별 1회 정도 교육학의 이론 및 실제를 적용한 설교를 준비한다.

(3) 연구반원의 연구자 목회 능력 평가

연구자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처음으로 노인대학의 교사양육을 체계화시켰다. 일선 학교들의 교사들이 방학 기간 중에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노인대학의 교사들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익혀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연구자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적 역량도 갖추었고, 노인교육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갖추었다.

Ⅸ. 결론

혹자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지금의 장수시대를 구약성서에서 969년이란 가장 오랜 수명을 가졌던 인물인 므두셀라(Methuselah)의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여 장수시대를 '므두셀라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431] 성서적으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노인은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계층으로 국가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이다. 노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소외된 생활을 하여서는 안되며, 질병과 스트레스로 인해 질적으로 저하된 삶을 살아서는 안되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해서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일할 자리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소외로부터 벗어나 소통하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질병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없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며, 교육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연장선에서 끊임없

[431]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제51회 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서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2013), 81.

이 자기계발을 이룩해야 하며,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분명한 사회적 역할과 자리를 가지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인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와 같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지자, 노인들의 욕구는 점점 사회적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상향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노인대학은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섬기며 노인복음전도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의 노인대학은 법적으로도 그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노인교육의 현장이다. 특히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노인교육 및 노인목회사역으로서, 세상을 선도하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역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영락교회 노인대학을 통해 여러 가지 실험적 계획들을 적용하여 보다 발전적인 노인대학의 틀을 마련해 보고, 노인대학을 통한 노인들의 변화와 노인교육의 변화와 노인학교 교사들의 변화를 꾀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 속의 비기독교 노인학교들과 구별된 노인들의 영적인 무장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임양택은 노인대학을 “생명공동체(Ecocommunity)”로 불렀는데, 이는 교회가 노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노인대학을 운영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432] 교회는 이 땅의 노인들에게 진정한

[432] 임양택, *생명 공동체 교육과 노인의 희망* (서울: 쿰란출판사, 1998), 20.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노인대학은 미래 노인목회에 있어 교회와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비기독교 노인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줄을 확대해야 하며, 더 많은 생명의 산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노인대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히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다.

교회가 다가오는 노인 시대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그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봉사자들을 교육시켜 세상을 선도하고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노인대학이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노인대학들과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늙어가는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대학은 그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교회의 노인대학에 참석하여 즐거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고,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본 논문은 노인대학이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공동체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바탕에 두고 네 가지 실천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비기독교인 노인들에게 세상적 요소

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접근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APPENDICES

Appendix A

설문조사 (1차, 7차): 일반성도들의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

1. 본 교회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노인대학이 무슨 요일에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연령이 몇 세 이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알고 계시다면, 몇 세입니까? (답:)

4. 노인대학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다 3) 보통이다 4) 낮다 5) 매우 낮다

5. 노인대학이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된다 3) 보통이다

4)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주위에 알고 있는 노인이 있다면 노인대학 참여를 권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매우 있다 2) 있다 3) 보통이다 4) 없다 5) 매우 없다

Appendix B

설문조사 (2차): 노인대학 노인들의 실태조사 및 인식의 변화에 관한 조사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

1. 성별 : 1) 남성 2) 여성

2.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개신교 2) 천주교 3) 불교 4) 없음 5) 기타 ( )

3. 경로대학에 나오신 후 기독교로 개종하셨습니까?

1) 전부터 기독교인 2) 기독교로 개종 3)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음

4. 경로대학에 다니신 햇수는 대략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1) 10 년 이상 2) 7 년 이상 3) 5 년 이상 4) 3 년 이상 5) 1 년 전후

5. 경로대학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6. 경로대학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7. 경로대학이 대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8. 경로대학이 질병치료(치매 및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9. 경로대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0. 제주 4.3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4.3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2. 배우자의 생존 여부 1) 예 2) 아니오

13. 거주상황은 어떻습니까?

1) 혼자 거주 2) 부부만 거주 3) 자녀와 함께 거주

14. 매우 고독하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우울증 증세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1) 매우 많다 2) 많다 3) 보통 4) 조금 있다 5) 아예 없다

15. 은퇴 이후 생긴 문제나 더욱 심각해진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고르세요.

1) 고독감 2) 질병 3) 스트레스 4) 사람의 관계 단절(차별대우)

5) 무기력감 6) 경제적 어려움 7) 역할상실

16. 경로대학이 사람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7. 경로대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주보나 홍보지 광고 2) 다른 사람의 권유

3) 스스로 교회에 알아 봄 4) 기타 ( )

인식의 변화에 관한 설문

18. 삶 속에 느끼고 있는 소외와 고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크다 2) 큰 편이다 3) 보통 4)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19. 삶 속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20. 본 노인대학의 노인교육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21. 본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인력활용(자원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1) 매우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보통

4) 못하는 편이다 5) 매우 못한다

22.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신앙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조금 도움이 된다 3) 보통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ppendix C-1

설문조사 (3차): 단원설문지1. 소통이 원활한 공동체에 관한 조사

1. 노년이 되면 소외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나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계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2. 1번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셨다면, 은퇴가 소외 현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3. 1번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하셨다면, 노인대학이 소외의 감정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Appendix C-2

설문조사 (4차): 단원설문지2.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치유공동체에 관한 조사 및 인식의 변화에 관한 조사

1.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건강하지 않다면, 질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1) 매우 많이 받는다 2) 많이 받는다 3) 보통

4) 적게 받는다 5) 매우 적게 받는다

3.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4.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프로그램들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1) 설교 2)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3) 특강

인식의 변화에 관한 설문

6. 삶 속에 느끼고 있는 소외와 고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크다 2) 큰 편이다 3) 보통 4)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7. 삶 속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8. 본 노인대학의 노인교육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9. 본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인력활용(자원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1) 매우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보통

4) 못하는 편이다   5) 매우 못한다

10.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신앙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조금 도움이 된다 3) 보통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Appendix C-3

설문조사 (5차): 단원설문지3. 전문성과 영성의 노인교육공동체에 관한 조사

1.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2.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에 영성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Appendix C-4

설문조사 (6차): 단원설문지4. 노인인력의 참여와 활용에 관한 조사 및 인식의 변화에 관한 조사

1. 노인대학에서 진행하는 노인들의 봉사활동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2. 노인대학에 처음 실시한 '노노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3. 이와 같은 노인인력 활용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인식의 변화에 관한 설문

5. 삶 속에 느끼고 있는 소외와 고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크다 2) 큰 편이다 3) 보통 4)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6. 삶 속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7. 본 노인대학의 노인교육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8. 본 노인대학은 노인들의 인력활용(자원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1) 매우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보통

4) 못하는 편이다　5) 매우 못한다

9.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신앙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조금 도움이 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원별 프로그램 설문(3단원은 제외)

10. 분기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는 노인대학의 세대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생일잔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11.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총 3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라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레크레이션 중심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12. 후반기에는 노인인력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노노케어와 노인대학 봉사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추가 질문

<u>13 번~ 15 번은 기독교인만 응답하세요</u>

13. 올 한해 동안 노인대학을 참석한 이후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14. 경로대학에 다니시면서 신앙성장에 도움을 얻으셨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5. 만일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셨나요?

1) 예배 2) 성경공부(특별활동) 3) 특강 및 세미나 4) 사람과의 관계

5) 기타 ( )

Appendix D

대한노인회 노인학교 운영규정[433]

제 1 조【명　칭】 본 규정은 정관 제 38 조 ③항에 의하여 지회에 설치되는 노인 교육기관은 ○○○ 지회 부설 노인대학이라 칭하며, 경로당에 설치되는 노인대학은 ㅇㅇㅇ지회 ㅇㅇㅇ경로당 노인대학이라 칭한다.

제 3 조【운영책임】 노인대학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지회장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경로당 노인대학은 경로당회장이 운영하고 지회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 3 조【교육목적】 ①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는 노인으로서 품위 향상과

② 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③ 노인 각자가 지니는 잠재능력을 재개발시키고

④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여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4 조【교육내용】 ① 교 양 과 목 : 30% ② 국내외 정세 : 30% ③ 지 능 습 득 : 20% ④ 건강관리 및 기타 : 20%

[433] 대한노인회 노인학교 운영규정은 1975. 5. 28. 제정되어, 1 차 개정 (1977. 1. 22.), 2 차 개정 (2005. 11. 2.), 3 차 개정(2008. 11. 14.)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 5 조【강 사 진】강사는 대학교수, 노인문제전문가, 중앙회 위촉 지도교수 및 기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한다.

제 6 조【정　　원】정원은 50 명으로 한다. 단, 교실 사정에 따라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 7 조 【이수기간】이수기간은 6 개월 이상으로 하고, 주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8 조【수업시간】총 수업시간은 48 시간으로 하되 매주 1 회 2 시간씩 수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휴　　강】수업일이 국정 공휴일, 정부지정 휴일에는 휴강한다.

제 10 조【입학자격】입학자격은 해당 지회장, 분회장, 학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노인과 특별지원자로 한다.

제 11 조【입학지원절차】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① 입학원서 1 통　② 주민등록등본 1 통　③ 상반신 증명사진 1 통

제 12 조【제　　적】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학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① 1 개월 이상 무단결근자　② 품행이 불량한 자

제 13 조【졸업인정】제 7 조의 이수과정을 필한 자는 졸업증서(학교장 명의)를 수여한다.

제 14 조【학장 및 직원의 임면 절차】① 노인대학장은 사회 저명인사 또는 다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육 유경험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장이 임면하고, 연합회장에게 임면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교무담당직원 1 명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노인대학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④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15 조【재정 및 감사】노인대학의 재정은 각 지회 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 실정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자치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 16 조【대학의 설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여 설립결과를 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참고문헌 (BIBLIOGRAPHY)

A. 한국 서적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강성두. *출애굽기 강해: 구원과 해방*. 서울: 쿰란출판사, 1994.

강용규. 임옥빈, 임안나, 김현우, 성시한. *노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2011.

고동우. *여가학의 이해*. 서울: 세림출판, 2007.

교육부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교육 50년사*. 서울: 교육부, 2001.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1.

김남선. *평생교육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4.

김도수.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1997.

김동배.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2005.

김명수, 김보경, 박정환, 백영균.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2010.

김승택, 허재준, 조준모, 전용일. *고용과 성장*. 서울: 전영사, 2009.

김영봉. *교육학개론*. 서울: 서현사, 2008.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랑을 디고(제주 1호 목사 1호 순교자 이도종 목사전기)*. 서울: 쿰란출판사, 2010.

김용운. *웃음건강학*. 서울: 도서출판 메르헨, 1997.

김은홍. 고령도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김종일, 최혜지. *쉽게 쓴 노인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7.

김종서, 김신일, 한숭희, 강재중. *평생교육개론*. 서울: 교육교학사, 2009.

김태헌, 저출산 고령사회와 인구교육. 서울: 국고, 2012.

김혜경, 백경원, 신미경.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건강*. 서울: 신정, 2013.

나항진, *노인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4.

남기민, 조명희, 조추용, 한규량. *현대노인교육론*. 서울: 현학사, 2003.

대한불안장애학회 스트레스관리연구특별위원회. *스트레스 다스리기*. 서울: 가림출판사, 2005.

류종훈, 임창덕, 윤인호, 김동석, 오지혜. *노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02.

류종훈. *웃음치료혁명: 성경적 웃음치료*. 서울: 은혜출판사, 2006.

박귀영, 안우상, 오현숙, 정왕용, 허영숙.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2010.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고령화 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2003.

박성현. *박성현 콕知 3652 교육학*. 서울: 에듀모어, 2010.

박수암. *신약연구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박재간. *노인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서울: 노인문제와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세미나, 1984.

서사현. *명품노인*. 서울: 토트, 2013.

서혜경, 정순돌, 최광현. *노인상담: 기본 기술과 과정*. 서울: 학지사, 2013.

송선희, 권승숙, 이상매, 하경분, 진주영. *노인심리*. 서울: 신정, 2013.

송선희, 최명숙, 이상매, 서경조, 이화식. *노인교육론*. 서울: 신정, 2011.

양영애, 김미점, 정현애, 홍재란, 김정기. *노인작업치료*. 서울: 계축문화사, 2012.

양영애, 김성수, 박보라, 박수정, 박수희. *노인활동지도론*. 서울: 계축문화사, 2013.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경기 파주: 집문당, 2007.

윤정일, 허형, 이성호, 이용남, 박철홍, 박인우. *신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9.

이원웅, 고재욱. *고령친화산업연구*. 서울: 한진, 2011.

이임선. *웃음치료*. 서울: 하남출판사, 2010.

이덕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1993.

이성희. *예수님의 치유*. 서울: 삼일서적, 1992.

이호선, *노인과 노화*.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이정아. *일본의 발견-단카이 세대*. 서울: BOOK21, 2013.

이종승. *현대교육평가*. 경기 파주: 교육과학사, 2009.

임영효.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임춘식.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반성*, 서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0.

전영수.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 서울: 맛있는 책, 2011.

정상양.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12.

정석기. *샘솟는 초원*. 서울: 쿰란출판사, 2002.

정성구. *칼빈주의와 실천신학*. 서울: 한빛기획, 2005.

정동제일교회. *자유와 빛으로(정동제일교회역사, 1885-1997)*. 서울: 정동제일교회, 1997.

정옥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8.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제주영락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제주영락교회60년사(1952~2012)*. 제주: 제주영락교회, 2013.

차정식, 조태연, 장동수, 유승원, 송순열, 소기천, 박두환, 나요섭, 김판임, 김창락, 김득중, 김도우, 김경희. *신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최혜경, 정순희. *노인과 실버산업*.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1.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50년사*. 서울: 원미사, 2003.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제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서울: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2012.

______. *제51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서울: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2013.

한국노인복지회. *노인복지연구 : 재가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서울: 한국노인복지회, 1989.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2005.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고령사회의 이해: 노년과 사회*. 서울: 소화, 2010.

한인수. *제주선교백년사*.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9.

한정란.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2001.

______.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5.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서울: 협신사, 2000.

현길언. *솔로몬의 지혜*. 경기 파주: 조이웍스, 2010.

B. 번역서적

Beauvoir, Simond de. *La Vieillesse: 노년*. 홍상희, 박혜영 역. 서울: 책세상, 2002.

______. *The Second Sex: 제2 의 성*. 이희영 역. 서울: 동서문화사, 2009.

Conzelmann, Hans. *신약성서신학*. 김철손, 박창환, 안병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Downs, Perry G. *기독교 교육학개론*.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8.

Fishman, Ted C. *Shock of Gray: 회색쇼크*. 안세민 역. 서울: 반비, 2011.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정대화, 임성호, 김승채, 이재봉 역. 서울: 들녘, 2000.

Gunter, Mary A. and Thomas H. Estes and Susan Mintz. *수업모형*. 권낙원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0.

Hareven, T. K. Ed., *The Family and the Life Course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1978.

Hemingway, Ernest M.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 서울: 민음사, 2012.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Jones, Martyn Lloyd. *I Am Not Ashamed: 내가 자랑하는 복음*.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09.

Kempis, Thomas. A.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Kincaid, Ron. *제자삼는 교회*. 김진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Küng, Hans. *Die Kirche: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1.

Leech, Kenneth. *Spirituality and Pastoral Care: 영성과 목회*. 최승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Lucado, Max.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윤종석 역. 서울: 도서출판 복있는사람, 2005.

Mclntyre, Anne & Anita Atwal. *Occupational Therapy and Older People: 노인작업치료*. 김경미, 김동현, 노효련, 이선민, 이성아, 이준우, 이창렬, 이혜

경, 채수영, 황기철 역. 서울: 도서출판 영문출판사, 2009.

Metzger, Bruce. M. *The New Testament its background, growth, and content: 신약성서 개설*. 나채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8.

Myers, David G. *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 신현정, 김비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Nash, James A. *Loving Nature: 기독교 생태윤리*. 이문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Newbigin, Lesslie. *포스트모던 시대의 진리*.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5.

Nouwen, Henri J. M. *노인의 영광은 백발*. 최종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Pratt, Richard L.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i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이승진, 김정호, 장도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Peterson, D. A. *Facilitatinig Education for Older Learners*. San Francisco, Califonia : Jossey-Bass Publisher, 1983.

Peterson, Eugene. *Working the Angels: 균형 있는 목회자*, 차성구 역.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9.

Plummer, Robert L. *40 Questions About Interpreting the Bible: 성경을 여는 40가지 질문*. 김광현, 조충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Schirrmacher, Frank.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05.

Temple, William. *Readings in St. John's Gospel*, First series. London: Macmillian, 1939.

Tournier, Paul. *The Seasons of Life: 인생의 계절들*. Ktisis 역. 서울: 쉼북, 2005.

Underwood, L. H.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생활*. 김철 역.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84.

Wheeler, Barbara L. *음악치료연구*. 정현주, 정영주, 이인용, 송인령, 윤정림, 정희진 역. 서울: 학지사, 2004.

토모미, 후지와라. *폭주노인*. 이성현 역. 서울: 좋은책만들기, 2008.

C. 외국서적

Brock, R. *Journey by Heart: A Christology of Erotic Power.* NY: Crossroad, 1993.

Feldman, N. S. & S. W. Sweeney. Lifelong Education for Lifelong Needs. *Adult Learning*, 1989, 1(3).

Kinney, M.B. "Elderhostel : Can It Work at Your Institution?." *Adult Learning*, 1989, 3(1).

Paik, L. G.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Seoul: Yonsei Univ. Press, 1971.

Peterson, D. A. *Facilitatinig Education for Older Lear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1983.

Temple, William. *Readings in St. John's Gospel*, First series. London: Macmillian, 1939.

Tyler, R. W.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Wilcock, A. A. *Occupation for health, Volume 2: A Journey from Prescription to Self Health*. London: College of Occupational Therapists, 1990.

D. Journal/Magazine

강윤구. "노인 인권에 대해서." *교육목회* 통권 제17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강한옥.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이 필요한 시대." *총회논단* 175호. June 2012.

기영하. 노인학습의 신화와 노인교육 기회증진방안. ANDRAGOGY TODAY 4권4호, 2001.

김광석. "노인목회현장탐방."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2011.

김명옥. "교회학교 노년부 신설 및 공과교재 설명." *제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교재*. 서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2012.

박석규. "바울의 신학사상에 관한 고찰." *교육목회* 통권 제17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박석돈. "노인의 욕구변화와 노인교육." *노인학연구* 제2집. 대구: 영남대학교 부설 노인학연구소, 1998.

박정호, 김경희. "1970년대 이전의 노인교육 발전과정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32권 제1호, 충남: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오택현. "학개와 성전건축," *주간기독교* 통권1461호. 서울: 주간기독교신문, 2007.

이승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교회의 노인선교 전략." *제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서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2012.

이종록.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교회의 노인선교 전략," *제50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서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2012.

이창희. "노인들의 천국." *제51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 교재*. 서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2013.

장휘숙.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길 -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전략."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지료집*. 서울: 한국심리학회, 2007.

주영숙.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7집, 1999.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와 노인교육의 실천방안* 통권 제18호. 서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한정란. "노인교육과 세대통합 세대공동체 교육." *앤드라고지 투데이*, 2002.

E. News Paper

감리회보(監理會報). 6. 10. 1933. / 6. 1. 1945.

기독공보. “아름다운 세상.” 10. 5. 2013.

그독신보. 10. 4. 1916.

동아일보. 9. 2. 1938.

조선일보. 10. 31. 2013.

중앙일보. 8.20. 1992 / 12. 17. 2010.

Newsweek. 11. 10, 2008.

F. Report/Sensus Data

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

이병준. “21C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교육부 정책 연구과제보고서*. 1999.

G. Thesis Paper

곽선화.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선숙. 주요국의 노인교육 비교분석. 서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효선. 노인교실 발전방향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창연. 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회의 노인복지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화성: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석사학위논문, 2006.

선우은정. 장년층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안창. 고령화 사회의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윤성빈. 고령화 사회의 노인평생교육체제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미숙. 노인산업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 화성: 협성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8.

최운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화성: 협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0.

최철호. 누가복음의 종말론 연구.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황려. 노인대학 참여노인의 교과과정 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 화성: 협성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8, 15.

H. Dictionary/Lexicon

기독교대백과사전, V.11. 서울: 기독교문사, 199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대백과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동설, 1998.

I. Web Site

http://www.bundangnews.co.kr 분당신문

http://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사전.

http://www.cnbc.com CNBC뉴스.

http://www.cts.tv/news CTS뉴스.

http://www.ipharmnews.com/news 아이팜뉴스.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koreapeople.co.kr 대한 노인회.

http://www.kyeonggi.com/news 경기일보.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newstomato.com 토마토뉴스.

http://cafe.daum.net/lepdrc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원.

http://kostat.go.kr 통계청.

http://kostat.go.kr/office/hnro/rohn_ki/3/4/index.static 제주통계사무소.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66400 사이언스타임즈.

http://jeju.kbs.co.kr/news KBS뉴스.

http://www.uynews.net 의양신문.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cafe.daum.net/silver6090 한국고령사회교육원.

http://www.kcas91.co.kr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

http://www.ilo.org 국제노동기구.